7년 경력의 신입 헌터기본 설정된 알람이 울렸다.주윤별은 앓는 소리를 내며 침대맡을 더듬었다.‘내 핸드폰… 오늘은 스케줄도 없는 날인데 왜 모닝콜이 울리냐.’손끝이 핸드폰을 툭 건드렸다. 그는 무거운 눈꺼풀을 반쯤 들어 올려, 핸드폰 화면을 눈에 담았다.오전 7:00. 커다란 숫자 아래에 적힌 ‘모닝콜, 매일’은 주윤별이 설정한 적 없는 단어들이었다. 눈을 느리게 감았다가 뜨기를 반복할수록 초점이 또렷해진다.알람이 다시 한번 울렸다. 검지를 들어 알람을 종료한 뒤, 핸드폰을 들어 올린 윤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작고 조금은 묵직한. 깜찍한 구석이 있는 모양새. 손바닥 위에 안착한 건 요즘은 나오지 않는 구형 스마트폰이었다. 곧바로 홈 버튼을 누른다. 왼쪽 상단, 흰색 사각형에 적힌 숫자를 터치하자 새빨간 동그라미가 찍힌 화면이 떠올랐다. 그리고 맨 윗줄에는 연월이 표기되어 있었다. 2012. 건조한 눈을 비비고 봐도 여전히 같은 숫자다.구형 핸드폰에서 억지로 눈을 떼어내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활짝 열린 옷장 속의 교복 블라우스와 치마, 의자에 걸린 베이지색 책가방, 방 안을 가득 메운 블랙체리향.그리고 세레니티 블루 색 커튼과 어지러운 책상은 주윤별이 각성하기 전, 그것도 착실한 고등학생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풍경이었다. 4년 뒤에 내가 이 시절 유행을 이렇게 앞서갔다며 떠들어댔던 커튼이 빳빳하다.그 모든 게 추억 속에나 남아있던 것들이어서 주윤별이 제 손에 얼굴을 묻었다. 잠 한번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헌터로 살았던 7년이 그대로 사라졌다.이 상황을 두고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나마 다행히도 토요일이었다. 침대에서 비적이며 일어난 윤별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손바닥을 확인하는 일이었다.“이건 꿈도, 내가 미친 것도 아니야.”오른손 손바닥에 찍힌 불의 각인이 선명했다. 시곗바늘이 되감기지 않았더라면 이 시간대에 없었을 각인을 확인하고 나서야 숨통이 트이는 것만 같았다.“아.”그가 각인을 뚫어져라 보다가 짧은 감탄사를 내뱉었다.생각해보니 주윤별이 능력자로 각성하게 된 것은 수능날. 그것도 이른 새벽이었다. 손바닥과 걸려있는 교복을 번갈아 가며 바라본 윤별이 턱을 치켰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6년하고 8개월. 고등교과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을 모두 잊은 지 오래였지만 걱정은 없었다. 제 손바닥에는 선명한 각인이 새겨져 있으니, 그까짓 교과과정 좀 잊는다고 살아가는 데 문제가 생길 리 없다.무엇보다 지금은 겨울의 끝물이자 꽃 피는 봄이 오는 시기. 바야흐로 새 학기 시즌이다. 그 말은 즉, 수능을 포기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이었다.윤별이 그대로 방문을 벌컥 열었다.“엄마!!”그리고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엄마를 불러제꼈다. 그에 소파에 앉아있던 주윤별의 엄마, 정선혜 씨가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엄마!”방문이 벽을 때리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본 정선혜가 미간을 좁혔다. 저 망아지 같은 게 제 배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문짝 부서지겠다. 살살 좀 다녀.”“응. 알겠어요. 근데 이거, 이거 봐라!”목소리와 방문, 그리고 우당탕 달려오는 소리로 아침의 고요를 산산이 조각낸 딸이 들이민 것은 손바닥이었다. 약간의 굳은살이 박인 희고 작은 손. 이상할 것 하나 없는 손바닥을 빤히 들여다보던 정선혜가 결국 뒷 목을 붙잡았다.“너…너 이놈의 지지배! 이제 몰래 타투까지 했니? 내가 못 살아 정말!”타투가 하고 싶으면 성인이 되어서 하라고 했잖니. 하려면 예쁜 걸 하던가 그게 뭐니. 아이고. 곱게 낳아줬더니 몸에 이상한 거나 새기고 앉아있네!온갖 소리가 쏟아진다. 주윤별은 가만히 그 말들을 듣다가 고개를 내저었다.“아냐. 나 타투 안 했어.”억울하다는 듯 눈꼬리를 늘어뜨리며 손끝으로 각인을 긁는다. 손바닥 위에 피어난 불꽃은 선명한 푸른색이었다.“세상에…”불이 살랑살랑 움직인다. 부드러운 움직임은 춤사위를 연상시키기도 했다. 윤별이 불을 움켜쥐었다. 정선혜는 살갗으로 번지는 푸른색을 보며 ‘세상에’와 ‘어떻게’ 정도의 단어를 띄엄띄엄 내뱉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딸아이의 얼굴과 푸른빛을 번갈아 가며 바라보다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다.이능력 각성 센터. 이능력이 각성하게 되면 가장 먼저 찾는 장소이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이라면 2년에 한 번씩 방문하여 각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었다. 각성 센터 인천지부 앞에서 발을 멈춘 정선혜를 힐끔인 윤별은 아무렇지도 않게 유리문을 열었다.“엄마?”그는 제 엄마의 손을 잡고 문 안으로 들어섰다. 센터 안은 꽤나 한적했다. 윤별은 능숙하게 번호표를 뽑고, 구석에 놓인 셀프바에서 블랙커피와 유자차를 탔다. 소파에 앉은 엄마의 손에 유자차를 쥐여 드리고는 커피를 홀짝였다.“너 여기 와봤어?”처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주윤별을 향해 의심 어린 눈초리가 쏟아졌다. 윤별은 시큰둥한 얼굴로 고개를 내저으며 입술을 뗐다.“내가 여기에 올 일이 뭐가 있어.”이 시간대에. 앞에 들어가야 하는 단어를 묵음 처리하며 턱을 치킨다. 뻔뻔하게 답하며 구식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깔려있는 애플리케이션 중 SNS를 터치한다. 스마트폰도, 와이파이도 모두 구려서 눈물 날 것만 같다. 3초면 타임라인을 보여주던 와이파이가 그리웠다. 느릿느릿 켜진 타임라인을 빠르게 훑고, 팔로잉 리스트를 열었다.일에 치여 사느라 바빴던 7년이라는 시간은 그럭저럭 친하게 지냈던 동창들과 같이 다녔던 친구들의 이름을 홀랑 까먹기 쉬운 햇수다. 그러니까, 주윤별 역시 몇 명을 빼고 잊은 지 오래라는 소리였다. 팔로잉 리스트에 보이는 사진이나 이름은 분명 낯익긴 한데… 문제는 정말 낯만 익었다. 처참할 정도로 흐린 기억이라 이 중 한 명이 말을 건다면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99%다. 오른손 엄지로 화면을 끌어올리며 맨 아래까지 훑었다.얼굴과 이름을 매치하던 중 어색한 기계음이 숫자를 읊었다. 윤별은 스마트폰과 같이 쥐고 있던 번호표의 숫자와 창구에 적힌 번호를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안녕하세요.”자리에 앉자마자 건네지는 서류를 받아든다.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부터 각성에 대한 것까지. 다양한 내용이 줄이었다.“안녕하세요! 서류 먼저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신분증은 여기에 바로 두시면 돼요.”그 말에 카드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올려두었다. 스크래치 하나 없이 반짝거리는 신분증 하단에 적힌 날짜는 딱 한 달 전이었다. 윤별은 왼쪽에 놓인 펜꽂이에서 검은색 볼펜 하나를 꺼냈다. 노크식 볼펜에서 똑딱거리는 소리가 났다.이미 한 번 작성해본 적 있다고 꽤 편안하게 빈칸을 기재할 수 있었다. 주윤별이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센터 직원과 정선혜는 도란도란 대화를 나눴다. 초면의 두 명이 할만한 이야기라고는 주윤별에 관한 이야기뿐이었다.“세상에… 각성하자마자 능력을 썼어요?”“네네, 애가 아침부터 초가삼간 다 태우는 줄 알고 긴장했지 뭐예요.”“불 계열이면 능력 다루기 힘들다던데 신기하네요.”윤별은 저에 대해 떠드는 소리를 한 귀로 흘리며 작성한 서류를 점검했다. 각성 일자가 11월이 아닌 2월로 적힌 게 퍽 어색하다. 윤별이 엄지로 날짜를 갉작인다. 볼펜 자국이 지문에 묻어날 것만 같았다.“우리 딸이 어수룩해서 헌터로 활동할 수 있…”“다 썼어요.”주윤별에 대해 말하던 문장이 어색하게 끊겼다. 직원은 능숙하게 “아휴. 처음 보는 서류도 척척 쓰시는걸 보고 어수룩하다고 말하진 않죠!” 하며 대화를 마무리했다.“고생하셨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휘어지는 눈꼬리를 바라보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직원은 윤별이 작성한 서류를 빠르게 훑는다. 누락이나 오기입 하나 보이지 않는다. 전자시계와 대기 중인 센터 방문객까지 확인한 직원이 손가락을 풀고 키보드 위에 얹는다. 10분 뒤가 점심시간이다. 최대한 빠르게 타이핑하고, 다음 팀으로 안내하면 그 누구보다 완벽한 식사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타닥타닥. 전투적으로 키보드를 두들기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두 모녀는 일상적인 말들을 주고받았다. 가령,“우리 오늘 점심은 뭐 먹어?”“나온 김에 먹고 들어갈까?”“집에 가서 먹자. 나 집밥 먹고 싶어.”같은. 긴장이라고는 하나 보이지 않았다. 각성자 등록과 등급 판정을 받으러 온 사람보다는 집 앞에 마실 나온 동네 주민들에 가까운 대화만 이어진다. 신규 각성자가 으레 보이는 반응을 기대하고 있던 직원, 김주영 씨가 서류 속 문장을 체크했다.그로부터 정확하게 8분 뒤. 키보드의 비명이 멎었다. 김주영 씨는 손바닥을 쫙 폈다가 주먹을 쥐기를 반복한 다음, 주윤별과 정선혜를 바라보았다.“왼쪽에 보시면 등급판정팀이 있어요. 이 종이 들고 판정실로 가시면 됩니다.”“아, 네.”프린터에서 갓 출력된 확인증을 내밀며 활짝 웃었다.“좋은 결과 바랄게요!”점심시간까지 딱 1분이 남아있다. 멋진 점심시간을 보낼 의지로 가득 찬 표정의 김주영이 신규 각성자와 그의 보호자를 보며 입에 밴 인사말을 꺼냈다.직원 왼쪽에는 긴 복도가 있었는데, 그 중 두 번째 방이 등급 판정실이었다. 활짝 열린 유리문을 통과하자마자 보이는 데스크에 확인증을 제출했다. 윤별이 판정 검사를 준비하는 동안, 그의 엄마는 데스크 양옆에 놓여있던 카탈로그를 모두 챙겼다.첫 번째 카탈로그는 이능력 등급 판정 검사의 안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홍보로 가득했다. 정선혜는 ‘확인의 던전’이 생기기 전, 능력 등급 확인용 던전의 부산물로 만들었다는 기계의 설명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주윤별은 제 엄마의 옆얼굴을 바라보다 코끝을 찡긋거렸다.“나 다녀올게.”긴장감 하나 없는 목소리에 정선혜는 카탈로그에서 눈도 떼지 않고 “잘 다녀오렴.”하고 말했다.윤별은 직원을 따라 걸었다. 두꺼운 철문을 열자 단순한 사무실이라 말하기 어려운. 세이프티 룸에 가까운 방이 드러났다. 중심에 놓인 직사각형 기계를 보자 추억이 새록새록 돋는다.“각인 위치가 손바닥이면…, 판정기 상단에 손을 올리시면 돼요. 판정기가 주윤별 님의 능력을 흡수하기 시작할 거예요. 판정 중 능력 과다흡수로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판정기에 연결된 긴 선을 가리킨 남자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판정기가 흡수한 능력은 이 선을 통해 배출되는데, 그때 주윤별 님의 이능력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그가 벽에 짧은 동영상 하나를 틀었다. 선에서 물줄기가 요란하게 터져 나오자, 각성자로 보이는 이와 판정기를 제외한 온 방 안이 흠뻑 젖었다.“해당 능력의 각성자만큼은 안전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바깥에서 안내방송이 나오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동영상 속의 주인공이 화들짝 놀라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윤별이 고개를 내저었다. 던전헌터 경력 7년의 신입이 궁금한 게 있을 턱 없다.각성자 등록증에 선명히 새겨진 알파벳은 S였다. 주윤별은 뒤집어진 센터 안의 사람들을 질린 얼굴로 바라보다가, 정선혜를 향해 몸을 틀었다.“엄마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가자.”세계에서도 몇 없다는 등급을 받고도 밥을 찾는 모양새에 정선혜가 제 귀를 만지작거렸다. 잘못 들은 거겠지.“뭐라고?”“밥 먹으러 가자구.”평온한 어조에 기뻐할 시간을 뺏겼다. 그는 하나뿐인 딸의 재촉에 한숨만 푹푹 내뱉었다. 어서 가자며 손을 잡아끌어 댄다. 따끈따끈한 온기에 이끌려 센터에서 빠져나오고 나서야 카탈로그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제 딸을 타박했다.“그거 아-무 소용없어. 도움이라고는 하나도 안될걸? 일단 그 카탈로그에 있는 설명은 보통 C등급 이하 기준으로 적힌 거래.”“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아까 찾아봤지!”스마트폰을 흔들은 윤별이 눈꼬리를 늘어트리며 웃었다.“이번만이야.”SNS만 보고 있던 딸의 모습을 떠올리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에 정선헤와 잡고 있던 손을 놓고 팔짱을 낀 주윤별이 고개를 끄덕인다.“네에네에. 역시 엄마밖에 없어.”“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해.”“사실인데 왜 침을 발라?”능청스럽게 받아치고 보폭을 넓힌다. 소식을 접한 기자들이 센터 앞에 모여들기 전에 도망쳐야만 한다. 급한 마음에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자, 얼떨떨하게 끌려오는 엄마가 느껴졌다.“너 배가 그렇게 고프니?”윤별이 입꼬리를 끌어당겼다. 부드럽게 휘어지는 입술은 꾹 다물린 채였다. 솔직하게. 그것도 거짓 한 점 섞지 않는다면. 가슴팍까지 음식물로 꽉 차 있는 기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다. 그는 어떻게든 될 거라는 마음가짐으로 입술을 벌려 집밥을 외쳤다. 7년 경력의 신입 헌터집에 도착해서 점심밥을 목구멍까지 쑤셔 넣고, 대화를 나누고, 인벤토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핸드폰을 손에 쥔 윤별이 소파 위에 늘어졌다. 돌발형 던전게이트 처리도 이것보단 덜 힘들겠네. 소리 없이 투덜거리며 녹색창을 킨다.“대한민국 최초, 초기 각성 등급 S급 등장!”, “인천에서 S급 각성자 등장. S급은 누구인가?”와 비슷한 문장들이 초록창 뉴스란을 가득 채우고 있다. 전에는 “수능 당일, 수험생이 S급으로 각성하다.”, “‘수험생’각성자, 수능은 어떻게?” 같은 문장과 센터에서 온갖 설명을 다 듣고 나왔던 주윤별의 사진, 수능장에 들어가는 사진과 대학 입학에 대한 추측성 기사로 점철되어있던 것보단 나았다.윤별은 검지로 코 밑을 한 번 쓸었다. 개학까지는 누구보다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해서 죽을 것만 같다. 개학이라고 해봤자 딱 일주일이라는 게 조금은 아쉬웠지만, 직업란에 헌터를 작성하는 게 익숙해졌을 때부터 이틀 이상 쉰 적 없는 주윤별에게는 한 달 같은 시간이었다.늘어진 채로 웹서핑을 끝내고 SNS를 켰다. 종 모양 이모티콘 위에 적힌 숫자를 무시하고 타임라인을 훑기 시작한 주윤별을 한심하다는 얼굴로 바라본 정선혜가 입을 열었다.“주윤별. 공부 안 해?”수험생의 본분을 어서 자각하라는 독촉에 윤별이 눈만 깜빡인다.“내가 공부해서 버는 돈보단 각성자로 버는 돈이 많지 않을까?”주윤별은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 1위에 빛나는 헌터였다. 그것도 쉬는 날이 없다는 것을 유일한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상위 0.001%. 명실상부 월드 클래스인 과거이자 미래를 떠올리며 스마트폰을 내려두었다.“엄마, 난 수능과 안전 이별 하고 싶어.”딸의 수능 포기선언에 그의 엄마, 정선혜 씨가 결국 손을 들어 올렸다. 살과 살이 부딪치며 찰싹거리는 소리가 났다.“너 이놈의 지지배!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아! 엄마 잠깐만! 나 때려봤자 엄마만 다쳐!”소파에서 구르듯 내려온 윤별이 재빠르게 도망쳤다.‘엄마 원래 안 이랬잖아. 나한테 먹고 살길 하나 생겼다고 좋아해 줬잖아!’우당탕 내달린다. 가재도구를 모두 박살 낼 것처럼 도망치던 윤별이 급히 방문을 걸어 잠갔다.“너 이리 안나와?”서리 낀 목소리가 문틈을 비집는다. 굳게 잠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었다. 주윤별은 소름 돋은 팔뚝을 쓱쓱 문지르고는 못 나가겠다며 소리 높여 외쳤다. 그날 밤. 주윤별은 제가 수능과 안전 이별해야 하는 열 가지 이유를 나열하다가 한마디를 덧붙였다.“엄마. 나 사실 기억에서 집합도 날아갔어.”수학의 정석 맨 앞 장을 장식하고 있는 집합마저도 기억에 없다. 주윤별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7년 가까이 되었으니 당연한 말이다. 기억나지 않는 게 각성 후유증인 것처럼, 눈꼬리를 축 늘어뜨린다.“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응…근의 공식도 2a가 있다는 것밖에 생각 안 나던걸…”고교과정도 아닌 중학 과정까지 읊는 모습이 뻔뻔하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처럼 징징거리고 나서야 정선혜는 딸의 대입을 포기했다. 다니던 학원을 모두 끊고 집 안에서 굴러다니던 시간이 끝났다는 게 퍽 아쉽다. 윤별은 교복을 입자 마자 미간을 좁혔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반나절은 입는, 활동성 높아야 할 교복이 더럽게 불편했다. 넥타이를 쭉 끌어 내리고 맨 윗단추를 푼다. 그제야 숨 쉬는 게 조금 편해졌다.커다란 백팩 대신 A4 파일이 겨우 들어가는 메신저백에 약간의 짐을 챙긴다. 가방에서 제일 무거운 게 지갑인 가방을 어깨에 멘 윤별이 옷차림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교복 치마가 말려 올라간다. 학생 때 나는 이걸 어떻게 입고 다닌 거지? 과거이자 현재의 주윤별을 향해 온갖 불만을 쏟아내며 루즈핏 후드집업을 죽죽 늘린다.“다녀오겠습니다.”텅 빈 집에 인사를 남긴 윤별이 현관문을 열었다.등굣길은 퍽 즐거웠다. 몇 없는 추억을 떠올리기에 딱 좋았다. 지각한 날 교문에 서 있던 학생주임 선생님을 피하겠다고 담을 탔던 일-안타깝게도 담벼락 아래에 있던 선도부 학생에게 걸렸다.-이나, 점심시간마다 친구들과 운동장을 빙글빙글 돌며 점심을 소화시키던 일 같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소소한 추억들이 흐리게 떠오른다.학기 첫날이라고 교문에는 아무도 없었다. 삑삑대는 호루라기 소리와 금연 캠페인이라며 플랜 카드를 높이 들고 흡연은 나쁜 것이라 외치는 소리 역시 없다. 3년 동안 다녔던 고등학교가 갑자기 낯설어진 기분이었다.“윤별아 안녕!”찬 공기를 몰고 온 몸뚱아리가 왼쪽 팔을 붙잡고 매달린다. 딱딱한 플라스틱에 적힌 세글자를 빠르게 훑는다. 조아라. 명조체로 또박또박 쓰인 이름 석 자에서 시선을 거둔다.“응, 안녕.”제 팔에 달라붙은 조아라의 다갈색 눈동자를 들여다본다. 햇살이 내려앉아 다갈색이 맑게 일렁였다.“잘 지냈어?”“완전 잘 지냈지. 넌?”“난 학원 뺑뺑이 쳤지…”파르르 몸을 떤다.“고 3 진짜 싫어. 끔찍해. 그리고 수능 보는 날까지 이 생활이 계속 가야 한다는 건 너무 비합리적이야. 수험생이 무슨 로봇이야? 매일 똑같은 루틴으로 살게? 무엇보다 365일 중 단 하루로 승패가 갈리는 건 말도 안 돼. 난 운 같은 거 더럽단 말이야.”그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우리 엄만 벌써 아빠가 집에서 숨 쉬는 소리까지 단속해.”라는 말을 이었다. 오랜만에 보는 동창의 투덜거림을 들어주던 윤별이 영혼 없는 맞장구를 두어 번 쳤다. 고교 졸업과 동시에 연락이 끊겼던 터라,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그럼 나 먼저 들어갈게!”쉴 틈 없이 조잘대던 조아라가 제가 배정받은 반으로 쏙 들어갔다. 윤별은 손 한 번 흔드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1분단 맨 뒷자리가 비어있다. 주윤별은 그 중 오른쪽 자리에 가방을 올리고 교실 안을 훑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수험생이라고 책상에 코 박고 공부하는 다수와 현실 도피 중인 몇, 부족한 잠을 채우는 몇. 평범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었다.주윤별은 문제집 대신 스마트폰을 꺼냈다. 미디어 볼륨을 없앤 뒤, 언제 다운받았는지도 모르는 게임 하나를 킨다. 스마트폰을 가로로 들고 양 엄지로 열심히 화면을 터치하던 윤별이 고개를 들어 올렸다.“안녕. 여기 자리 있어?”이 나이대 남자애들과 다른, 부드럽게 발화되는 음성이었다. 윤별은 제게 말 건 동급생을 바라봤다. 지나치게 검어서 되려 푸른빛이 도는 듯한 검은 머리카락과 푸른 눈동자, 느슨히 올라간 입술선. 잊고 있었던 첫사랑이었다.첫사랑의 미모 정도야 추억 속에 미화된 거라 생각했던 주윤별이 입술을 동그랗게 벌렸다.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려는 시답잖은 플러팅을 내리누르고 대답했다.“없을걸?”“아. 고마워.”딱딱한 말에도 눈을 반달로 만든 그 애, 공유진이 창가 자리에 앉았다. 공유진은 가방에서 사과 맛 마이쮸를 꺼내더니, 그대로 윤별에게 건넸다.“어… 고마운데 이거 나 다 먹으라고?”새 학기에 친구 사귈 때 쓰는 방법인 마이쮸 나눠주기는 개별포장된 거 하나씩 주는 거 아니던가? 주윤별은 건네받은 마이쮸와 공유진을 번갈아 가며 바라봤다.“응. 짝 주려고 가져온 거야. 난 공유진이야.”그 애는 스스로 제 이름을 말하는 게 부끄러웠는지 뺨을 긁적이다 웃었다.“알아. 내 이름은 주윤별이야.”근 칠 년 만에 하는 자기소개가 낯설다. 윤별은 공유진의 눈동자에 눈을 맞추고 다시 한번 제 이름을 읊었다. 주 윤 별. 입술이 동그랗게 모였다가 옆으로 벌어진다. 이름만 말하는데도 낯간지러운 구석이 있었다. 그에 공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잘 부탁한다는, 의례적인 말을 꺼낸 것에 가볍게 답한 윤별이 스마트폰의 잠금을 풀었다. 일시 정지를 눌러두었던 게임을 재생시킨다.주윤별이 무료한 낯으로 소리 없는 리듬 게임을 클리어에 열을 올렸다. 주윤별 기준 옛날에 유행했던 아이돌 노래가 그의 손에서 B랭크가 되었다. 그는 이능력 각성 랭크는 텀블링 하며 측정해도 손쉽게 랭크를 딸 수 있는데 리듬 게임 랭크는 이다지도 어렵다며 혀를 끌었다.외국 하이틴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노래의 간주를 잘라 만든 종소리가 울렸다. 앞자리에서 노래 가사를 짧게 흥얼거리는 허밍과 섞인 종소리는 금세 멈췄다. 선생님이 오지 않았어도, 하나둘씩 자리에 앉고 있다. 사실 수험생이 되었다고 일어나 있는 인원도 몇 없긴 했지만 말이다.리듬 게임에서 농장경영게임으로 장르를 바꾼 윤별이 검지로 화면만 툭툭 건드리는 것을 멈췄다.“자자. 핸드폰 다 집어넣어라.”교실 앞문을 닫으며 들어온 남선생이 교탁 앞에 섰다. 그는 새까만 출석부로 교탁을 가볍게 두드리고는 등허리를 꼿꼿이 폈다. 왼쪽 손바닥으로 턱과 뺨을 감싼다. 자연스럽게 턱을 괸 윤별은 교실 앞에서 무게 잡고 떠드는 것을 듣는 척했다.조례라 칭하기에는 ‘오늘부터는 3학년이니, 어제까지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같은 잔소리로 가득 찬 시간이 끝났다.“그럼 수업 잘 듣고. 이따 보자.”담임 선생이 된 남선생이 교탁에서 벗어나려 했다. 윤별은 미리 챙겨 둔 서류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어디 가?”옆자리에 앉아있는 공유진이 불쑥 말 걸었다.“잠깐, 제출해야 하는 게 있어서.”학교 앞 문구점에서 파는 100원짜리 서류 봉투를 들어 보인다. 그 애의 푸른 눈이 가느다랗게 뜨였다. 주윤별은 어깨를 으쓱였다. 헌터로 일하며 사회성을 차근차근 죽여버려서 뭐라 더 말을 이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입을 여는 대신, 손을 한 번 흔들고 담임 선생을 따라 교실 밖으로 향했다.“선생님.”교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담임 선생을 부른다. 주윤별은 보폭을 넓혔다.“왜?”한쪽 눈썹을 끌어올린 채로 묻는다. 첫날부터 귀찮게 하지 말라는 기색이 역력하다. 윤별은 서류 봉투를 한쪽 옆구리에 끼고 남선생에게 다가갔다.“드릴 말이랑 서류가 있어서요.”남자의 눈이 윤별과 서류 봉투를 차례로 훑었다.“교무실 가서 드릴까요?”“그래. 윤별아.”명찰 속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는 목소리에서조차 감정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남선생의 뒤를 쫓아 교무실 안쪽, 남자의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이게 뭐야?”“이능력 각성자가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요.”“뭐?”“센터에서 발급한 서류예요. 공문도 내려올 거라는데 그건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별스럽지 않다는 얼굴의 윤별이 느리게 눈을 깜빡이며 다시금 입술을 뗐다.“서류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기 취업하고 비슷할 거예요. 던전브레이크는 몰라도, 던전게이트가 열리면 수업 중이어도 바로 나가야해요.”교무실 내의 시선이 몰린다. 옆얼굴에 꽂히는 시선들을 무시하며 연달아 말 한 윤별이 손뼉을 쳤다.“각성하면서 기억이 다 날아갔으니, 저는 없는 셈 치고 수업하시면 돼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시간을 거슬러 올라서 생긴 일을 각성 후유증인 양 말을 꾸며내기까지. 제 할 말만 모두 쏟아내고는 꾸벅 인사했다. 푹신한 의자에 앉은 남선생은 교직원 생활 중,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에 어색한 어조로 긍정을 표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인지 못 하는 얼굴이었다.‘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마음속으로 손 흔들며 뒤돌아섰다.‘여러분은 알아서 잘 행복해지세요!’7년 경력의 신입 헌터교무실에서 있던 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윤별은 창가에 다닥다닥 붙은 검은 머리통들을 보며 한쪽 입꼬리를 끌어당겼다. 최연소 S급 각성자라는 타이틀을 달자마자 동물원 원숭이 취급이다.“윤별아.”무의식중에 검지로 책상을 두드리고 있던 윤별이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였다.“왜?”“무슨 일 있어?”눈꼬리를 축 늘어뜨린 공유진이 물었다.“아니 딱히 없는데. 그냥, 지금 당장 학교에 게이트나 브레이크가 터지면 구해줄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저러고 보는 게 웃겨서.”삐뚜름한 웃음을 걸고 말한 윤별이 공유진의 눈동자를 응시했다. 각성자가 되자, 2학년 때까지 친했던 애들도 제게 말 한마디 못 걸던데, 공유진은 잘만 말 건다.“그래도 넌 구해줄 거잖아.”“그렇긴 하지. 남들보단 조금 늦게 구해주긴 하겠지만.”덤덤한 말에 주윤별 역시 덤덤히 답했다.위이이잉⎯! 그와 동시에 스마트폰에서 요란한 사이렌이 울린다. 윤별이 책상에 올려뒀던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고 안전 안내 문자를 열었다.’안전안내. 3월 2일 현재 연수구 송도동 해돋이공원 내 던전게이트가 열렸으니 해당 지역으로 이동자제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도 한 곳으로 쏟아지던 시선이 더 몰렸다. 고 3이 되자마자 학교 근처 공원에 열렸던 던전게이트를 잊어버리고 있었다. 윤별이 손바닥으로 제 이마를 한 번 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유진아. 선생님께 말 좀 해주라. 부탁해.”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 번 두드렸다. 윤별은 탈출구로 수많은 머리통으로 바글거리는 교실 문대신, 보이는 것이라고는 깨끗한 하늘뿐인 창문을 택했다. 커다란 창문을 열어젖히고 긴 다리를 뻗어 창가에 올라선다. 생각해보니 고등학교는 너무 오랜만이라 돌발형 던전게이트가 열린 곳의 방향을 잡기 어렵다.“근데 해돋이공원은 어느 쪽이야?”어설픈 말에 공유진이 손을 들었다. 저쪽.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방향은 오른쪽이었다.“고마워. 그럼 이따 보자.”손을 팔랑거리며 흔든다. 주윤별은 발가락 끝에 힘을 주며 지면을 향해 뛰어내렸다.순식간에 떨어지는 몸뚱어리 아래에 불을 피워낸다. 푸른 불꽃이 모여 징검다리처럼 길을 만들고, 그대로 그 불을 밟았다. 발바닥이 닿을 때마다 흩어지며 발목을 감싸 안는다. 그는 하늘에 푸른 길을 만들며 내달렸다. 해돋이 공원을 발아래에 둔 주윤별이 검지로 코 밑을 쓸었다.“개판이네.”말 그대로 개판이었다. 던전게이트에서는 몬스터들이 기어 나오고 있었고, 푸르렀던 초목은 반쯤 파괴된 상태다. 공원 이용객들이 두고 간 텐트는 찢겨서 잔디 위를 나뒹굴고 있었다. 연두색, 노란색, 하늘색, 카키색. 그것들은 반쯤 뽑힌 나뭇가지에 있거나, 몬스터의 손톱에 걸려있기도 했다.개판이어도 사람으로 보이는 형태는 없었다. 게이트 안에 끌려갔을 경우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 마음은 편했다. 윤별은 습관적으로 인벤토리를 열었다. 애용하는 무기, 깜찍이로 저 몬스터들을 다 죽여버리리라.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깜찍이를 집어 들려 했지만, 당연하게도 인벤토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멍청한 얼굴로 인벤토리를 닫았다가 다시 연다. 윤별은 달라진 것 하나 없는 인벤토리를 응시하며 뚝뚝 끊기는 헛웃음을 내뱉었다.“허, 허, 내 깜찍이가 왜 없지?”그가 시간을 되돌아온 날부터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문했다. 깜찍이가 있다면 좀 더 편하겠지만. 없다고 해서 게이트를 닫지 못할 것도 아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입술은 절로 삐죽거린다. 그가 제 몸을 지탱하고 있는 불덩이를 없앴다. 순식간에 지면과 가까워진다. 무기 하나 없는 혈혈단신으로 공원에 내려온 윤별이 오른쪽 발을 슬쩍 들었다.지금이 기회다. 비록 이능력이 불계열이라 보이는 게 지나치게 다르겠지만, 디\*니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 딱 2년이라는 기간.들어 올리고 있던 발로 힘차게 바닥을 내려찍는다. 발바닥에서 불꽃이 튀었다. 작은 불티는 주윤별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크기를 불려가며 일정한 모양을 그리는 불길은 게이트를 통과한 몬스터들을 야금야금 먹어 치우기 시작했다.“아...안 만들었다.”따뜻한 포옹을 사랑하는 눈사람이 갑자기 떠올랐다. 윤별은 제가 만들어낸 불길을 보며 안타까움에 콧잔등을 찡긋거렸다.푸른 하늘 아래에서 지독하게 푸른 빛을 내뿜는 불길이 기괴한 것들을 녹이고 태운다. 얼음으로 왕궁을 만들진 못해도 시체산정도는 만들 수 있지. 팔을 쭉 뻗자 손가락 끝이 향하는 곳에 불기둥이 생겼다. 던전게이트 앞에 세워진 다섯 개의 기둥은 빠져나오던 몬스터를 삼키기 시작했다.일정한 시간이 지나자, 해돋이 공원에는 기묘한 비명이 사라져졌다. 윤별은 제가 만들어낸 풍경을 보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헌터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누른다. 검은 원통형 속에 그려진 알파벳 H의 색상이 반전되며 나타난 화면에는 ‘안전 안내 문자’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문장들이 나열되어있다. 그 중, 상단에 있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돋이공원’을 선택하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로그인하시겠습니까?’라는 문장이 떠오른다.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기만 했던 윤별은 그제야 부랴부랴 회원가입을 시작했다.각성자 등록증에 표기된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화살표를 누른다. 닉네임 설정칸에서 머뭇거리던 손가락이 결국 키패드를 두드렸다.지난 시간에는 ‘주윤별’ 제 이름 석 자를 썼지만 이제는 아니다. 주윤별의 닉네임은 앞으로 ‘주’다. 다들 날 주님이라 부르겠지! 그가 움찔거리는 입꼬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중복확인 버튼을 눌렀다.’이미 사용 중인 닉네임입니다.’ 왜죠?‘주’님이라는 헌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사용 중인 거죠?윤별이 ‘도련’과 ‘아가’, ‘공주’와 ‘왕자’, 심지어는 ‘전하’와 ‘폐하’ 같은 것까지 확인했지만, 모두 사용 중인 닉네임이었다. 조금 특이한 닉네임이다 싶으면 모두 선점된 지 오래였다. 이게 게임이냐.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결국 아는 단어 하나씩 써보던 주윤별의 닉네임은 ‘물리’가 되었다. 모든 사물의 이치라는 뜻을 가진 명사와 거리 먼. 게임에서 주로 쓰는 물리 데미지의 그 물리.다시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돋이공원’을 선택해서 필수 정보를 모두 기재한다.게이트 외부 몬스터 처리 완료. 게이트의 크기는 3m 이상으로 추정됨. 게이트 내부 진입 예정 있음.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익숙한 문장과 함께 던전 공략팀과 사후 복원팀의 도착 예정 시간이 카운트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경쾌한 목소리에 헌터 커뮤니티를 읽던 윤별이 고개를 들었다. 시에 소속된 던전 공략팀과 사후 복원팀 공무원들이었다.“안녕하세요.”“그, 학생이 물리님 맞아요?”대표로 보이는 여자가 물었다.“네. 맞아요. 그럼 바로 진입할까요?”후드집업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쑤셔 넣고 박수를 두 번 친다. 활활 타오르던 불길이 빠르게 퍼지며 사라졌다. 복원술사들은 생각보다 손 볼 곳이 없다는 것에 만족한 듯 웃음을 걸쳤다.“그럼 저희는 일 시작할게요. 다들 잘 다녀오세요!”사후 복원팀 소속 공무원들은 자신이 작업할 구역에 서서 각자 손 흔들었다. ‘던전 입장 시, 기습에 주의하십시오.’ 던전 입장 메시지가 떠올랐다가 곧바로 사라진다. 윤별은 눈앞에 생긴 반투명한 팝업을 지우고 손바닥 안을 갉작였다. 불의 각인이 간지러웠다.라타토스크의 다리는 지독하게 찬연했다. 세상의 모든 색으로 빚어낸 듯한,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배경은 진입반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윤별만이 시큰둥한 얼굴로 사방을 살필 뿐이었다.“와... 살면서 이렇게 예쁜 데는 처음이다.”어리숙한 느낌을 주는 남자가 제 하관을 가리며 말했다. 윤별은 남자의 얼굴을 힐끔 쳐다본 뒤, 그가 하는 말에 신경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다.“어떻게… 진짜 너무 예뻐...”남자의 말에 맞장구친 여자의 뺨이 발갛게 상기되었다. 매끄러운 피부에 떠오른 붉은 기가 여간 고운 게 아니다. 윤별은 그쪽에 바짝 붙으며, 제가 지을 수 있는 표정 중 가장 상냥한 것을 꺼냈다.“그러게요. 너무 예뻐요.”‘언니가.’주어를 생략하고 웃자, 여자는 고개를 크게 끄덕거렸다. 높이 묶은 머리카락이 말꼬리처럼 흔들린다.“근데 언니는 이름이 뭐예요?”“어? 한유선인데, 그건 왜요?”“앞으로 자주 만날 것 같아서요.”미인은 언제나 옳다. 최대한 유순한 낯으로 웃으며 한유선 옆으로 슬쩍 붙었다. 미인만 보면 한 번씩 부리게 되는 개수작이 슬그머니 고개를 치키려 한다. 무슨 말을 더하지? 혀로 할 말을 고르는 사이, 서서히 다가오는 불청객이 느껴졌다. 그는 그것을 향해 엄지와 중지를 부딪쳤다.딱! 가벼운 핑거스냅으로도 가느다란 선이 만들어진다. 그건 끝부분에 여린 불꽃이 타닥타닥 소리 내는, 밤바다에서 볼 법한 스파클라와 비슷했다. 오늘 하루 동안 두 명의 미인을 만난 게 지나치게 행복해서 입꼬리를 주체못하던 주윤별이 불꽃의 궤적을 확인했다.푸른 선은 창공을 배회하던 독수리의 날갯죽지를 관통했다. “끼에에엑-!”거대한 날개가 하늘을 훔치며 하강한다. 빠르게 다가오는 독수리, 레라드의 감시자에 공략팀이 다급히 전투 준비를 시작했다. 7년 경력직 신입 던전헌터가 보기에는 어설프고 어설픈. 비명횡사하기 딱 좋은 모양새였다.“언니, 활로 쟤 미간 좀 쏴주세요.”예쁜 언니는 무기도 예쁜 걸 들고 다닌다는 감탄을 겨우 삼키고 레라드의 감시자를 가리켰다. 주윤별은 레라드의 감시자를 향해 오른팔을 뻗었다. 정물화를 그리려는 미술학도처럼 왼쪽 눈을 찡긋거리며 손가락으로는 구도를 잡는다. 거대한 몸뚱아리가 가까워질수록 각인이 달아오른다. 그는 던전 공략팀의 이능력이 무차별하게 쏟아지는 것을 무시하고, 화살을 기다렸다.한유선은 호흡조차 멈춘 채로 오른손을 당겼다. 검지와 중지 첫 마디에 걸린 화살은 고요를 꿰뚫고 쏘아졌다. 윤별이 레라드의 감시자의 미간을 향하는 화살촉을 달궜다. 뾰족한 쇳덩이가 달궈지는 것을 확인한 다음, 눈을 돌렸다. 한시가 급했다.눈동자는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지나치게 화려한 공간을 훑으며 작은 생명체를 찾아 헤맸다. 다람쥐. 혹은 청설모. 신화를 떠올리며 소동물의 흔적을 쫓는다.나무를 타고 내려가는 앙증맞은 청설모, 라타토스크가 시야에 잡히는 순간. 푹신한 잔디에 호두 한 알이 떨어졌다. 윤별이 선명한 푸름을 피워냈다. 발끝으로 지면을 두드린다. 가벼운 동작에도 불길은 거세졌다. 주윤별의 의지에 따라 모든 것들을 잡아먹기 위해 일렁이던 푸른색이 두꺼운 나무를 감쌌다. 나무를 타고 오르되,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은 집요하게 라타토스크를 쫓기 시작했다. 작은 몸뚱어리가 날쌔게 도망치려는 곳마다 불꽃을 피워올리기도 했다.오딘으로 향하는 첫 번째 보고가 사라졌다. 친절한 던전 메시지에 감탄하며 힘차게 발을 구른다. 한유선을 보호할 목적의 방어막을 만들면서도 라타토스크를 쫓는 불의 화력을 높였다.던전, ‘라타토스크의 다리’는 딱 두 가지만 주의하면 된다.첫 번째, 베드폴니르가 오딘에게 보고하는 것.두 번째, 라타토스크가 니드후그나 레라드의 감시자 둘을 꼬여내는 것.깜찍이만 있었더라면 순식간에 끝낼 수 있을 텐데. 푸른 손이 건네는 라타토스크의 통통한 뺨을 툭 건드리자, 반질반질한 눈동자가 데룩데룩 움직인다.“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얌전히 마석을 뱉을래?”영리한 라타토스크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하나다. 마석을 뱉은 뒤 도망치기. 제 뺨을 붙잡은 인간의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두드린다.‘인간아 내 볼 좀 놔 줘.’인간아. 인간아. 몸과 볼을 꽉 붙들고 있는 손아귀에 도망치기를 포기한 라타토스크가 짧은 앞발을 들었다. 먹이 주머니 속에 저장해둔 먹이를 옆으로 치운다. 불룩한 뺨에서 우윳빛에 가까운 뽀얀 마석을 꺼내자, 새파란 불이 눈앞에 피어올랐다.화들짝 놀란 라타토스크의 꼬리털이 쭈뼛 섰다. 마석 줬는데 왜? 어째서? 배신당했다는 표정을 짓기도 전에, 몸을 옥죄는 힘이 사라진다.마석을 꺼내도 통통하게 튀어나온 볼을 빤히 보던 윤별이 엄지로 문지른다. 짧은 털이 부드럽다. 작은 동물 특유의 사랑스러운 외형에 입술을 뗐다.“앞으로 다신 보지 말자. 선동도 적당히 하고.”내용은 부드러움과 퍽 거리 멀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사르르 녹아있다. 아무리 귀여워도 라타토스크의 속살거림에 열린 던전게이트에 다시는 들어오고 싶지 않다. 주윤별은 도망치는 라타토스크를 향해 “다시 보면 죽는다?” 하는. 퍽 친절한 인사를 내뱉었다.그러고는 다섯 명이 아직도 레라드의 감시자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입술만 벙긋였다.아무리 공무원이라지만, A급 던전게이트의 중간 보스 하나 못 죽일 정도면… 인천시, 이대로 괜찮은가…? 당신들 우리 엄마 세금 받아서 어디에다 썼니?라타토스크가 뱉고 간 마석에 힘을 가한다. 산산이 부서진 마석이 색상의 군집에 흩뿌려진다.마석 조각이 하늘에 박혀 별처럼 빛나자, 팡파르가 울려퍼졌다.라타토스크의 다리’에서 빠져나온 윤별이 그새 깨끗해진 해돋이 공원을 보며 손뼉 쳤다. 제가 홀라당 태우고 녹인, 게이트를 빠져나온 것들이 짓밟은 구조물이 모두 멀쩡해진 채다.“와… 정말…”‘우리 동네는 무능한 던전 공략팀과 유능한 사후 복원팀이 합쳐서 평균을 맞추는구나.’뒷말을 겨우 삼킨 윤별이 볼룬드가 제련한 철괴가 자리 잡고 있는 인벤토리를 뿌듯한 얼굴로 바라봤다. 시간이 되감기기 전에 사용했던 깜찍이의 재료 중 하나인 불룬드가 제련한 철괴는 보상으로 얻기 힘든 것 중 하나였다. 다음 돌발형 던전게이트도 제발 에다로 주세요. 마음속으로 손 모아 기도했다.“다들 고생하셨습니다!”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의 남자가 기계적으로 손뼉 친다.“수고하셨습니다.”의례 하는 인사말을 내뱉은 윤별이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꺼냈다. 오후 1시 20분. 고등학생의 낙인 점심시간이 끝나있었다.주윤별은 던전 공략팀과 헤어지자마자 편의점에서 초코콩프렌즈 캐릭터빵과 에너지바 두 개, 우유까지 야무지게 구매했다. 느긋하게 걸으며 빵을 뜯은 윤별은 제일 먼저 띠부띠부 씰을 확인했다. 복숭아를 닮은 캐릭터가 앙증맞다. 띠부띠부 씰을 후드 주머니에 잘 챙겨 넣은 뒤, 초콜릿 크림이 들은 빵을 먹기 시작했다.학교를 향해 느리게 걸으며 편의점 봉투 속, 군것질을 먹는 윤별을 보는 시선이 따갑다. 비행 청소년이라 낙인찍는 시선에도 꿋꿋이 에너지바까지 해치웠다.저공비행 청소년, 주윤별이 교문을 통과하며 시간을 다시 확인했다. 1시 54분. 걸어서 교실까지 올라가면, 필연적으로 담당 과목 교사가 있을 게 뻔하다. 엄지로 턱 끝을 긁적이며 건물 앞에 선 윤별이 발끝에 힘을 주었다.제자리에서 도약한다. 가벼운 몸짓으로 교실 창틀에 안착한 윤별이 제게 쏠리는 시선을 무시했다.“다녀왔어?”주윤별의 짝, 공유진이 푸른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반달로 접어 올리며 물었다.“응. 별다른 일은 없었어?”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 무슨 일이 있었더라도 상관없다는 어조로 말 한 윤별이 자리에 앉았다. 수업 듣기 싫다. 원래부터 싫어했지만, 정규교육과정과 멀어진 지 오래라 더 싫다. 책상에 그대로 엎어질까를 고민하던 윤별의 책상 위에 공유진의 손가락이 닿았다. 항아리 단지 모양 바나나맛 우유를 밀어주는 손가락이 길쭉했다.“이건 왜?”공유진 기준으로 치면 초면에 가까운 사이인데, 갑자기 먹을 거를 또 준다고?“그냥. 너 점심 안 먹었잖아.”그 애는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처럼 말했다. 긴 속눈썹이 차양처럼 내려와 푸른 눈동자에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게 보였다.“나 오는 길에 빵 먹었는데.”주윤별의 말에 공유진은 얇은 빨대와 바나나맛 우유를 내려다보았다. 점심시간에 매점에서 사 온 우유를 보며 왼쪽 눈썹을 치켜 세웠다.“그래?”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한 목소리를 낸 유진이 제가 건넨 우유에서 눈을 떼어냈다. 그러고는 곧장 윤별의 눈을 보며 입꼬리를 끌어당겼다.“그럼 이따 마셔. 빵 하나 먹은 거면 배고플 거 아냐.”“어…, 그래. 고마워.”윤별은 그 웃는 얼굴에 대고, “빵만 먹은 거 아닌데. 우유랑 에너지바도 먹어서 배 안 고플 것 같은데.”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저 용돈 받아 생활하는 고등학생의 돈이 제게 쓰였다는 사실에 얼마 남지 않은 양심이 아팠다.수업은 지루했다.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들을 때면 잠이 솔솔 왔고, 뇌에 흔적처럼 남은 내용을 들을 때면 아는 것을 굳이 들어야 하는가 싶었다. 지루함에 몸부림치며 부족해질 수면 보충과 딴짓으로 시간을 때웠다. 딴짓은 주로 모바일 게임이었는데, 활동하면서도 꿋꿋이 하던 게임이 아니라 의욕이 불타 오르지 않았다.주윤별은 스마트폰 상단에 표시된 배터리 잔량이 40%가 되고 나서야 수업 시간 중 게임하는 것을 멈췄다. 이 시기의 스마트폰은 배터리도 금방 닳는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그는 남은 수업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며 노트 한 권을 꺼냈다. A5 사이즈의 아담한 노트를 펼친다. 노트에는 공부하던 흔적이 잔뜩 남아있었다.파란색 볼펜으로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 내리기 시작했다.볼룬드가 제련한 철괴 5개, 드라우프니르, 대별왕의 붉은 파편, 서천서역 약수, 도환생꽃 한 다발…펜촉으로 노트를 두드린다. 깜찍이와 영혼의 동반자가 된 지 오래라 기억하지 못했는데 필요한 재료가 많다.옆자리에서 시선이 느껴진다. 계속 놀던 짝꿍이 드디어 공부하나 싶어서 보는건가. 전혀 아닌데.-왜?노트 한구석에 물음을 적고 옆으로 민다. 뺨 언저리에 닿아있던 시선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갔다. 공유진은 글자 하나와 물음표 하나로 이루어진 글씨를 꽤 오랜 시간 바라보았다.-그냥. 피곤해 보여서.잠시 머뭇거리던 손은 상대적으로 얇은 글씨가 써 내렸다. 공유진은 언제 주윤별을 봤냐는 듯, 노트를 빤히 보기 시작했다. 난 안 피곤해. 너야말로 피곤한 거 아냐?이미 한 번 보낸 고교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나? 희미한 기억을 더듬던 주윤별의 시야에 살짝 올라간 입꼬리가 잡힌다. 그 애의 펜은 더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지나간 첫사랑이자 짝꿍이 이상하다.필담을 나눈 수업 시간부터 학교가 파한 지금까지, 머릿속에는 공유진이 둥둥 떠다닌다. 대체 갑자기 왜? 되감긴 시간 때문에 발생한 부작용인가? 곰곰이 고민하면서도 다리는 착실히 제 갈 길을 향했다.“어서 오세요!”차임벨 소리와 함께 밝은 목소리의 인사가 들렸다. 회색 머리카락을 모양 좋게 올려묶은 디자이너가 보였다.“안녕하세요.”“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오늘도 끝부분만 다듬을 거죠?”젊은 헤어디자이너는 윤별에게 중간에 앉으면 된다고 말하고, 커트보를 챙겼다.“아뇨. 오늘은 좀 많이 자를 거예요.”자리에 앉은 윤별이 날개뼈를 덮고 내려오는 머리카락을 매만졌다. 긴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를 간질였다. 6년째 단발을 고수하고 있던 터라, 긴 머리가 지나치게 무거웠다.다가오는 헤어디자이너에 양손을 허벅지 위에 올린다. 커트보가 곧바로 몸을 감쌌다.“어…? 고객님 수능 끝나면 펌부터 할 거라 하지 않으셨어요?”그전까진 죽어도 안 자르겠다셨던 것 같은데. 차가운 손끝이 윤별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쥐고, 빗으로 빗긴다.“수능을 볼 필요가 없어서요.”“그러시구나. 그럼 오늘은 어느 정도까지 자르실 거예요?”“턱 끝에 맞춰서 잘라주세요.”“그렇게나 많이요?”주윤별이 제 머리카락을 애지중지하던 시간을 봐온 헤어디자이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윤별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거리고 그가 쭉 유지하던 스타일에 대해 상세히 읊었다.헤어디자이너는 낯선 주문을 받은 사람처럼,“정말 밀어요? 후회하지 않겠어요?”하고 만류하는 기색이 역력했다.“네. 정말 밀어주세요. 삼 분의 일 정도만 5mm로 미시면 돼요.”윤별은 상관없으니 제발 빨리 좀 하라는 어조로 말했다.“머리가 고객님 마음에 안 들어도 전 책임 못 져요.”“마음에 안 들 수가 없을 테니 괜찮아요.”그는 끝까지 머뭇거리며 윤별의 귀 아래로 양손을 가져다 댔다. 삼 분의 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다음, 목뼈를 기준으로 살짝 뾰족하게 올라가는 모양을 잡는다. 집게 핀으로 붙잡은 머리카락을 완전히 고정하고 나서야 가위를 들었다. 늘어진 부분을 대충 자른 뒤, 바리깡으로 그곳을 밀었다. 금속 날에 잘린 머리카락이 커트보에 닿았다가 떨어진다. 목덜미가 금세 시원해졌다. 거울을 통해 힐끔 본 바닥은 이미 머리카락으로 수북했다.칼단발에 시크릿 투블럭까지. 가벼운 머리카락을 자연스럽게 흐트러트리며 계산을 마친 윤별이 귀에 이어팟을 꽂았다. 그는 오랜만에 끼는 유선 이어폰의 선을 잘 정리한 뒤에나 걸음을 옮겼다.범죄에 연루되어 망한 남자 아이돌 노래가 나오자 왼쪽 이어팟을 두 번 두드렸다. 빠른 비트가 그대로 이어진다. 분명 다음 곡으로 넘어가게 설정했는데. 한참 동안 뭐가 잘못되었는지 인지하지 못하던 윤별이 제 이마를 한 대 때렸다. 선이 엉킬 걸 걱정해놓고 까먹고 있었던 게 바보 같았다.이어팟 선을 타고 경쾌한 도입음이 들린다. 손가락이 선을 타고 쭉 내려가다가 두꺼운 부분에 걸렸다. 볼록한 플라스틱 아래. 움푹 팬 곳을 누르자, 도입음이 사라진다.“여보세요.”‘어, 윤별아.’“응?”‘집에 갈 때 밥 먹고 들어가. 아니면 시켜 먹든가.’“엄마 오늘 야근이야?”‘그래. 그러니까 혼자여도 밥 꼭 챙겨 먹어.’뚝 끊긴 전화에 대고 알겠다는 말을 남긴 주윤별이 목덜미를 긁적였다. 오늘 저녁은 절대 피자다. 주윤별은 교복 치마 대신, 인터넷에서 싸게 산 네이비색 슬랙스를 입기 시작했다. 이어팟을 귀에 꽂고 음악 리스트를 정리하며 등교한 윤별이 신발을 갈아신었다. 슬리퍼 앞머리에 빼꼼히 나온 발가락을 꼼지락거린다. 새로 산지 얼마 안 된 삼선 슬리퍼가 불편했다.“좋은 아침. 안 들어오고 여기서 뭐 해?”텀블러를 든 공유진이 여상스러운 어조로 물었다.“아. 유진이 안녕! 그냥. 슬리퍼가 좀 불편해서.”이어팟 한쪽을 뺀 윤별이 푸른 눈동자에 눈을 맞췄다. 역광에 짙푸른 색 된 시선이 윤별의 눈동자를 벗어나 뚝 떨어진다. 그 시선에 괜히 발끝을 세워 복도를 툭툭 차고는 한쪽 눈을 찡그렸다.“익숙해지겠지. 넌 정수기 가?”공유진이 교실 문을 가로막고 있던 게 생각났다는 듯, 비켜섰다. 그러고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인다.“응. 이따 교실에서 보자.”정수기라고 해봤자 코 앞인. 걸어가서 물을 뜨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3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을 두고서 ‘이따 보자’고 말하는 게 퍽 신기하다. 주윤별이 이어팟을 정리하며 “그래.”라고 대답했다. 공유진은 주윤별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발바닥을 떼어냈다. 윤별이 교실로 들어가자마자 뒤돌았다.“진짜 이상하네.”툭 튀어나온 본심이 들리진 않았을까. 복도 쪽 창문으로 검은 머리카락 끝을 쫓는다. 그 애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5월 모의고사가 있던 날, 대한헌터협회에서 헌터 전용 디바이스를 발명했다는 뉴스가 떴다.생산계열 각성자들이 채집해온 금속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던전에서도 사용 가능한 연락책을 발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는 디바이스는 휴대성과 내구성이 우수하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온갖 정보를 담아내고 있었다.윤별은 뉴스가 뜨기 직전에 퀵으로 배송된 디바이스를 손목에 채웠다. 손목시계 형태의 1세대 디바이스는 그리도 잘나가던 윤별이라도 구할 수 없던 것이었다. 그가 각성한 채로 시간이 되감겨져서 좋은 점 2번째를 장식하게 된 디바이스를 매만졌다. 2세대부터 사라진 기능을 사용할 생각을 하니 절로 콧노래가 나왔다.주윤별이 가장 잘 다루는 기계이자 가장 친숙한 기계, 휴대용 디바이스 화면 속 톱니바퀴를 두드린다. 불투명한 홀로그램이 약간의 소리와 함께 허공에 생겨난다. 검지와 중지가 움직일 때마다 기본설정된 문장들이 변경되기 시작했다.1세대가 전 세계에 100개도 안 되게 풀린 이유는 ‘사라진 기능’. 즉, 치명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이었다.세계헌터기구와 국세청 등. 온갖 기관에서 난리 나게 한 치명적 결함은 익명성이었다.1세대 디바이스 유저들이 익명으로 얼마나 많은 포인트를 벌어들이는지, 각성 후 등급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만드는 익명성.입술이 제멋대로 움찔거린다. 윤별이 검지와 중지로 제 입꼬리를 꾹꾹 누르며, 디바이스를 사용하던 것과 동일하게 세팅했다.새 학기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계절은 벌써 초여름에 가까워지고 있다. 턱을 괸 윤별이 무료한 얼굴로 앞을 응시했다. 흰 물 백묵으로 문제 풀이를 진행하는 선생님의 뒤통수가 밋밋하다.느리게 눈을 끔뻑이다가 눈동자만 굴려 옆을 보자, 길쭉한 손가락이 보였다. 펜을 쥐고 있는 손은 아주 가끔씩 움직였다.지루해서 죽으려 하는 윤별의 손목에서 홀로그램 메시지 하나가 툭 튀어나왔다.턱을 괴고 있던 손으로 메시지를 건드린다.지원요청정보는 딱 두 줄이었다. 시 소속 정보분석계열 각성자가 뽑아낸 던전명과 발생 위치. 그 외엔 아무것도 없는 정보에 시선을 고정한 윤별은 던전 클리어 조건을 떠올렸다.솔직히 말하자면, ’뒷동산 복숭아와 개살구’는 그다지 어려운 던전은 아니다. 던전이름처럼 뒷동산에서 복숭아와 개살구를 잔뜩 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던전의 주인이 던지는 메시지를 잘 지키면 되는 일이다. 등급표기가 S급인 이유는 그저 던전을 공략하는 헌터의 성별이 ‘여성’이어야 하기 때문일지 모른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메시지를 빠르게 두 번 두드리자 문장이 떠올랐다. 그에 주윤별은 망설임 없이 ‘예’를 눌렀다. 상급 아이템을 얻을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곧이어 모래시계가 뒤집히는 픽토그램이 나타났다. 모래시계 하단에는 남은 집결 시간이 카운트되고 있다. 첫 번째 공략팀이 이미 던전에 들어간 지 24시간이 지난 뒤였다.인벤토리에서 작성할 서류를 꺼낸다. 수업 시간 중에 헌터 디바이스로 한 번, 인벤토리로 한 번 시선을 모은 주윤별은 저 홀로 편안한 얼굴이었다.그는 먼저 스마트폰으로 ‘뒷동산 복숭아와 개살구’를 검색했다. 뉴스 기사는커녕 블로그에 12개의 글만 있다. 던전명이 대외비인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펜을 들었다. 그대로 경북에 발생한 던전 공략으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적는다.이틀 뒤가 집결 일이기 때문에 내일 오후수업부터 학교에 없다는 점도 체크했다.어디 가?이제는 익숙해진 필담의 시작에 윤별이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렸다.어디 가는데?내일 오후부터 경북 갈 거야.노트를 밀며 고개를 들자, 곧장 눈이 마주친다. 푸른 눈동자가 일렁이는 걸 보며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었다.‘왜.’무음의 물음에 남자의 눈꼬리가 길게 늘어진다.‘아무것도 아니야.’살짝 벌어졌다가 모이기를 반복하는 입술이 찢어진 벚꽃잎 같다. 윤별은 느리게 움직이는 입 모양을 보며 왼쪽 눈썹을 치켜세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유진은 이상했다.조심히 다녀와야해.힘을 주어 꾹꾹 눌러쓴 글씨를 보며 하관을 틀어막았다.나 아직 안 가. 내일 아침에는 등교해.온점을 찍음과 동시에 종소리가 울렸다.“그럼 다음 시간까지 숙제 꼭 해오도록.”교과서와 출석부를 챙긴 수학 선생님이 앞문으로 휑하니 나갔다. 밋밋하고 납작한 뒷머리가 반쯤 사라지는 걸 확인한 윤별이 노트 위의 글씨를 한 번 더 확인했다.조심히 다녀와야 해.잔뜩 힘을 준 글씨는 또박또박하고 굵었다. 분명 글씨에 담긴 감정을 전달받은 건데 훔쳐본 것만 같은 기분이다.“맛있는 거 사다 줄게.”그는 어쩌다 보니 하나뿐인 친구가 된 공유진에게 관대하게 말했다.“응. 꼭.“공유진은 눈매를 가볍게 휘어트리며 웃었다. 그 애 뒤에서 쏟아지는 햇빛이 따가워서, 주윤별은 한쪽 눈을 찡그렸다.윤별은 남들 다 챙기는 포션 같은 여벌의 목숨 대신, 인벤토리에 멸균우유나 에너지바 등 간편식을 잔뜩 준비했다. 어느 던전이든 밥은 잘 먹어야 클리어할 수 있다는 게 주윤별의 지론이었다.“다녀올게요!”등굣길에 편의점까지 들리면 시간이 딱 맞겠다는 생각을 하며 신발을 신는다.“거길 네가 꼭 가야겠니?”현관까지 쫓아 나온 정선혜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물었다. 그는 제 딸의 손목에 걸린 휴대용 디바이스를 탐탁잖게 바라보며 팔짱 끼었다.윤별은 느끼지 못한 척, 고개를 숙인 채 신코를 바닥에 툭툭 두드렸다. 새로 산 신발치고 편안했다.“괜찮아, 괜찮아. 안 위험해.”“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취소하자. 응?”“괜찮다니까 그러네. 엄마 푹 쉬어요. 기껏 낸 연차인데 하루종일 집안일 하지 말고.”딸이 던전에 들어가겠다는데 푹 쉴 수 있을 것 같냐며 주윤별을 붙잡던 정선혜가 결국 한숨을 뱉었다.“넌 정말, 가끔 네 아빠 닮았어.”“아니. 난 엄마 닮았어.”“엄만 너처럼 똥고집 부리지는 않아. 조심히 다녀와. 다쳐서 들어오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마음 바뀌면 언제든 돌아오고.”하고 싶은 말이 한가득하다는 얼굴로 카드와 지폐 두 장을 쥐여준다. 윤별은 제 손을 짧게 붙잡았다가 거둬지는 엄마의 손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다치지 않고 금방 돌아올게. 올 때 엄마 좋아하는 인절미도 사 올게.”“사 오지 마. 날 더워져서 그거 다 상해.”굳은살 배긴 손을 내젓는다. 던전에 들어갈 때마다 했던 말과 들었던 말이 이 시간에서도 이어졌다.“인벤토리에 넣으면 좀 괜찮아.”넣는 순간 시간이 멈추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현상 유지가 되니 사 들고 오더라도 상하진 않을 것이다. 윤별은 미간을 좁히다 가라앉은 웃음을 흘렸다.“그럼 나 진짜 다녀올게.”현관문을 열자, 끝내 똑같은 인사말이 고막을 두드린다.“다녀오렴.”등 뒤의 목소리가 젊다. 고개를 끄덕이며 발을 떼어낸 윤별이 입술을 벙긋였다. 갑자기 짧은 목소리 하나 내기가 힘들어졌다.분명 신발을 신을 때만 해도 편의점에 들리려 했는데, 걷다보니 이미 교문을 통과한 이후다. 윤별은 시간과 교문 밖, 그리고 학교 건물을 번갈아가며 바라보았다. 던전 안에만 들어가면 먹고싶어지는 초코롤빵을 사려면 바깥으로 나가야만 하는데, 나가자니 또 귀찮다. 머뭇거리던 발이 결국 학교건물을 택했다.중앙현관을 느리게 오른다. 타인의 시선이 얼굴에 닿았다가도 금세 떨어진다. 윤별은 그 사실이 퍽 반가웠다. 개학한지 4개월쯤 되니 그가 지나가면 한 번씩 쳐다본다는 것이. 굳이 쉬는시간에 찾아와서 복도창문으로 제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지 않는다는 사실이. 한결 기분이 나아진 채로 교실 앞까지 걸어가 신발장 문을 열었다.신발장 안, 슬리퍼 위에 가지런히 놓인 쪽지가 낯설다. 그는 제가 열어젖힌 신발장의 번호를 다시 확인한 후, 엄지와 검지로 쪽지를 집어들었다. 연분홍색의 얇은 종이를 쥐고 다른 손으로는 슬리퍼를 꺼내 갈아신었다.교실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쪽지와 가방을 책상위에 내려둔다. 공유진은 아직 등교 전인지 옆자리는 비어있었다.고개를 숙인 채 디바이스 설정을 만진다. 1세대 이후 디바이스 소유자가 다른 디바이스 소유자와 던전 내에서 마주칠 경우, 상대방의 설정명. 즉, 닉네임 또는 이름이 자동 연동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세대 이후’이다. 1세대 디바이스 유저들은 눈치껏 개인정보 열람 설정을 만져줘야지만 타인에게 제 닉네임이 노출되었다.주윤별은 눈앞에 떠 있는 홀로그램 메시지를 스와이프했다. 불투명한 창 하나가 사라지자, 흰 팔이 보인다. 윤별이 고개를 들어 올려 팔의 주인과 눈을 맞췄다.“오늘은 늦었네?”“응. 잠깐 어디 좀 다녀오느라.”짧게 휘어지는 눈매 속의 눈동자를 보며 두 눈을 끔뻑인다. 그는 때때로 타인의 색을 칭하는 단어를 궁금해했다.제 눈동자에 박힌 시선에도 별다른 내색하지 않던 공유진이 손을 들어 올렸다. 커다랗고 뽀얀, 우윳빛 비닐봉지를 쥔 손끝이 가지런했다.“맛있는 거 사다 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도 사 왔어.”편의점 로고가 그려진 비닐봉지에는 초코콩프렌즈 빵뿐만이 아니라 레몬 사탕 같은 간식들, 팩 주스와 500ml 생수 같은 음료까지 담겨있었다.“던전 안에는 먹을 걸 구하기 힘들다며.”그는 아무렇지 않게,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주윤별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바짝 다가온 몸뚱아리에서 희게 부서지는 파도 향이 났다.“그 쪽지는 뭐야?”공유진이 책상 위에 얌전히 놓인 작은 종이 조각을 보며 물었다. 윤별은 편의점 봉투를 받아 들으며 눈을 끔벅인다.“쪽지? 몰라. 신발장에 있었는데.”시큰둥하게 대답한 윤별의 눈길이 곧장 쪽지에 닿는다. 연분홍색 쪽지는 두 번 접혀, 손가락 두 마디 정도를 겨우 가릴 정도였다. 손을 뻗자 품속의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린다.어느새 공유진은 제 자리에 앉아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쪽지를 집어 든 손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뜨거운 관심에 주윤별이 샐쭉 웃는다.“왜 그렇게 봐?”장난스러운 목소리에 공유진이 느리게 고개를 저었다.“성의 없는 것 같아서 본 거야. 다른 사람 신발장에 메시지 같은걸 두려면 아침 일찍 나와야 할 텐데, 기껏 나와서 둔다는 게 쪽지라는 게.”이상하잖아.곧이어 입술을 꾹 다문다. 윤별은 쪽지 모서리를 붙잡고 흔들었다. 연분홍색은 팔랑거리지도 않고 꼿꼿했다.“유진아. 그런 정성 어린 편지는 너니까 받는 거야. 난 딱 이 정도가 좋아. 부담스럽지도 않고. 답장해줄 걱정도 없고.”그는 곧바로 쪽지를 펼쳤다.‘언니 덕분에 학교에 바지 입는 애들이 늘어나서 저도 거지 같은 교복 치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먼저 바지 입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항상 응원해요!’동글동글한 글씨로 적힌 글자를 보며, 윤별이 고개를 끄덕였다.“어떡해… 요즘 애들 너무 귀엽네…”요즘 들어 교복 바지를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지더니.괜히 뿌듯해졌다. 윤별이 쪽지를 책상 위에 내려두고 제 하관을 가렸다. 입술에 아무리 힘을 줘도 입꼬리가 꾸물꾸물 위를 향하려 했다.“윤별아, 가려도 다 보여.”“그런 건 좀 모르는 척해주는 거야. 눈치 챙겨, 공유진.”괜히 가라앉은 목소리를 낸다. 유진은 눈치 챙기라는 말에 웃음이 터졌는지, 눈꼬리를 휘어트렸다.그는 수업 시간마다 할 일이 없어 인벤토리를 정리하거나 미래에 열릴 상급 던전을 상기시켰다. 솔직하게 말한다면, 수능까지 깔끔히 포기하고 나니 들을만한 수업은 한국사뿐이었으나, 한국사는 6교시에 있었다. 또 쉬는 시간이 되면 공유진과 짧은 대화를 나누거나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척 사물함을 뒤적거렸다.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점심시간 종이 울렸다. 윤별은 뻐근한 어깨를 주무른 뒤 기지개를 켰다. 의자 등받이가 딱딱했다.“점심 먹고 갈 거야?”자리에서 일어선 유진이 윤별을 내려다보며 물었다.“넌 참 한국인 같다.”“반은 맞지.”시답잖은 말을 한다는 얼굴로 말했다. 주윤별은 제가 말한 ‘한국인 같다’는 문장의 뜻을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입술을 달싹였다.“오늘 급식 맛없어서 가는 길에 사 먹으려고.”깍지낀 손을 풀고 책상 위를 정리한 윤별이 궁둥이를 떼고 벌떡 일어섰다.“근데 매점에서 과자도 사 먹고 싶어. 갈래?”메신저 백을 어깨에 걸치며 묻자, 공유진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점심 종이 쳤는데도 매점 안은 인산인해다. 윤별은 팔꿈치로 유진의 옆구리를 툭툭 건드렸다.“오늘 급식 완전 별로인가 봐.”매대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빵들은 진열이 흐트러진 지 오래였다. 매점에 들어온 학생들마다 곧장 빵 매대로 향하는 걸 보며 감탄하듯 말했다.“너도 빵 먹을래?”“아니. 난 괜찮아.”저길 어떻게 뚫고 지나가. 질린 기색이 역력한 얼굴의 공유진이 과자 쪽으로 몸을 틀었다.윤별은 제가 먹을 나나콘 다섯 봉지와 공유진에게 줄 바나나킥, 피크닉같은 것들을 집어 들었다. 플라스틱 바구니도 안 보여서 품 안에 과자를 잔뜩 끌어안고 카운터로 향하자, 길이 생겼다.‘왜죠?’가로막혀 있던 게 거짓이라는 듯, 양쪽으로 갈라진. 흡사 모세의 기적과도 같은 모습에 눈을 끔뻑였다.“학생. 계산 안 해?”매점 사장님이 윤별을 부르고, 뒤쪽에 선 유진은 짧은 웃음을 터트린다. 주윤별은 조금 멍청한 얼굴로 그대로 카운터 위에 제 품 안의 과자를 내려두었다.“아뇨. 할게요.”주머니 속에서 꾸깃해진 세종대왕님을 꺼내 들었다.윤별은 포항에 도착하자마자 호텔에서 푹 쉬고 조식까지 알뜰히 챙겨 먹었다. 체크아웃할 때까지 침대에서 굴러다니던 윤별이 검푸른색 반목티와 얇은 슬렉스를 꺼내입었다. 일하러 갈 시간이었다.던전 입구를 가리키는 홀로그램을 따라 느리게 걷는다. 생명력 넘치는 향기에 발걸음이 퍽 가벼워질 즈음, 갑자기 살갗에 닿는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키가 큰 나무들 사이에 생겨난 검은색 타원에서는 한기가 새어 나왔다. 발아래에 깔린 흰 연기와 뚝뚝 떨어지는 기온은 지금이 여름 초입이라는 사실을 감쪽같이 지워냈다.몇몇의 던전 헌터는 인벤토리에 넣어두었던 겉옷을 걸치고 던전 입구를 살폈다.“던전 이름으로는 모르겠는데.”입구를 살피던 헌터 한 명이 웅얼거리듯 말하자, 근방에 있던 헌터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과일 이름이 들어가는 던전이라기엔 온도가 너무 낮은 거 아냐? 복숭아나 개살구 다 떨어졌겠다.”던전 이름이 ‘뒷동산 복숭아와 개살구’인데 왜 이 모양이냐며 벌써부터 불만 어린 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별은 끈질기게 들리는 불만을 무시하며 스마트폰을 만졌다.그토록 좋아하던 웹툰이 이 시간대에 연재 중이니 정주행 정도는 해줘야 예의 아니겠는가. 엄지로 화면을 죽죽 밀어 올린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학에 가면 잘생긴 선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콧잔등을 한 번씩 찡그리며 삼각형을 누른다.…목 해주세요.웹툰 속 멍청이를 보며 대학엔 이렇게 생긴 애밖에 없지… 하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즈음. 앞쪽에서 여린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눈 아래가 어둑한 사람들이 나란히 서 있는 게 보인다.“우선 던전 공략팀에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그들 중 중앙에 있던 사람이 차분한 어조로 감사를 전했다. 그는 주변을 한 번 둘러보더니, 옆구리에 끼고 있던 태블릿을 매만졌다. 더듬더듬 움직이는 손끝에 온갖 색이 고였다가 가루가 되어 흩어진다. 마지막으로 검은색이 흩어지자, 생명의 숲 중앙에 스크린이 나타났다.“던전 내, 헌터 간의 전투를 엄금합니다. 조율이 필요할 경우, 가슴팍에 별표 뱃지를 단 사람에게 말해주십시오.”그는 제 왼쪽 가슴을 가리켰다. 은색 별 하나를 달고 있는 남자는 던전 브리핑을 빙자한 주의사항만 잔뜩 말해댔다.경북 던전 지원팀에서 나눠준 쇼핑백에는 일회용 우비와 얇은 담요, 생수 두 병이 들어있었다. 윤별은 생수 한 병을 빼낸 뒤, 쇼핑백 통째로 인벤토리에 집어넣었다.물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본다. 비슷한 형태와 같은 색 옷을 입은 이들끼리 모여있는 무리가 많았다.으… 촌스러워…같은 길드라고 저렇게 있는 거냐며 진절머리 치던 윤별이 인벤토리에서 나나콘을 꺼냈다. 유탕처리 된 과자를 꺼내먹고 있자, 슬금슬금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졌다.“저기요.”소심한 부름에 고개만 비튼다. 저보다 키 작은 여자가 입술을 움찔대고 있는 게 퍽 안쓰러워질 뻔했지만, 여자 뒤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촌스러운 복장의 무리가 보여서 감정은 금세 소각되었다.“네?”윤별이 할 말 있으면 빨리하고 가라는 의미를 담아 한쪽 눈썹을 치켰다.“그… 던전에서 같이 다닐 사람 없으시면 저희랑 다니실래요?”무리의 대표는 혀끝으로 마른 입술을 핥았다. 이런 거 말하기 싫다니까….찬바람이 스치자 젖었던 입술이 더욱 건조해진다. 그는 어색함을 이기지 못하는 얼굴로 몸을 반쯤 틀었다. 제 길드원들을 소개하려는 몸짓에 윤별이 눈을 가느스름히 떴다.심미안에 들어차는 인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윤별은 고개를 저으며 여자의 행동을 막았다.“아뇨. 혼자 활동하는 게 편해요.”“하지만…, S급 던전이라 위험할 텐데요…”“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죠.”거의 다 먹어가는 과자를 한입에 털어 넣는다. 오독오독. 치아가 과자를 으깨는 소리가 제법 크다. 촌스러운 포장지를 잘 접어 주머니 속에 넣는다.“그럼 화이팅.”엄지와 검지. 그리고 중지를 문댄다. 손가락에 묻어있던 과자 가루가 떨어지다 말고 불꽃에 휩싸였다.헌터 협회에서 지정한 메뉴얼에 따라, 윤별은 제일 먼저 던전에 입장했다. 어김없이 떠오르는 던전 입장 메시지 팝업 두 개를 지운다.던전에 입장한 사람은 오직 주윤별뿐이리, 그는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소리를 낼 수 있었다.“미친 거 아냐?!”온갖 육두문자를 줄줄 쏟아내던 윤별이 제 뺨을 쓸었다.엎친 데 덮친 격, 외부에서 대기 중인 헌터들이 입장하기 시작했다.아무래도 좆됐다.그것이 내가 심사숙고 내린 결론이다.나는 좆됐다.현재 이북으로만 나와 있는 SF소설의 문장을 그대로 읊어도 이상할 것 하나 없을 정도로 망해버렸다는 건 확실하다. 그는 양손에 얼굴을 묻고 짧고 굵직한 욕설을 내뱉었다.이 모든 건 다 내가 귀여워서 생긴 일이다. 그래. 다 내가 귀여워서...망할.급격하게 피로한 낯을 문지르고 나서야 얼굴에서 손 뗄 수 있었다.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지만 난 여기서 벗어날래. 남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 윤별이 발바닥에 푸른 꽃을 피웠다.“아이야, 뒷동산 복숭아 말말이 따 오너라.”담장과 대문이 열두 개씩인 집 안에서 여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매번 바뀌는 복숭아의 위치를 찾기엔 역시 천모호다. 윤별은 복숭아나무보다 털을 죄 쥐어뜯긴 모양새의 호랑이, 천모호를 찾는 데 열 올렸다.뒷동산에 어슬렁거리는 짐승에게서 금색 털이 뿜어져 나왔다. 저것도 털이라고 털갈이하는 거야? 웃음이 흘러나올 뻔한 입술을 틀어막는다.천모호의 털을 주우며 조심스럽게 뒤쫓는다. 숨소리조차 최소한으로 내며 짐승의 꼬리를 바라본다. 보통 털 짐승의 통통한 꼬리가 아닌, 탈모가 진행된 것처럼 털이 듬성듬성 있는 건 아무리 봐도 안쓰럽다. 또다시 털이 떨어진다. 허리를 굽혀 털을 줍자 헨젤과 그레텔을 쫓아다니며 빵가루를 주워 먹던 새가 된 기분이었다.타박타박. 어느 순간 두툼한 발이 지면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소리가 멎어있었다.아. 들켰다.천모호가 복숭아나무 쪽으로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들키다니 운도 더럽게 없다. 윤별은 혀를 끌며 공간을 갈랐다. 그는 곧장 인벤토리에서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꺼내 들었다.크르르천모호는 제 뒤를 쫓는 인간을 향해 이를 드러냈다.“안녕.”야구 배트를 쥔 손으로 인사했다. 털 달린 짐승이 허리를 굽히고 엉덩이를 높게 드는 것을 확인한 윤별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얘, 가만히 좀 있어 봐.”가만히 있으면 안 죽을 텐데 왜 자꾸 죽고 싶어 하지?꿈실꿈실 흔들리는 꼬리를 보며 야구 배트를 가볍게 움켜쥐었다. 손가락이 알루미늄을 두드리면 손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온다. 윤별은 은색 알루미늄 위에 이능을 겹겹이 쌓기 시작했다. 시중에서 파는 알루미늄 배트는 지나치게 연약해서, 사용할 때마다 이 짓을 해야 한다는 게 불편했다. 물빛이 쌓이고 쌓여 선명히 빛나는 배트를 이리저리 흔든다. 천모호는 이 정도면 뚝딱이지. 입꼬리를 끌어올린 윤별이 왼손을 가볍게 쥐었다. 열심히 주웠던 천모호의 털이 뭉친다.천 개의 털만 가질 수 있는 짐승, 천모호의 털로 만든 헤어볼. 잘 이용하면 천모호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다.헤어볼 옆에 아이템 정보 설명 팝업이 떠오른다. 자승자박의 끝을 달리는 천모호가 움직이려는 게 보인다. 인간과 짐승의 눈이 마주쳤다. 탐색하는 기색이 역력한 눈동자를 보며, 좋은 말로 할 때 복숭아나무로 꺼지라는 말을 지껄였다.이내 궁둥이를 씰룩거리던 천모호가 땅을 박찼다. 거대한 몸뚱어리로, 있는 힘껏 지면을 때렸는데도 고요했다. 윤별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금빛 헤어볼을 허공에 띄웠다. 가느다란 털이 햇빛에 반짝이는 것에 눈을 떼어내지 못한 채, 팔을 뻗었다.깡!푹신해야만 하는 헤어볼과 알루미늄이 부딪히며 낸 소리라기엔 지나치게 경쾌했다. 윤별은 배트를 쥔 손바닥을 한 번 확인했다. 달아오르는 불의 각인이 배트에 온전히 닿는다.불타오르는 금빛 헤어볼이 천모호의 가죽에 달라붙었다. 천모호는 겅중겅중 날뛰더니 바닥을 데굴데굴 굴렀다. 제가 잃은 털 한 가닥으로도 괴로움을 호소하는 짐승인데, 거기에 불까지 붙여주었더니 저 난리다.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는 천모호를 보며 윤별이 하품했다.천모호 기준으로는 한참, 윤별 기준으로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날뛰던 천모호가 결국 동산 깊은 곳, 샘을 향해 내달렸다.누군가가 ‘천모호’를 쫓아냈습니다.‘천모호’가 숨겨둔 ‘뒷동산의 복숭아나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하늘이 요동친다. 한껏 낮았던 온도가 스멀스멀 올라가기 시작했다. 살갗에 닿는 바람이 상쾌하다. 윤별은 도망친 천모호가 흘린 구슬을 집어 들었다.투명한 구슬 안은 회색 안개가 넘실거리고 있었다.윤별이 인벤토리에 야구 배트를 집어넣은 뒤, 왼쪽 손바닥 위에 구슬을 올려두었다. 복숭아나무를 숨길 수 있게 해주던 아이템이자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구슬이 느리게 회전하기 시작했다.짙은 회색에 은색이 뒤 섞인다. 얇게 펴지던 안개가 한쪽으로 뭉치는 것을 확인한 여자가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천모호의 비경이 가리키는 곳으로 향한다. 꿈틀거리는 안개를 확인하며 걷자, 복숭아꽃이 나무 아래에 수북했다. 그는 곧바로 시간이 뒤엉킨 게 뻔히 보이는 뒷동산 복숭아나무에 손 뻗었다. 저문 꽃들이 부서지기 시작했다.당금애기의 요청대로 뒷동산의 복숭아를 말말이 딴다. 조심스러운 손길로 열매 하나를 똑 떼어낼 때마다 살갗에 배는 향기가 상큼했다. 상처 하나 없는 복숭아를 인벤토리에 집어넣을 때마다 혀끝이 움찔댄다.탐스러운 과육에 입 안에 침이 고인다. 윤별은 당금애기의 것을 탐하는 순간 벌어질 일을 되새기며 단순노동을 반복했다.복숭아 한가득을 딴 윤별이 당금애기의 집으로 되돌아갔다.“아기씨. 아기씨요. 아기씨가 말했던 뒷동산의 복숭아가 여기에 있소.” 말 끝나기 무섭게 인벤토리의 복숭아가 사라지고 팝업이 떠오른다. 윤별은 한쪽 눈썹을 치키면서도 대문 앞을 지켰다.“시큼털털 개살구도 말말이 따 오너라.”또다시 음성이 울린다. 그는 그제서야 발을 떼어냈다.개살구나무는 마을 인근에 심어져있었다. 밤색 나뭇가지에 매달린 주황색 열매를 한 아름 땄다. 빛깔만큼은 살구 부럽지 않을 모양새였다. 복숭아에 이어 개살구까지 따고 앉아있으니 배고파진 윤별이 인벤토리에서 편의점 봉투를 꺼냈다.공유진이 가득 채운 봉투를 뒤적인다. 초코콩프렌즈 초코롤빵을 시작으로, 온갖 간식거리가 가득하다. 마을 바닥에 주저앉아, 봉투를 뒤집는다. 무릎에 쏟아진 것들을 살필수록 즐겁기만 했던 윤별의 표정이 기묘해졌다.공유진이 사 온 모든 것들이 그가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이 시간대의 주윤별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시간을 되돌아와서야 사 먹기 시작한. 학교에서는 단 한 번도 먹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포함된.입술로 일직을 그린 윤별이 봉투를 벌렸다. 받은 것들을 모두 집어넣는다. 봉투 안이 반 이상 채워지자, 윤별이 손으로 제 얼굴을 문질렀다. 여즉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체화되어 불쑥 고개를 들이민다.던전, ‘뒷동산 복숭아와 개살구’를 클리어하셨습니다!클리어 보상은 기여도순으로 자동 지급됩니다.연계 퀘스트로 자동 퇴장이 진행되지 않습니다.퇴장 진행은 후원 별당을 통해 가능합니다.무슨 정신으로 던전을 클리어했는지 모르겠다. 주윤별은 당금애기에게 시큼털털 개살구도 납품하자마자, 후원 별당 앞으로 갔다.하나둘 모이는 무리를 보며 공유진을 뇌 한쪽으로 밀어낸다.“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북 시에서 지급할 페이는 참여 헌터분들의 디바이스를 통해, 3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던전에서 나가시기 전에 디바이스 고유 바코드를 한 번 더 입력 부탁드립니다.”시 소속 던전 공략팀과 지원팀은 재차 시간을 확인한 후, 먼저 들어왔던 헌터들에 대해 말했다.다행히도, 그들은 당금애기의 부탁에 복숭아나무를 찾겠다며 마을 어귀를 돌아다닌 게 주요 활동이었다고 한다. 흰 안개 낀 뒷동산에서 울리는. 천둥과도 같은 울음과 사나운 짐승에 다른 헌터들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며 다친 부위를 재빠르게 치료했다는 말이 이어졌다. 눈동자만 굴려 주변을 살피자, 팔이나 허벅지에 붕대를 맨 남자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었다.한참 동안 이후 일정에 대해 설명하던 시 소속 던전 공략팀이 먼저 후원 별당을 통해 던전에서 퇴장했다. 던전 지원팀은 디바이스 고유 바코드를 수집한 다음, “그럼 헌터님들, 다음번 던전에서 뵙길 바라겠습니다.”하며 끝까지 웃는 낯을 유지했다.주윤별은 던전 안을 구경하고 나가자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 또한 한 명의 관광객인 척 자리를 옮겼다.제 눈앞에만 보이는 화살표를 따라간다. 별당 깊은 곳에서 갓난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울음은 점점 사라지고, 어린아이들의 웃음으로, 또 시를 읊는 소리로 변했다. 던전 안에서 시간이 뒤엉킨다는 게 느껴지자마자 팝업은 어김없이 떠올랐다.[붉은 구슬 세 낱과 붉은 안개가 시작됩니다.]주윤별에게 남은 것은 오직 ‘붉은 구슬 세 낱과 붉은 안개’라는 퀘스트뿐이었다. 그는 팝업이 가리키는 대로 착실히 퀘스트를 진행했다.“우리 아버지를 찾아주세요. 헌 신발도 짝이 있고 하물며 나무들도 짝이 있는데, 어머니는 어찌 아버지 없이 우리들을 낳았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를 찾아주세요.”제 옷을 잡아끄는 세 명의 아이 손에 박씨 세 개를 건넨다. 당금애기가 주었던 박씨가 아이들 손에 넘어가는 것을 보며, 아이템 정보에 적힌 말을 그대로 읊었다.“이 박씨를 해 질 녘에 심고, 날이 새거든 바깥을 보시오. 뻗은 줄을 따라 찾아가면 되오.”어찌나 정신이 없었는지 하오체도 아무렇지 않게 써댔다.이른 새벽, 천길만길 뻗어있는 줄을 보며 아이들은 꽃가마를 장만했다. 그 가마에 자신들의 어미인 당금애기를 태우고 걷는 것을 뒤쫓았다.포항에서 시작된 여정은 강원도 금강산, 일만이천 봉 구암자에 도착하고 나서야 끝이 났다. 당금애기만을 반기는 남자, 육환장을 짚은 중이 아이들을 부정했다.그는 아이들을 향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댔고, 아이들은 또 그걸 해냈다.윤별은 세 명의 아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남자를 떠올렸다.그는 아이들의 이름이 태산, 평택, 한강이 될 때까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왜와 어떻게로 가득한 뇌를 붙드는 알람음이 울렸다.’공유진, 던전 클리어했다는 소식 들었어. 내일이나 모레 학교 와?’ 디바이스에서 메시지 하나를 띄웠다. 평소라면 반갑게 답장을 보냈을 텍스트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던 윤별이 오른쪽 검지를 세웠다.’ㅇㅇ. 모레 갈 듯.’ 굼뜨게 움직이는 손으로 평소와 비슷한 답변을 보낸다.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참 많았다.첫째, 공유진은 주윤별의 짝이었던 적 없다.둘째, 공유진과 주윤별은 고3 때 같은 반이긴 했으나, 대화를 나눈 적을 손꼽을 수 있었다.셋째, 공유진은 항상 당연하다는 듯 말한다.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모든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행동했다. 주윤별이라면 당연히,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군가를 구해줄 것이라 말했던 날을 시작으로, 이 시간대의 주윤별과 거리 먼 일들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는 듯 굴었다.윤별이 활짝 웃는 이모지를 뚫어지라 바라보며 입술을 짓이겼다.이 모든 건 착각인가, 아니면 시간이 되감기며 발생한 부작용인가.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으나, 공유진이 흘리는 괴리감에 입 안이 바싹 말랐다.퇴행하는 여름불현듯 설정을 다시 만지지 않았다는 게 떠올랐다. 지금 상황으로는 하나 마나겠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은 ‘혹시’ 쪽으로 이끌리는 게 당연하다. 혹시 던전 안에 있는 헌터가 나뿐이라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지 누가 알아. 희망 가득한 얼굴의 주윤별은 손목에 걸치고 있는 디바이스에 손가락을 뻗었다.윤별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이들과 그들의 아버지, 시준은 한참 동안 말했다. 윤별은 어서 퀘스트 완료나 떴으면 좋겠다 바라며, 그들의 대화를 한 귀로 듣고 흘렸다.“너희 어머니도 될 것이 있다. 삼신할머니 되어 집집마다 금동자 아들 태어주고 은동자 딸도 태어주고 재물도 불려주자.”오… 진짜 시대착오적인데…? 요즘은 딸이 대세인데 무슨 아들이 금동자야.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비꼼을 내리누른다. 주둥아리가 터지는 순간, 퀘스트는 물 건너갈 게 뻔했다.시준이 당금애기를 향해 ‘삼신할머니’라 말하는 순간.두 개의 시스템 팝업이 나란히 떠오른다. 요란한 팡파르가 울리고, 하늘에서는 얇은 색종이와 반짝이들이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팝업은 깜빡이다 내용을 뒤바꾸기 시작했다. 윤별은 따가운 귓가를 긁적이며 팝업을 응시했다.스스로 습득할 수 없는 키워드로 퀘스트 클리어하셨습니다. 추가 보상이 지급됩니다. 당신의 업적이 월드에 새겨집니다.‘최초의 삼신할머니’가 대한민국의 이능력자를 점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능력자가 증가합니다!그래서 스스로 습득할 수 없는 키워드가 뭔데. 키워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라면서 왜 말을 안 해주니.던전에서 자동 퇴장이 진행됩니다.시야가 점멸한다. 윤별은 던전에서 얄짤없이 쫓겨나면서도 허공에 떠 있는 팝업을 노려보았다.어느새 생명의 숲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고요한 숲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오롯 부엉이 우는 소리뿐이었다. 주윤별은 인기척 하나 느껴지지 않는 주변을 둘러본 뒤, 서둘러 호텔로 향했다. 혹시라도 그의 기감이 잡아내지 못한, 던전에서 쫓겨난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조금 많이 귀찮은 일이 일어날 게 뻔했다.체크아웃했던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경북 시에서 발급해준 요청문과 각성자 등록증을 내민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빈방을 요구하는 손님에도 호텔리어는 아무렇지도 않게 컴퓨터를 만졌다. 그는 빈방을 찾은 다음, 손님을 향해 차근차근 안내하기 시작했다.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한 번씩 더 들은 윤별이 호텔 키를 건네받았다.“감사합니다.”“별말씀을요.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입꼬리를 위로 끌어당긴 채 웃는다. 상냥한 목소리에 낯간지러워진 윤별이 꾸벅 고개 숙이며 다시 인사한 뒤, 배정받은 방의 호수를 확인했다.1502.이전보다 한층 높았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카드키를 찍고 층수를 눌렀다. 갑자기 피로가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다. 입을 크게 벌려 하품한 윤별이 인터페이스를 열었다.쉴 새 없는 노동으로 만든 화려했던 스킬창이 그리워질 정도로 단출하다. 윤별은 눈물을 삼키며 새로 받은 스킬을 선택했다.’태산이 무너지겠느냐.’ 당금애기의 맏아들, 태산이 하사했다.태산이 금강산 부처님이 되었다고는 해도 설명에서까지 하사했다고 말할 필요가 있나 싶다. 그는 스킬의 등급과 설명을 번갈아 가며 보며, 즐거움과 재수 없음을 동시에 느꼈다.주윤별은 포항에서 유명하다는 빵집에 들러 빵 한가득 구매했다. 그는 비닐봉투를 통과할 만큼 강렬한 갈릭향에 급히 인벤토리 안으로 집어넣었다. 냄새만 맡아도 맛있다는 생각을 하며, 떡집을 순회했다. 떡집마다 인절미에 쑥이나 호박 같은 것들을 넣는 게 다르니, 모든 떡집을 순회하는 게 옳다.겉 부분이 새까만 흑임자 인절미는 두 팩 챙긴다. 기억 속 정선혜가 가장 즐거운 얼굴로 먹었던 것과 비슷한 모양이었다.주윤별은 인천으로 올라가는 길 내내 스마트폰과 한 몸이 되었다. 그는 습관적으로 열어본 SNS에서 ‘우리 학교 그 애’가 된 저를 발견하기도 했다. SNS를 포함한 인터넷은 어제 있던 일로 시끄러웠다.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인터넷 뉴스 기사를 연다.-‘최초의 삼신할머니’의 등장! 애국자는 누구?금일, ‘익명’ 퀘스트 클리어 덕분에 ‘최초의 삼신할머니’가 등장하였다는 메시지가 울려 퍼졌다. 메시지는 곧이어 삼신할머니가 우리나라의 이능력자를 점지하기 시작하여, 이능력자가 증가한다는 말까지 송출했다.퀘스트 클리어한 ‘익명’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현재 알 수 있는 것은 1세대 헌터 전용 디바이스 사용자라는 것뿐이다. 대한헌터협회에서는 “1세대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헌터 명부가 있으나, 계약 스킬에 의해 접근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능력자가 증가함에 따라 활동 인원이 늘어날 경우, 돌발형 던전게이트 등 위급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어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높다.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인과 이능력자 비율은 5000:1로, 10352명의 이능력자가 거주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이능력자가 만 명이라는 쓸데없는 지식 하나 알아갑니다. 윤별이 둥근 버튼을 빠르게 두 번 눌렀다. 호텔에서 충전해온 보조배터리까지 연결해가며 스마트폰을 붙든다. 머리가 복잡할 때는 게임이라는 핑계까지 대가며 스마트폰과 보조배터리, 양쪽 엄지손가락을 혹사시켰다.기차 내 스피커를 타고 짧은 알림음이 울렸다. 서울역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안내였다. 윤별은 보조배터리를 인벤토리 안에 집어 넣으며 기차가 멈추기만을 기다렸다.빠르게 지나가던 풍경이 고정된다. 멀뚱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초코콩톡을 킨다. 촌스러운 이모티콘 중 가장 멀쩡한. 초코콩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모티콘을 선택한 다음, 자판을 두드렸다. 엄마 나 서울 도착했어! 말풍선 옆에 뜬 숫자가 사라지기 전, 기차가 완전히 멈춰 섰다.택시에서 기차로, 기차에서 전철로, 전철에서 지하철로. 여러 번 환승해도 멀쩡했던 몸은 정신을 따라 축축 늘어졌다. 주윤별은 SNS를 만들어두기만 한 공유진의 이름을 보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7년 동안 던전에서 구른 경험이 있다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너 좀 이상한데, 네가 이상한 이유가 뭐야? 하고 물어보는 순간, 공유진은 특유의 침착한 웃음을 걸치고 112에 신고할지 모른다. 침대에서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던 윤별이 발길질했다. 얇은 이불이 발가락에 걸려, 허공에 떠올랐다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진다.“아 뭐라고 물어봐? 아니 물어봐도 되는 거긴 해?”진짜 짜증나!지금쯤 학교에서 수업 듣고 있을 공유진이 원망스러웠다. 얘는 왜 수상해서 날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갈까. 제 분에 못 이겨 베개에 뒷머리를 찧는다.“윤별아. 집에 있니?”퇴근하고 돌아온 엄마, 정선혜가 현관을 열자마자 윤별의 이름을 불렀다.“응! 나 내 방에 있어요!”윤별은 침대에서 박차고 일어서며 답했다. 손가락을 세워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쓱쓱 빗는다. 짧은 머리카락이 손가락에 풀어졌다. 방문을 열고 나가자, 눈 아래에 피로를 매단 엄마가 보였다.“잘 다녀왔니? 어디 다친 데는 없고?”그는 제 딸의 몸을 구석구석 살펴보면서도 물어왔다. 윤별은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벤토리를 열었다. 곧장 떡집 순회의 결과물을 꺼낸다. 아직 따뜻한 떡을 두 손 가득 들고 눈을 끔벅이자, 약간은 주름진 눈매가 찡그려지는 게 보였다.“가서 너 맛있는 거나 먹지 뭣 하러 사와.”“나도 먹으려고 사 온 거야! 이거 봐, 이 검은색 인절미. 완전 신기하지?”윤별이 조잘대며 제 엄마의 팔을 이끌었다. 소파에 앉아, 테이블에 인절미를 쭉 늘여놓는다. 비슷한 모양새가 나열된 것을 본 정선혜가 결국 짧은 웃음을 터트렸다.“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이 사 오지 마.”“그건…, 그 동네에 떡집의 수가 중요한 거야….”아련한 척 말했다. 정선혜는 “또, 또, 엄마 말 안 듣지.”하는 타박과 함께 손 뻗었다. 주윤별의 머리카락 색이 검은색이었던 게 거짓말이라도 되는 것처럼 밝다. 회색기 도는 베이지색 머리카락 정리해주자, 휘어지는 눈매 속 회색 눈동자가 두드러진다. 정선혜는 점점 빛바래져 가는 색상을 보며 입술을 앙다물었다. 선명했던 검은색은 속눈썹 같은 데에만 남아있다.“왜? 엄마도 나랑 같은 색 할래?”입꼬리를 끌어당기며 웃는다. 정선혜는 회색 눈동자에 제 눈을 맞추고 퍽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난 싫다, 얘. 좀 양아치 같잖니.”“아니 소중한 딸한테 양아치가 뭐야, 양아치가!”장난스러운 낯으로 파르르 떠는 몸뚱아리가 우습다. 한참 동안 양아치 같다 놀려대던 정선혜가 눈꼬리에 눈물까지 매달며 웃어댔다.책상 위에 올려진 몇몇 개의 가방 주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자습실에 가 있는지 교실 안은 고요했다. 윤별은 제 옆자리에 놓인 텀블러를 확인한 후, 책상에 기대섰다. 공유진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아침이다.평상시대로 먼저 인사부터 할까? 좀 더 수상한 게 보이면 그때 은근슬쩍 물어봐 볼까? 자연스럽게 물어볼 타이밍은 어느 정도더라? 엄지발가락을 까닥거리던 윤별이 고개를 들었다.“좋은 아침.”초여름, 부서지는 햇빛 속에 그 애가 보였다.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입술을 보며, 윤별이 인사하기 위해 입술을 열었다.“넌 누구야?”입술에서 툭 튀어나온 말은 인사와 거리 먼. 본심에 가까운 말이었다. 합. 양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은 주윤별이 어색한 눈웃음을 그리려던 찰나,“이번에는 되게 일찍 물어본다, 윤별아.”그 애는 지금까지의 웃음과 궤를 달리하는. 화사한 미소를 띠었다.퇴행하는 여름주윤별은 공유진의 말에 눈만 끔벅였다.‘이번에는 되게 일찍 물어본다, 윤별아.’이번에는? 그가 살아온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봐도, 지금과 같은 물음을 내뱉은 적이 없었다. 애초에 공유진과는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만날 일이 없었는데 무슨 신박한 헛소리란 말인가.힘없이 떨어진 손바닥에 입술이 드러난다. 윤별은 너 미쳤냐는 표정으로 입술을 둥글게 모아, 음을 냈다.“뭐?”“네가 물어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푸른 눈 속에 윤슬이 담긴다. 성큼성큼 걸어온 공유진이 주윤별 바로 앞에 섰다. 그가 그대로 허리를 굽히자, 그대로 속눈썹이 얽힐 것만 같았다. 뒷걸음치려 해도 기대서있던 책상에 허리만 뒤로 쭉 뺀다.“윤별아. 윤별아.”사르르 녹는 음성이 윤별의 이름을 여러 번 읊는다. 그는 윤별의 광대 위에 떨어진 가느다란 속눈썹 한 올을 떼어낸 뒤, 몸을 뒤로 물렀다.“이번에는 어디까지 기억해? 네 기억 속에는 내가 있어?”그의 눈동자는 윤별의 눈동자를 집요히 쫓았다. 반짝이는 푸른 눈과 여미한 미소와 달리, 목소리는 가라앉아있다. 윤별은 남자의 눈동자에 담긴 감정을 읽으려 애쓰며 부정을 읊었다.“아니. 그걸 내가 말해줘야 해?”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공유진은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그럼 이번에도 나중에 말해주고 싶을 때 말해줘.”“너.”덜컹.주윤별이 책상에서 궁둥이를 떼어내고 공유진이 물러난 거리만큼 다가섰다. 급격히 가까워진 거리에 공유진의 뺨에 붉은 물이 들었다.“그래서 넌 누군데.”공유진의 입술에서 나올 답을 기다린다. 그 애는 혀끝으로 할 말을 고르는 듯, 퍽 진지한 얼굴이었다.“좋은 아침!”좋은 보다 조은이라는 발음에 가까운 인사가 문 너머에서 들린다. 윤별은 제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디바이스에 떠 있는 시간은 8시였다. 20분 뒤면 모든 학생이 입실해야 하니, 큰 소리가 들리는 것도 당연하다. 윤별은 가볍게 혀를 찼다. 되는 일이 없네. 작게 중얼거린 후, 턱을 치켜세웠다.“야. 공유진.”“응?”“이따 말해.”열린 문 사이로 동급생이 들어옴과 동시에 말했다. 동급생, 김하나와 주윤별의 눈이 마주쳤다. 김하나는 공유진과 그의 뒷모습에 반쯤 가려진 주윤별을 힐끔이다 어색하게 웃었다.“안녕…!”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에 주윤별이 고개를 끄덕거렸다.“안녕.”공유진이 느리게 눈을 깜빡이다가 뒤돌았다.“하하하…그럼 난 매점 가야겠다…!”그가 김하나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며, 입꼬리를 말아 올리자마자 터진 말이었다. 김하나는 가방을 휙 던지더니 그대로 교실에서 빠져나갔다.“너 쟤한테 뭐 했냐?”합리적 의심에 공유진이 고개를 내저었다. 그는 주윤별을 향해, 거울을 통해 표정 한 번 확인하는 게 어떠냐는 말 대신 아침을 안 먹고 왔나 보지. 하며 얼토당토않은 말을 내뱉었다. 학교 바로 위에 던전이 터지지만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은 등교 시간을 지키기 마련이다. 자리는 김하나를 시작으로 하나둘씩 차기 시작했다. 교실 여기저기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최초의 삼신할머니’가 등장했으니, 나도 성인이 되면 각성하는 거 아닐까? 같은 희망찬 대사 뒤에는 각성자 비율부터가 0.02%인데 거기에서 D급 이하가 90%거든. 하는 현실성 넘치는 말이 이어졌다.주윤별은 급격한 피로에 의자에 편히 기대앉아 다리를 쭉 뻗었다. 딱딱한 등받이에 몸을 늘어트리고 있다 보니 등허리가 뻐근했다. 눈꺼풀이 달라붙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등허리에서 올라오는 감각은 무뎌져 간다.공유진은 제 책상에 엎드려 반쯤 자는 주윤별을 바라봤다. 던전에 다녀올 때마다 옅어지는 색감이 드디어 가장 오래 본 색이 되어있다. 이제 더이상 색이 빠지진 않겠다. 살짝 건드리고 싶은 마음을 삼킨다. 책상 위에 올려둔 손가락이 움찔댔다.사실 몇 번의 시간을 반복해도 어디부터 말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매번 다른 시간선에서 떨어진 주윤별에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 해야 하는지 정하는 건 그가 살아가는 시간 중에서 가장 어려웠다.점심시간이 가까워져 오자, 윤별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크게 하품하면서도 검지로 허공에 선 하나를 만들어냈다. 얇은 선 하나에서 툭 튀어나오는 봉투가 이질적이다. 주변의 시선이 몰렸다가 사라지는 게 느껴졌다. 윤별은 제 책상 위에 얌전히 얹어진 봉투를 옆으로 밀었다.“아무튼 답례야.”고소한 빵 냄새가 비닐봉투를 투과하고 올라온다. 주윤별은 옆자리의 공유진을 힐끔 바라본 뒤, 한쪽 눈썹을 추켜세웠다.“그런 얼굴로 보지 말아줄래.”입매를 허물어트리고 웃는 공유진을 타박한 윤별이 뻐근한 목덜미를 주물렀다. 각성하면 몸이 튼튼해진다는데 왜 혈압이 오르는 것 같은지 모르겠다.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손바닥의 온도로 불쾌해지기만 하다.공유진은 턱을 괸 채로 윤별을 보았다. 옆얼굴에 시선이 끈질기게 달라붙는다.“윤별아 우리 오늘 점심은 빵 먹을래?”못다 한 이야기도 할 겸. 윤별이 한가득 채워온 빵 봉투가 선풍기 바람에 바스락바스락 소리 내며, 남자의 목소리 일부를 삼켰다. 주윤별은 칠판에 써진 배식 시간을 확인하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였다.“얘들아,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가도 된다!” 반장이 벽걸이 시계만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외친다. 그 소리에 날아가듯 달려간 몇 명의 남학생들이 “복도에서 뛰지 말라 했지!”하는 우렁찬 타박을 교실까지 전달했다. 나머지 학생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식당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윤별과 유진 역시 그들의 뒤꽁무니에 따라붙었다.“어디 가서 먹을래?”봉투를 손목에 건 유진이 물었다. 윤별은 팔짱을 낀 채, 동급생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동글동글하기도 납작하기도 하다. 빠짐없이 식당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몸을 틀어 공유진을 본다.“글쎄… 옥상이라도 올라갈래?”닫힌 문도 열고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만반이다. 공유진이 고개를 끄덕이기만 한다면, 그는 곧장 창문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주윤별의 기대하는 눈빛에 어색한 웃음을 흘린 공유진이 고개를 내저었다.“옥상은 좀 눈에 띄지 않을까?”그는 자살 방지를 위해 굳게 잠긴 문고리를 떠올렸다. 공유진은 커다란 눈을 데룩데룩 굴리며, 이야기하기 좋은 장소를 떠올리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 코끝을 찡긋거린 주윤별이 저 멀리에 있는 체육복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아. 그럼 체육관이나 구교사 무용실은?”“좋아. 거기가 좋겠다.”그제야 공유진의 입술에서 긍정의 말이 나왔다. 역시 답은 가까이 있다며 감탄한 윤별이 체육관보단, 구교사 무용실이 좋겠다는 말을 이었다.구교사, 두 개의 구름다리로 이어진 건물에는 식당부터 시작해서 도서관, 과학실 등 다양한 교실이 있다. 그중 재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교실은 지하 1층의 무용실이었는데, 비만 오면 다른 교실보다 습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교실 전면이 거울이라 사춘기 소년·소녀의 연약한 마음에 부담스럽다는 게 두 번째 이유였다.사춘기는 옛적에 지난 윤별이 무용실 바닥에 궁둥이를 깔고 앉았다. 책상다리했다가 “아 맞다 관절!”을 외치며 다리를 쭉 뻗고는 인벤토리를 뒤적거린다. 윤별의 옆에 나란히 앉은 유진은 무용실 바닥에 빵 봉투를 내려두었다.주윤별의 인벤토리에서 피X닉 두 개와 500ml짜리 생수병이 튀어나왔다. 그는 피X닉에 빨대를 꽂아 공유진에게 건넸다.“고마워, 윤별아.”피크닉을 건네받고 가장 모양이 예쁜 것을 건넨다. 주윤별과 공유진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식사를 시작했다. 갈릭 바게트 특유의 강한 향과 짭조름한 맛이 어우러졌다.“뭐야… 더 사 올걸….”바게트를 뜯어 먹던 윤별이 안타까움을 담아 말했다. 그러고는 남은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우물댔다. 일찌감치 식사를 끝낸 공유진이 물티슈 한 장을 건넸다. 그는 자연스럽게 물병의 뚜껑을 열고 주윤별이 손가락에 묻은 잔여물을 닦기만을 기다렸다. 주윤별이 손가락을 닦고 물을 마시자마자, 공유진은 플라스틱병을 제외하고 쓰레기를 정리했다. 쓰레기를 빈 봉투에 차곡차곡 넣어 입구를 묶는다.“나도 각성자야, 윤별아.”“그럼 이제 말 해봐.”두 명의 목소리가 섞였다. 윤별이 눈을 감았다가 뜨기를 반복하다가 입술을 동그랗게 모았다.“뭐?”“나도 각성자라고.”손아귀의 플라스틱병에 힘을 가한다. 얇은 플라스틱이 구겨져, 본래 형태를 잃었다. 공유진은 눈을 내리깔고 구겨진 플라스틱병을 보았다.“그렇다고 윤별이 너처럼 원소 계열로 각성한 건 아니야.”그는 덤덤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손끝이 플라스틱을 가볍게 건드린다. 동영상을 되감기 하는 것처럼, 얇은 화합물은 제가 지니고 있던 모양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구겨졌던 부분이 펼쳐지는 것을 본 윤별이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다.“복원술사 라는 건 알겠는데, 그 사실 하나로 네가 수상하다는 게 설명되진 않아.”공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네가 타인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로 모든 걸 결정짓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어.”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 손목을 감싸고 있던 시계를 벗었다. 불룩 튀어나온 손목뼈가 두드러진 왼쪽 손목을 뒤집는다. 흰 살갗에는 모래시계 다섯 개가 나란히 새겨져 있었다. 손목시계의 끈이 없다면 가리기 힘든 각인의 나열에 주윤별이 손을 뻗었다.“만져봐도 돼.”주윤별이 매번 그래왔다는 듯 여상스러운 어조였다. 속마음을 들켰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자존심보단 호기심이 강한지 손이 제멋대로 움직인다. 검지가 가장 커다란 모래시계에 닿았다.활동하며 두 개 이상의 각인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에서 여기서 보게 되다니. 조심스럽게 모래시계의 각인을 건드린다. 각인과 맞닿은 손끝에 작은 알갱이가 굴러다니는 감각에 입 안에 침이 말랐다. 그는 그대로 다음 각인 위에 손가락을 얹었다. 아까와는 또 다른 느낌이 들었다.“각인이 왜 이렇게 많아? 어떻게?”“가문의 비밀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공유진은 제 손목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윤별의 머리통을 내려다본다. 창백했던 뺨 위에 열감이 올라있다. 살아있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얼굴로, 제 손목을 붙잡고 있다. 공유진이 오른팔 팔등으로 제 눈을 가렸다. 눈 앞머리가 시큰댔다.퇴행하는 여름한참 동안 공유진의 손목을 살피던 윤별이 고개를 들었다. 볼 일 다 봤다는 얼굴에 공유진이 짧은 웃음을 흘렸다.“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다야?”들어야 할 게 많은데 설마 이게 다겠어? 회색 눈동자의 재촉에 공유진이 엄지손톱으로 턱 끝을 긁적였다.“난 네 열아홉 살을 다섯 번째 만나고 있어, 윤별아.”“뭐?”아니 다섯 번이라뇨, 복원술사 양반. 주윤별이 미간을 좁히며 되물었다.“이번이 다섯 번째야.”그는 식사는 했냐고 묻는 사람처럼, 여상스레 언어를 꺼내기 시작했다.“이번 열아홉 살의 너는 수능 날이 아닌데도 각성자가 되었지. 네 시간이 점점 가속하고 있다고 말하는 걸까. 아니면 네 영혼에 새겨진 각인이 그대로 따라와, 지난 삶보다 이르게 각성자가 된 걸까?”그의 푸른 눈동자는 윤별의 손바닥을 향했다. 불꽃이 금방이라도 타오를 것만 같은 손바닥 속 각인을 보는 표정은 낮게 가라앉았다. 공유진은 지금 굳이 윤별의 답이 필요하진 않았는지, 고개를 한 번 흔들며 표정을 지워냈다.“네 기억이 어디까지 있는지 몰라서. 그리고 네가 몇 번째의 주윤별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나는 네 모든 것을 말하진 못해. 언어는 생각보다 힘이 강해서,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미래를 지배하려 할 테니까. 하지만, 윤별아. 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해줘. 제발. 위험한 일에 끼어들지 마.”공유진은 눈을 내리깔고 부탁했다. 수심 어린 미인의 모습에 조금은 관대해진 윤별이 턱을 세웠다. 위험한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부탁쯤이야 쉽다. 털끝 하나 다치는 걸 싫어하는 주윤별은 위험한 일을 외면하는 것쯤은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신 있었다.“그 위험한 일이 뭔데?”복사빛 입술을 응시한다.정확한 사건을 말하라 재촉하는 윤별을 향해 할 수 있는 말은 “나를 조심해.” 정도 뿐이었다. 정확한 대답 대신, 수수께끼 하나를 얻게 된 윤별이 뚱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 수 없다는 답보단 낫다고 여기는 기색이 역력하다.“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지?”타인이 반복한 삶에 대해 기억한다는 게 정상인가? 그가 제 인생에 대해 정말 알고 있는 것일까? 몇 개의 물음이 머릿속에 둥둥 떠다닌다. 윤별은 ‘이번에는’이라는 명사와 조사의 결합에 반응했다며 후회하기 시작했다. 괜히 물어봐서 괜히 골만 아프다. 지끈거리는 옆머리를 꾹꾹 누르고 있자, 옆에서 머뭇거리던 공유진이 입술 틈으로 소리를 냈다.“네가 나를 구했으니까.”옅은 붉은 기가 내려앉은 뺨과 처연한 빛을 담은 눈동자가 보인다. 그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다.“네가 날 구했어.”그는 못을 박 듯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했다. 푸른 눈동자 속에 담겨있던, 뒤엉킨 감정들이 깔끔히 정돈된다. 공유진은 올곧은 눈으로 주윤별의 회색 눈동자를 바라보았다.“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피해줘. 내가 널 피할 수는 없으니, 네가 나를 피해.”답을 구하는 목소리에도 눈만 끔벅여진다. 윤별은 저도 모르게 탐탁잖은 표정을 짓고서는 노력해보겠다 대답했다. 누가 들어도 어색한 대답이었는데도, 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이내 제 입으로 자신을 피해달라고 부탁한 이가 볼우물이 팰 정도로 환하게 웃었다.“다행이다.”붉은 입술이 내뱉은 문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절로 좁혀지려는 미간에 힘을 준다.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지, 제 손목에 시계를 다시 채우고 있었다.주윤별은 내적 분위기를 환기시키고자, 쓸데없는 질문을 해대기 시작했다.“네 미래 속에서 제일 강한 헌터도 나였어?”같은 질문을 하면,“맞아. 인터넷에 다른 헌터의 닉네임은 없어도 네 이름은 항상 있을 정도였지.”와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슬쩍 미래에 대해 질문을 할 때면, 공유진은 제가 겪은 시간에 대해 간단하게라도 말해줘야 저 역시 답할 수 있다 말했다. 난처한 미소를 띠면서도 퍽 단호히 잘라내는 모양새를 세 번쯤 만나자 예비종이 울렸다.쓰레기를 챙기고, 사용한 자리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한다. 윤별은 두 눈을 가느스름히 뜨고 제가 앉았던 자리를 보았다. 주의하며 먹었는데도 부스러기가 떨어진 것만 같다. 발끝으로 바닥을 때린다. 툭툭. 가벼운 마찰음과 함께 그들 주변에 불꽃이 터졌다. 푸른 스파크 속, 발목 부분에 토끼가 그려진 양말이 눈에 띄었다.결론만 말하자면, 주윤별은 공유진을 피하지 않았다. “나를 피해줘.”하고 말하던 공유진이 “안된다”고 말할 법도 했지만, 그는 침묵했으며. 주윤별은 친구 카테고리에 딱 하나 있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 평소와 같이 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 나누기 전과 비슷하게 생활 했다.얇은 유리 너머는 매미 우는 소리로 가득하다. 가끔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도 섞였다. 창문을 열면 나뭇잎이 내뿜는 싱그러운 향이 들어올지 모른다. 완연한 여름이라는 게 느껴졌다.“유진아.”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다, 반듯한 옆얼굴이 눈에 띄었다. 주윤별은 지금이 수업 중이라는 시간적 개념도 잃은 채, 공유진의 이름을 불렀다. 이름의 주인이 칠판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돌려, 제 눈을 바라보는 것까지 눈 깜빡하지 않고 응시했다.“심심하다. 그치?”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을 매단 채로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에게 들리지 않도록, 소곤소곤 말했다.그는 눈을 깜빡이다 옅은 미소를 띠었다. 그러게. 입 모양으로 벙긋거리며 답했다. 제 말에 긍정하는 공유진에, 주윤별은 환해진 얼굴로 다시금 속삭였다.“너 수업 빠져본 적 있어?”저보다 많이 시간이 되감겨졌음에도 항상 바른 자세로 수업 듣는 공유진을 향해 물었다. 윤별은 남자의 대답이 부정일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공유진은 윤별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팔꿈치를 대고, 턱을 괴었다. 왼손으로 옆얼굴을 감싼 남자가 슬그머니 상체를 비틀었다. 교과서로 사용하는 EBS 교재 구석에 글씨 쓴다.응. 대학생 때 빠져봤지.대학의 꽃은 자체 공강이라더니, 저 공유진도 수업 빠져본 적 있구나. 감탄하며 하관을 가린 윤별이 펜을 들었다.야 나도.넌 강의 듣는 날이 드물었잖아.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공유진이 의뭉스럽게 웃었다.아니~ 어떻게 아냐고!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혐오했던 물결을 아낌없이 쓰며 묻는다.수능날 각성이라는 레드카펫을 깔며 시험장에 들어갔던 주윤별은 OMR카드에 멋진 줄을 세우고 나서도 대학에 입학했다. 입학 비리 같은 게 아닌, 각성자 특별 전형이라는 지극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원래 가려 했던 학교보다 높은 급의 대학에 입학했던 주윤별은 말 그대로 양아치였다. 오늘은 돌발형 던전 게이트가 열려서 강의 빠져, 어제는 다른 지역에 열린 던전 공략하겠다고 빠져. 그렇게 모든 강의를 빠지고도 학점은 괜찮게 받아 챙겼다.학교에 도움이 된 일이라고는 “S급 헌터가 선택한 최고의 대학!”이라는 입학처 홍보물용 글귀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윤별이 지레 찔려 답을 독촉했다.공유진이 주윤별을 빤히 바라보았다. 너 스스로도 알고 있지 않냐는 표정이었다. 윤별이 검지로 유진의 팔뚝을 찌르기 시작하자, 그가 다시 샤프를 들었다.-에타에 매번 글 올라왔으니까 알지. 네가 강의 들은 날은 강의 듣는 거 처음 봤다고 올라오고, 안 들은 날은 역시 오늘도 안보였다고. 교수님이 시름에 잠겼다고 올라왔어. 그리고 공유진은 짧게 머뭇거리다가, 글을 이었다. 나 너랑 같은 강의도 수강했었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넌 그 강의에 한 번도 안 들어왔으니까…월요일에는 모든 강의를 자체 휴강 때리던 주윤별이 떠올랐다. 윤별은 그대로 책상에 머리를 박았다. 각성 등급에 따라 S급이 되어버린 튼튼한 이마는 붉게 달아오르지도 않는다. 그는 부끄러움에 입술을 짓이기다가, 고개를 쳐들었다. 그거 너만 알고 있어라…이번 생의 주윤별은 강의도 열심히 듣는 모범 대학생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수업은 아니다. 아무튼 지금은 아님.얼굴에 뻔히 드러나는 생각에 남자가 눈매를 허물어트리며 웃었다. 그는 ‘유일하게 시간을 되돌린 기억이 있으니, 가능성 있을지 모른다’는 문장을 썼다. 희망을 주는 문장에 윤별이 책상에 엎어졌다. 마음속에서 미세먼지의 크기만큼 있던 의욕이 꺾이는 소리가 났다.공유진은 손바닥으로 그들이 쓴 문장을 내리눌렀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펜 자국조차 남기지 못하고 필담이 사라졌다. 희게 변한 종이 위에는 새로운 문장들이 채워졌다.-이번 시간 끝나면 편의점 가자. 뭐 사 먹게?-초코롤빵.매점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그 이름, 초코롤빵을 당당하게 적은 윤별이 발가락을 꼼질댔다.-근데 매점에서 초코콩프렌즈 빵 왜 안 파는지 알아? 이거 기억 안 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더라.-애들이 스티커만 모으고 빵은 버려서 그래.몇몇의 부르주아 때문에 편의점에 가야지만 초코콩프렌즈 빵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윤별의 두 주먹이 파들파들 떨렸다. 나쁜 놈들.“윤별아. 아프면 보건실이라도 갈래?”칠판 앞의 선생님이 간절한 목소리를 냈다. 아플 리 없는 윤별에게 제발 보건실에 가서 한숨 푹 자고, 수업 방해 좀 하지 말라는. 에둘러 말하는 퇴출이 고막에 내리꽂혔다. 윤별은 기꺼운 마음에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너무 아파서 저 혼자서는 못 가겠어요, 쌤.”아픈 기색 하나 없는 주윤별의 뻔뻔한 대답에 수학 선생님의 눈동자가 그 옆을 향했다. 모의고사만 보면 전국 순위를 찍는 모범생 한 명을 희생시켜 남은 인원의 수업권을 살리겠다는 결연한 눈빛이었다.“그럼 친구가 데려다줄래?”주윤별은 제 하나뿐인 친구에게 눈짓했다.좋아. 이제 초코롤빵 먹으러 가자.당황한 표정의 공유진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수업이 재개되었다.초코롤빵을 먹으며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요란한 사이렌이 울렸다. 거리에 설치된 확성기에서도, 스마트폰에서도 모두 같은 음이 터져 나왔다.“망했다.”한 봉지에 두 개 들어있는 초코롤빵을 하나도 채 다 먹지 못했는데 던전이 눈치 없이 열렸다. 인벤토리에 먹다 남은 빵을 넣어야 할지 고민하며, 입 안으로 빵을 밀어 넣는다. 옆에서 2+1 하는 덴마크 초코우유를 마시던 유진만이 평온한 얼굴이었다.“던전 청소하러 갔다고 말 전해줄까?”그는 마시던 우유를 팔뚝에 끼워 고정한 뒤, 인벤토리에서 빨대와 새로운 초코우유를 꺼냈다. 그러고는 초코우유팩에 빨대를 꽂으며 물었다.입안 가득 빵을 우물거리는 윤별에게 우유팩을 건넨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몸짓에 윤별이 빨대를 물고 우유를 들이켰다. 단 거와 단 거의 조합은 언제나 최고였다.“나 아파서 양호실 간 거로 되어있을 텐데.”“그거 아무도 안 믿어서 상관없을걸.”뼈아픈 팩트폭행에 우유를 쭉 마신다. 액체가 없을 때 나는 요란한 소리가 날 때까지 쭙쭙댄 윤별이 디바이스를 확인했다. 던전이 아니라 빌런의 출현이었다.퇴행하는 여름확성기는 아직도 사이렌 소리를 송출하고 있다. 공유진과 주윤별은 제가 본 문장이 사실인지 다시금 확인했다.던전 대신 빌런의 활동명이 적혀있는 안전 문자에 윤별이 할 말을 잃었다. 갑자기 분위기 빌런 출현이라니. 어이없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윤별이 빌런을 처리하러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사이, 다시 한번 강렬한 사이렌 소리가 터져 나왔다. 스마트폰과 연동된 디바이스는 착실히 메시지를 띄웠다.분위기 파악 못 하는 빌런님께서 정선혜의 직장 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계시니 민간인 여러분은 어서 도망치라는. 서늘해진 심장께에 불을 지르는 문장으로 이뤄진 메시지를 내려보았다.“유진아 내가 좀 아픈데, 빌런을 보면 덜 아플 것 같아서 잠깐 외출한 거라고 해줄래?”가볍게 스트레칭하며 말했다. 공유진은 꼭 그리 전하겠다고 말하며 한 발짝 물러섰다. 윤별은 인벤토리를 열어, 보상으로 받았던 흰 날개깃을 건드렸다.양쪽 발목에 작은 날개가 돋아났다가 사라진다. 그는 손목을 탈탈 털어준 다음, 공유진을 바라보았다.“그럼 이따 학교에서 보자.”“응. 조심히 다녀와.”푸른 눈 속에 담긴 미약한 걱정에 시원한 웃음을 그린 윤별이 그대로 지면을 박차올랐다. 불꽃이 없어도 허공에 가볍게 떠오른 몸뚱어리가 파사를 쫓기 시작했다.덥지도 않은지 천으로 몸의 살갗 하나 드러나지 않게 꽁꽁 싸매고 있는 남자가 긴 팔을 뻗는다. 넓은 소매통이 펄럭이자, 가로등이 꺾였다. 투명한 유리가 바닥에 닿으며 파열음을 내뱉는다. 아스팔트에 쏟아진 유리 조각 위를 사뿐사뿐 걷는 남자를 확인한 윤별이 팔짱을 끼었다.저거는 어느 나라 놈인가.검고 긴 머리카락의 일부를 내려 묶은 남자는 누가 보아도 이국적이다. 윤별은 한참 동안 중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복장과 장신구 따위를 걸친 남자를 훑어보았다. 역시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다. 지워냈던 인기척을 드러내며 저보다 나이가 많은 게 분명한 남자를 향해 입술을 벌린다.“야.”간결한 부름에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가늘고 긴 눈매 속의 눈동자는 황금색이었다. 허공에 떠 있는 윤별을 본 남자가 턱을 세우더니 한쪽 입꼬리만 슬쩍 올려 웃는다.“넌 뭔데 여기서 난리야.”윤별은 남자를 내려보며 고개를 기울였다.“학생은 뭐, 꼬마 마법사라도 돼? 고등학생이니까 마법 소녀인가?”꼬마 마법사와 마법 소녀 발언에 인상이 와락 구겨진다. 참자. 참으면 복이 온다고들 하지 않았나. 남자, 파사는 윤별의 옷차림을 다시금 확인하며 그 설정은 너무 클래식하지 않냐는 말을 내뱉었다.윤별의 시야가 새하얗게 표백되었다. 꼬마 마법사… 마법 소녀… 클래식… 인벤토리에서 야구 배트를 꺼냄과 동시에, 파사를 향해 뛰어들었다.“그래 내가 바로 이 구역 마법 소녀다. 이 새끼야!”깜찍한 야구 배트를 휘두르면 귀여운 불꽃이 퐁퐁 쏟아지는. 21세기의 마법 소녀 물리, 주윤별이 푸른 불꽃을 피워냈다.색깔만 귀여운 불길이 모든 산소를 먹어 치울 듯 크게 번진다. 파사는 매끄러운 입술로 호선을 만들며 손뼉 쳤다.“마법 소녀는 처음 보는데 신기하다.”말 끝나기 무섭게 파사의 그림자 속에서 온몸이 푸르고 머리만 검은 뱀이 나타났다. 파사는 제가 소환해낸 뱀의 머리에 손바닥을 얹었다. 파충류 특유의 서늘한 온도가 살갗을 타고 심장에서 뭉친다.주윤별은 파사가 입을 열 때마다 올라가는 혈압에 야구 배트를 굳게 움켜쥐었다. 이게 배트가 아니라 깜찍이였더라면, 저놈의 피부에 완벽한 별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을 삼키며 배트를 휘두른다. 가벼운 알루미늄 배트가 바람을 가르며 내는 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파공음이 터질 때마다, 파사의 길쭉한 동공이 확장되었다가 순식간에 축소되었다.거대한 뱀은 파사를 감싸고 이리저리 움직여댔다. 뱀이 움직일 때마다 불꽃이 모양을 바꾼다. 털 끝 하나 다치지 않은 파사를 보니 목덜미가 뻐근했다. 쟤는 뭔데 저렇게 잘 피해? 괜히 열이 오른다. 야구 배트를 굳게 움켜쥔다.윤별이 아직 습득하지 못한 스킬을 그리워하며, 허공에 불을 압축하기 시작했다. 커다란 불이 빠르게 줄어든다. 푸른색은 점점 짙어졌고, 매끄러운 모양으로 변해갔다. 이윽고 불은 야구공만 해졌다.윤별은 눈이 돌아가서 연약한 알루미늄 배트의 내구도를 무시한 채, 이능력으로 만든 공을 쳤다.깡―! 하고 시원한 타격음이 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윤별의 알루미늄 야구 배트가 그대로 터졌다.스킬, 담금질로 열심히 내구도를 강화시킨 그의 기간 한정 단짝, 야구 배트가 펑 소리를 내며 터져버렸다. 황망해진 윤별이 느릿느릿 눈을 굴렸다. 갈가리 찢긴 금속이 어찌나 반짝이던지 눈이 부실 지경이다.“젠장.”윤별은 기간 한정 단짝이었던 것의 잔해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다. 파사는 길쭉한 손으로 제 하관을 가리며 웃음을 삼켰다.“저런… 마법 소녀인데 마법 봉이 사라졌네?”누가 들어도 즐거운 목소리였다. 윤별의 반듯한 이마에 주름이 잡히자, 그는 웃음을 터트렸다. 요즘 고등학생들은 다 저렇게 재밌는 애들인 거야? 우아하게 생긴 주제에 웃음 한 번 경쾌하다. 윤별은 아직도 허공에서 너울거리는 금속 잔해를 힐끔였다. 잔해 위에 작은 불꽃을 얹고, 방향을 조정한다.“야. 작작 웃어라.”윤별이 이를 악물었다. 시발 부서지려면 던전 안에서 부서지던가, 쪽팔리게 왜 지금 부서지고 난리인데. 잇새로 흘러나오는 본심에 파사의 웃음이 더욱 커졌다. 제 소환수의 비늘이 타들어 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모양이다.“너 진짜 재밌는 애구나?”흰 피부가 달뜰 정도로 웃어댄 파사가 중지와 약지로 제 눈가를 훔쳤다. 하도 웃었더니 눈물까지 맺혔다.“건물 부수는 것보다 즐거운 건 또 오랜만이네.”“미친놈인가?”필터링 하나 거치지 않고 대답하는 윤별이 그리도 재밌는지, 상기된 파사의 뺨은 가라앉을 기색도 없었다.“마법 소녀는 이름이 뭐야?”“개인정보인데요, 이새끼야.”“이름 정도는 말해줄 수 있잖아.”이름을 말하는 순간, 헌터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제 신상을 탈탈 털어버릴 게 뻔한 빌런에게 말해줄 이름은 없었다.“너에게 말해줄 이름 없다니까?”“에이. 명찰에도 써 있는 게 이름인데, 너무한다.”너어는 싸패새끼신가요?왼쪽 가슴팍에 당당히 쓰여 있는 이름 석 자를 가린다.“내가 마법 소녀랑 더 놀고 싶긴 한데, 너랑 더 놀기엔 나도 선약이 있어서 말이야.”파사가 손뼉 쳤다. 주윤별의 공격에 너덜너덜해진 뱀이 스르륵 움직여, 그림자 안으로 숨었다.“그러니 우리 다음에 또 놀자?”그림자 속 뱀이 파사를 끌어안음과 동시에 맑은 칼림바 소리가 울린다. 윤별은 오늘따라 눈치 없는 것들이 왜 이리 많냐며 이를 갈았다.칼림바 소리는 파사와 함께 사라졌다.“허. 지금 튀었어?”결국 윤별은 왼 손바닥으로 뒷목 잡았다. 저, 저, 저, 상도덕 없는 새끼! 격렬한 욕설에 반응한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방어계 공무원이었다. 그는 제가 만들어낸 방어막 안쪽에서 나는 소리에 눈알을 데룩데룩 굴렸다. 튀…, 아니, 도망갔다니까 이제 이능을 거둬도 될 타이밍인데, 왜 거두면 안 될 것 같은지 모르겠다.“현우 씨, 아직도 싸워요?”뒤에서 동료가 걱정 가득한 음성으로 묻는 통에 고개를 내젓는다.“아뇨, 아뇨. 지금 끝났나 봐요. 그럼 오픈합니다.”방어계 공무원이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얌전히 모으고 있던 손바닥이 활짝 펼쳐지자, 방어막 안이 드러난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윤별과 파사의 흔적을 힐끔였다.“저 고생하셨습니다…”거세게 발을 구르던 윤별이 들리면 안 되는 소리를 들은 사람처럼 뒤돌아섰다.“누구…?”“인천시에서 나왔는데요…”공무원 뒤에 또 다른 공무원들이 서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이 몰려있었다. 온갖 난리를 치던 게 저 작은 기기마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경북 생명의 숲에서 읊었던 문장을 다시금 읊조리며, 입술을 열었다.“사진이나 동영상 올리시면 이능력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처벌되며, 보관만 해도 이능력자 초상권 침해로 가중처벌됩니다.”그러니 지워.팔짱을 낀 윤별이 턱을 세웠다. 시건방짐의 끝을 달리는 고등학생 헌터의 말에 구경꾼은 딱 셋으로 나뉘었다.1번, 슬그머니 스마트폰 속 사진 혹은 동영상을 지우는 사람.2번, 지우는 척만 하고 개인 소장하려는 사람 .3번, 이미 SNS에 올린 지 오래인 사람.3번 구경꾼들의 스마트폰이 끊임없이 알람을 토해내고, 진동을 내뱉는다.윤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헌터 인권보호센터에 문의하겠다 마음먹으며, 인천시에서 나왔다는 남자 무리를 응시했다.이능력자가 사고칠 때마다 득달같이 달려오는 공무원 팀은 보통 셋으로 이뤄진다. 방어계, 공격계, 치유계. 일명 탱딜힐이라는 기가 막히게 완벽한 조합으로도 막을 수 있는 이능력자가 있고, 막을 수 없는 이능력자가 있다.“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헌터님.”그 중 파사는 막을 수 없는 이능력자였는지, 셋 다 안도한 얼굴이었다.“아뇨. 해야 할 일인걸요.”“그래도 혼자서는 무서우셨을 텐데요.”어쩜…! 세상에…! 누가 들어도 겸연떠는 말이었는데도 공무원들은 약간의 호들갑을 떨어댔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나온 ‘혼자서는 무서우셨을 텐데’라는 헛소리에 눈알을 대굴대굴 굴렸다. 급격하게 어색해진 분위기를 없애고자, 다른 두 명이 뇌를 굴려댔다.“맞아요. 다른 빌런은 그나마 나은데, 파사는 좀…”“그쵸. 걔가 인성이 저세상 가버려서요.”뒤에 서 있던 여자와 남자가 말을 잇는다. 흐린 눈으로 파사의 행적을 떠올린 남자가 고개를 내저었다. 앞으로도 딱 저세상까지만 갔으면 좋겠다.“맞아요. 걔가 먼저 시비 걸더라니까요.”주윤별은 머릿속을 장악한 마법 소녀에 진절머리 쳤다. 퇴행하는 여름여름이면 무릇 여름방학이 있다. 물론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라면 자율적인 척하는, 이름만큼은 자율적인 ‘방학 자율 보충수업’으로 방학을 거의 다 소비하기 마련이다.윤별은 가정통신문을 받자마자 혀를 끌었다.“보충수업 나올 거야?”“미쳤어?”묻는 말에 솔직한 답이 튀어나온다. 윤별은 어떻게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할 수 있냐는 얼굴로 유진을 바라보았다.“나는 나올 건데.”“너 정말 미쳤어?”“아니. 가끔 놀러 와. 고장 난 거나 부서진걸 들고 오면 언제든 고쳐줄게.”작게 속삭인 공유진이 그대로 눈꼬리를 휘어트렸다. 여름방학이 시작하자마자, 던전게이트와 던전브레이크 그리고 상시 던전까지 온갖 던전 순회를 시작했다.주윤별은 지칠 때면 깜찍이가 없어서 일어난 대참사를 떠올렸다. 사실, 굳이 일부러 떠올릴 필요도 없었다. 모든 시간마다 야구 배트가 떠오르고, 파사와 대거리를 하다 조각나서 나풀거리던 가루가 떠오르기까지. 모든 기억이 뇌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기 때문이다.오늘도 파사의 비웃음을 떠올리며, 신발 뒷굽으로 바닥을 쓸었다. 다 썩어가는 나무 바닥에 불이 붙자, 어둠 속에서 있던 몬스터가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벽면의 촛대에서 일렁이는 불빛이 긴 드레스 자락을 비춘다.상시 던전, 유령 함대와 진주 목걸이의 보스는 매번 바뀌었는데, 하필 이번에는 귀부인인가보다. 귀부인에게는 통하지 않는 무기를 인벤토리 안에 집어넣은 윤별이 눈을 가느스름히 떴다. 곱게 틀어 올린 머리카락과 우아한 콧대, 화려했을 장신구와 옷이 두드러진 유령은 부채로 제 입가를 톡톡 두드리고 있다.“그대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인 것 같은데.”초대를 운운한 유령이 불타는 갑판을 보며 눈을 치떴다. 윤별은 유령이 뭐라 말하든 신경 쓰지 않고, 인벤토리에서 크리스탈 레토르트를 꺼내 들었다. 빛을 내뿜는 액체가 푸른 불꽃에 일렁인다. 그대로 마개를 뽑은 뒤, 제 손에 들이붓는다. 축축하게 젖다가도 바로 휘발되어버린다. 손을 가볍게 툭툭 턴 윤별이 두 번 손뼉 쳤다.푸른색이었던 게 거짓말이라도 되는 듯, 새하얀 빛의 불꽃들이 생겨난다. 나선으로 회전하는 불꽃이 귀부인 유령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다. 잿빛 드레스 자락이 희게 바스러진다.“예의도 모르는 자!”“진짜, 인간형 보스 너무 싫어.”미간을 좁힌 윤별이 손가락을 까닥였다. 잘 정돈되어있던 머리카락이 흐트러진다. 유령은 제 머리카락을 매만지더니 눈을 홉떴다. 공들인 머리카락이 날아갔다는 사실에 분노한 귀부인이 부채를 펼쳤다.팔랑거리는 부채에서 쏟아지는 비수에 윤별이 발을 굴렀다.그러하다고 태산이 무너지겠느냐.쓸데없이 웅장한 음성이 들리자, 어둠이 내려앉은 함대에 찬연한 빛줄기가 쏟아진다. 유령은 빛을 피하기 위해 한걸음 뒤로 물러서면서도 윤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검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입술을 달싹였다.“그대의 탐욕처럼 어긋나는 것도 없을 것이오, 탐욕만큼나…,”저주의 언어가 모두 내뱉어지기 전에 발을 든다. 이미 불타오르는 바닥을 내려치자, 유령과 윤별 사이에 작은 구가 여럿 생겨났다. 불꽃이 빛 아래에서 새하얗게 넘실거린다. 그것은 찢어지고 바스러진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움직이기 시작했다.윤별은 제가 만들어낸 불꽃의 일부가 유령 근처에서 터져나가는 것을 보며 입꼬리를 끌어당겼다.불꽃의 궤적이 유령의 움직임을 쫓기 시작했다. 불꽃은 총알이 되어 실존하되 실체가 없는 것의 몸을 차례로 관통했다. 비틀거리는 유령의 잿빛 몸뚱어리에 흰 연기가 피어오르다, 사그라든다.“…비슷한 것이 없을지다!”비명과 같은 언어를 끝으로 잿가루가 되어 휘날린다.상시 던전이라고 주는 것도 짜다. 윤별은 인벤토리에 들어온 쓰레기를 보며 혀를 끌었다. 이렇게 된 이상, 믿을 구석은 국가뿐이다. 디바이스에 떠오른 문장을 확인한 윤별이 개인정보 설정을 다시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는 던전 입구에 놓인 벤치에 궁둥이를 붙이고 본격적으로 디바이스를 훑기 시작했다. 게이트나 브레이크가 열린 곳은 없는지, 있다면 가까운지, 마켓에 깜찍이 재료가 올라온 게 있지는 않은지. 온갖 정보를 탐독해댔다.“저기, 1시 함대팟 가시는 분이세요?”벤치 끝에 앉아있던 남자가 어색한 얼굴로 말 걸었다. 주윤별은 고개도 들지 않고 “아닌데요.”하며 대화를 차단하고는 마켓에서 쓸만한 물건이 있나 확인했다. 죄 다 쓰레기 같은 옵션의 아이템만 있다. 7년 차이가 이다지도 크다. 한참을 들여다보다, 결국 포션만 구매한 윤별이 고개를 들었다.점심시간이 살짝 지나고 나니, 던전에 들어가려는 헌터들로 북적북적하다. 하나같이 한 명을 축으로 모여있다. 그는 제 스킬 등급과 피지컬 등급이 높다는 것에 새삼스레 감사하며, 기지개를 켰다.주머니 속에 넣어둔 스마트폰을 꺼낸 윤별이 초코콩톡을 켰다. 맨 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화방을 연다.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말로 끝난 대화를 확인하고는 키패드에 두 개의 엄지를 가져다 댄다.상대방의 이름이 뚝 끊겼다가 이어졌다. 주윤별은 시간을 확인한 다음, 말을 잇기 시작했다.”지금 학교야?” “응. 아직 학교야.” “나 지금 갈 건데, 언제까지 있을 거야?기다릴게.” 곧이어 웃는 이모티콘 세 개가 알림창을 울렸다.”응. 금방 갈게! “ 답장을 보내고 나서야 벤치에서 일어섰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시선은 짧게 모였다.타의가 아닌, 자의로 학교에 가는 건데도 발이 무겁다. 발을 질질 끌며 걷는 탓에 신발 뒷굽이 갈리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제 걸음걸이를 포기하지 못했다. 윤별은 급격히 지친 얼굴로 다 와 간다는 메시지를 남겼다.학교를 향해 터덜터덜 걷던 윤별이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 두 개와 작은 간식거리를 구매했다. 부탁하러 가는 길인데 맨손으로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니니, 먹을 거라도 사겠다는 얄팍한 생각이었다. 그는 무더위에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도록, 편의점 봉투 그대로 인벤토리에 넣었다.분명 방학 동안 학교에 절대 안 오겠다고 다짐한 것 같은데, 어느새 보니 매일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 이능력자도 피해갈 수 없는 누적된 피로에 절로 하품이 나온다. 입을 벌리고 크게 하품한 윤별이 계단을 오르는 대신, 뛰어오르는 것을 택했다.토템의 효과로 발목에 반투명한 날개가 돋아난다. 발끝에 힘을 준다. 실바람은 주윤별의 몸뚱어리를 창틀 위에 올렸다.“안녕.”손바닥을 활짝 펼치고 손가락만 슬쩍 움직인다. 팔랑거리는 손끝을 보며 공유진이 희게 웃었다. 그는 자리에서 곧장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어서 와.”에어컨 바람이 열린 창문 틈 사이로 빠져나가고, 뜨거운 열기는 교실 안으로 밀려들어 왔다. 주윤별이 허리를 굽혀 교실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공유진은 창문을 급히 닫았다. 교실 안에 잔류 된 찬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기 전이었다.“잘 다녀왔어?”그는 주윤별의 표정을 꼼꼼히 살피며 물었다.“내가 누군데.”의기양양한 얼굴과 목소리에 눈은 커졌다가 반달로 휘어진다.“그러게.”흐드러진 웃음을 흘린 남자가 등허리를 비틀어 등 뒤를 확인했다. 앞 문과 뒷 문은 굳게 닫혀 있다. 공유진은 타인의 시선이 닿을 틈 없는 공간에 고개를 끄덕였다.“저건 뭐야?”기다란 손가락이 복도 쪽 창문을 가리킨다. 공유진은 아무렇지도 않게,“복원하는 거 보이면 안 되니까, 세워놨어.”하며 손을 뻗었다. 주윤별이 복도 쪽 창문틀에 줄 세워진 EBS 문제집을 보며 입술을 벙긋였다.“저런 거 안 해놨었잖아?”손끝이 스칠 때마다, 던전에서 훼손된 옷자락이 복원된다.“오늘 담임이 시트지 떼어냈거든.”같은 반 학생이 창문으로 내려다보는 시선이 부담된다며, 담임 몰래 붙여두었던 시트지의 행방에 대해 읊었다.“오…아무튼 그 인간, 성격 너무 더러워.”성격 나쁘기로는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사람이 말했다. 주윤별이 눈살을 찌푸리며 창문을 바라보았다. 재주껏 쌓은 문제집은 벽돌을 쌓듯 쌓여있었는데, 튼튼함을 따진다면 아기돼지 삼 형제 중 첫째 돼지. 그러니까, 볏단으로 설렁설렁 지은 집 같았다. 그가 외부에서 작은 충격만 가해져도 우수수 쓰러질 것만 같은 아슬아슬함을 힐끔대고 있자, 공유진이 입술을 느른히 끌어올린다.“안 쓰러지니까 걱정하지 마.”“어?”“얼굴에서 다 티 나, 윤별아.”공유진이 손을 뻗어 왼쪽 눈꼬리 아래를 건드렸다.“여기가 찌푸려져 있잖아.”닿았다기보단 스쳤다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온기에도 주윤별의 눈동자가 크게 뜨였다. 공유진은 주윤별의 회색 눈동자를 바라보다가 몸을 굽혔다. 오른쪽 무릎이 교실 바닥에 닿는다. 그는 그을음과 기스로 가득한 신발에 손을 댔다. 그을음이 먼저 사라지고, 기스는 최근의 것부터 지워지기 시작한다. 이윽고 미세하게나마 닳은 신발 굽까지 원래대로 돌아오고 나서야, 주윤별의 손이 공유진의 어깨에 닿았다.“너 진짜 내 표정 읽지 마.”길쭉한 손가락으로 공유진을 찌른다. 알겠어? 빨리 알겠다고 대답해. 이어지는 독촉에 공유진이 턱을 치켜들어, 위를 바라보았다.“음, 그건 힘들지 않을까? 너를 알고 지낸 지, 너를 알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던 게 어떻게 한 번에 사라지겠어.”공유진은 덤덤하게 말을 잇고는 반대쪽 신발까지 복원했다. 윤별이 손을 거둬, 제 눈가를 덮었다.‘진짜 미친 거 아냐? 어떻게 그런 말을 육성으로 해?’손바닥 아래에 숨은 눈동자가 잘게 흔들렸다. 제 말에 사람 하나가 동공 대지진을 일으키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남자가 제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확인했다. 방금 신발가게에서 구매한 것처럼 깨끗하다.그는 한쪽 무릎을 꿇은 상태로 복원할 곳이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바지 밑단에 묻은 몬스터 체액까지 지워낸 남자가 느긋하게 일어섰다. 퇴행하는 여름눈을 가리고 있는 손등을 보며, 공유진은 덤덤한 목소리를 냈다.“장비는 괜찮아?”“어…어…, 아니?”황급히 손을 내린 주윤별의 귀 끝에 붉은 기가 올라왔다. 꽃이 피어난 것만 같았다.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다시 창문이 열릴 것만 같아서 못 본 척 눈만 끔벅인다.“부서졌어?”“그 정도까진 아냐.”윤별이 인벤토리에서 하루종일 사용했던 알루미늄 배트와 쇠지레를 꺼내 들었다. 청량했던 여름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은 두 개의 무기에 귀 끝의 열감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공유진이 손을 뻗으려는 찰나, 윤별이 무기를 제 등 뒤로 숨겼다.“아이스크림 먼저.”책상 위에 내려두자, 그사이에 부딪힌 야구 배트와 쇠지레가 요란한 소리를 냈다. 예민한 고막이 미약한 통증을 호소하자, 주윤별과 공유진이 잠시 눈살을 찌푸렸다가 풀었다.“으. 완전 시끄러워.”질색하며 인벤토리 속 편의점 봉투를 꺼내 든다. 손을 휘저어 아이스크림 두 개를 먼저 꺼낸다. 파랗고 하얀 치어팩의 마개를 까서 상대방에게 건넸다. 공유진은 할 말 많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주윤별이 건네는 아이스크림을 받아 물었다. 곧이어 책상 상판을 툭툭 두드리는 손길에 아무 말 없이 그곳에 궁둥이를 붙인다.두 손으로 치어팩을 조몰락댄다. 꽝꽝 언 아이스크림이 부드럽게 나오기 시작했다. 대화 없이 아이스크림만 쭉쭉 빨아 먹던 남자가 윤별의 옆얼굴을 응시했다.“어디까지 모았어?”“응?”“재료 말이야.”윤별이 입 안의 아이스크림을 모두 삼키고, 플라스틱에서 입술을 떼어냈다.“에다에서 나오는 건 다 모았는데 우리나라 신화에서 나오는 건 멀었지.”“아무것도?”“응. 중요한 건 아무것도 못 얻었어.”고개를 끄덕인다. 지난 시간 선에는 에다가 안 열려서 던전 원정도 떠났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던전이 문제였다. 이젠 자청비와 바리가 보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다. 대별왕은 언제 나오더라. 우울한 낯으로 다시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려고 하자, 공유진이 긴 팔을 뒤로 뻗었다.“나 도환생꽃은 한 다발 있어.”“뭐?”그걸 네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데. 화들짝 놀란 주윤별이 제 옆에 앉은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별말 안 했다는 얼굴로 다시금 입술을 열었다.“줄까?”“응!”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크게 끄덕인다. 윤별은 신이 난 얼굴로 다리를 흔들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아니다. 내가 살게. 그거 비싸잖아.”시중에 풀리지도 않은 아이템을 떠올리며 거절했다. 남자는 고개에 이어 손까지 내젓는 여자를 바라보다 고개를 기울였다. 굳이 그래야 하냐는 얼굴을 보며 주윤별은 턱을 치켰다.공유진의 손가락이 책상 위를 느리게 두드렸다. 살갗이 덮고 있는 뼈와 나무 상판이 닿을 때마다 톡톡, 가벼운 소리가 났다.“굳이 사야겠어?”“금전 관계는 원래 철저해야 해. 그래서, 포인트가 좋아, 아니면 현금이 좋아?”네가 원하는 쪽으로 다 줄 수 있다는 표정을 짓는다. 공유진은 포인트와 현금을 끊임없이 조잘대는 주윤별의 입술을 힐끔거린 후, 목록에 없는 선택지를 골랐다.“나중에 내가 필요한 아이템이 생기면 그걸 구해줘.”공유진이 인벤토리에서 도환생꽃 한 다발을 꺼내 들었다. 서천꽃밭에서 따온 핏빛 꽃다발을 든 흰 손이 두드러졌다. 주윤별은 색의 대비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묘한 기시감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다.“진짜 포인트나 현금은 안 돼?”“응. 그건 좀.”왼쪽 눈살을 짧게 찌푸린 남자와 그의 손에 들린 도환생꽃을 번갈아 가며 바라본 윤별이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좋아. 필요한 건 뭐든지 다 말해! 아이템이 아니어도 괜찮아.”폭넓은 선택권이라도 가져가라 말한다. 윤별은 검붉은 꽃다발을 받아들었다.서천꽃밭에서 따온 꽃. 죽은 자에게 사용하려면 금부채가 필요할 것 같다.눈 앞에 펼쳐진 팝업을 닫는다. 일순, 금부채는 죽어도 드랍되지도 않는데 왜 자꾸 설명에 써 놓는 거냐는 생각이 들었다.공유진의 이능력으로 말끔히 복원된 것들과 도환생꽃을 챙겨 넣는다. 인벤토리 한 쪽에 자리 잡은 깜찍이 재료들에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든다. 주윤별은 제 용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상에서 궁둥이를 떼어내진 않았다. 공유진은 곧장 마주쳐오는 회색 눈동자에 대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말했다.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쪽 창문을 향했다. 줄 세워놓은 문제집 하나하나를 거두어 왼팔로 안는다. 윤별의 눈동자는 남자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였다. 햇빛 아래에서 푸른색 링을 만들던 검은 머리카락에 내려앉은 노을이 어떤 색을 만들어내는지, 얼굴의 굴곡을 따라 일렁이는 음영은 어떠한지. 모든 게 보였다. 회색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지, 남자는 복도 너머에서 쏟아지는 주황빛에 가끔 미간을 좁히면서도 제가 세워둔 것들을 모두 거뒀다.“유진아.”“응?”곧장 돌아보는 남자를 향해 주윤별은 짧은 웃음소리를 냈다.“나랑 던전 갈래?”“아니.”“왜?”“위험하니까.”나랑 가는데 위험하다고? 고개를 기울인다. 그보다 얘가 거절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기억을 더듬는 윤별 앞에 선 유진이 고개를 숙였다.“난 연약한 복원술사잖아. 네가 이해해줘.”노을빛에 붉어진 뺨이 눈부시다. 여름이 일렁였다. 덥고 습함과 동시에 청량한 계절은 가을이 되기도 했고, 봄이 되기도 했으며, 겨울이고 다시 여름이었다. 모든 시간이 뒤엉킨다. 주윤별은 혀끝으로 치아를 문지르다가 입술을 뗐다.“그럴게.”과거가 현재에 덧입혀지려는 게 저 스스로에게도 보여서 웃음이 터졌다.공유진은 갑작스레 웃음을 터트리는 주윤별을 보며, 입꼬리를 끌어당기고 눈매를 허물어트렸다. 같이 웃는 남자의 얼굴에 주윤별이 손을 뻗었다. 붉게 보이는 광대뼈에 손가락을 얹는다. 제 손도 남자의 뺨만큼이나 붉다.“유진아. 공유진아.”다시금 그 애의 이름을 부른다. 올곧게 마주하는 푸른 눈동자가 과거를 끌고 온다.“나 내일은 안 올 거야.”“왜?”“그냥. 그러니까 일찍 하교해.”공유진은 제 광대뼈에 얹어진 주윤별의 손가락에 고개를 기울이지도 못하고, 눈만 깜빡였다. 속눈썹이 나비처럼 팔랑대는 것을 보며 주윤별은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알겠지?”“그건 내 마음이야, 윤별아.”제 살갗 위의 손 하나도 떼지 못하면서 또다시 거절한다. 공유진은 주윤별의 손가락이 떨어지지 않도록 느리게 고개를 기울였다.“그럼 모레는 오는 거지?”“몰라.”“그래. 그럼 내가 필요할 때 와.”마지막 말에 주윤별의 미간에 깊은 골이 생겼다.깜찍이 재료를 파밍 하려 해도 관련 던전이 열리지 않는다. 아쉬운 마음에 헌터맵에 등록된, 제 생활반경에 속하는 던전을 모두 클리어한 윤별이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동네에 있는 상시 던전이라도 한 번 더 갈까. 부드러운 천에 뺨을 비비다 돌아누워, 스마트폰을 집어 든다.뉴스란은 아직도 ‘최초의 삼신할머니 등장’으로 발생한 일들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다. 다른 뉴스가 있나 싶어 엄지로 화면을 쓸어올린다.길드, 신성모독에 A급 자연계 헌터가 가입했다는 것. 대표 생활 길드에서 연금술사들이 독립해 나와, 연금술사협회를 설립했다는 것. 살해당한 이능력자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 데드라인의 길드 마스터가 긴급대피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것까지. 삼신할머니에 밀린 뉴스를 하나하나 클릭한다. A급 자연계가 궁금해서 본 사진에는 신입은 보이지 않는다. 사진 속에는 연갈색 긴 머리카락을 비녀로 틀어 올린 미인이자 신성모독의 길드 마스터, 배신당해죽어야할운명만 있다. 배신당해죽어야할운명이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본 윤별의 얼굴근육이 자유분방하게 움직였다. 보는 제가 더 부끄러워지는 기분이다. 하단의 인터뷰는 무시한 채, 첫 번째 페이지로 되돌아갔다.이렇게 계속 누워있으면 한도 끝도 없이 빈둥거리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각성하지 않았더라면 척추 수술 해야 할 자세로 한참 동안 웹서핑을 하던 윤별이 미적거리며 일어났다. 동네에 있는 상시 던전은 재미없으니, 다른 동네의 던전이라도 돌아보자는 생각이었다. 그는 얇은 홈웨어를 벗어 던지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한여름이라는 계절이 무색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다.지하철로 30분만 가면 상시 던전인 미궁이 있으니, 거기에서 연금술 주요 재료인 정화된 베이스 포션이나 파밍 하면 될 듯하다. 미궁 근처에 브레이크나 게이트가 열린 게 있나싶어 디바이스를 매만진다. 헌터맵에 등록된 던전을 확인하며 걷던 윤별이 한숨을 뱉었다. 학교로 가는 게 습관이 되었는지, 어느새 학교 앞이었다. 오늘은 정말 안 오겠다고, 안 갈 테니 집에나 일찍 가라 말했던 게 무색할 정도였다. 디바이스 속 시간을 힐끔인다. 집에서 뒹굴거리던 시간이 길었는지, 벌써 오후 3시에 가까워져 있다.교문 앞에서 발장난을 치던 윤별이 교실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뒤돌아섰다. 여아일언중천금이다.그 때 메신저 알람 소리가 두 번 울렸다.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스마트폰을 꺼낸다.공유진 : 안 들어와?환해진 화면 속에는 공유진의 메시지가 떠올라있다. 손가락으로 팝업된 메시지를 건드리자, 화면은 대화방으로 변경되었다.”윤별아.안 들어와?” 알람 두 개의 주인은 모두 공유진이었다. 주윤별이 제 오른쪽 발을 축으로 몸을 돌린다. 눈을 가느스름히 뜨고 신교사를 샅샅이 훑듯 바라보았다. 그가 온 사실을 안다면 창문 너머에 사람의 형상이 보일 법도 한데, 보이지 않는다. 건물 쪽으로 다가가야 하나 싶어 발바닥을 떼어냈다.“거기 아닌데.”나무 그늘 아래에서 빠져나온 공유진이 환히 웃었다.“내가 널 도울 일이 있어?”쭉 뻗은 다리로 순식간에 다가온다. 그 애의 푸른 눈동자 속에 내리쬐는 햇빛 조각이 담겼다. 윤별은 부러 시큰둥한 척, 발끝으로 딱딱한 바닥을 두어 번 걷어차며 입술을 뗐다.“아니. 습관적으로 온 거라, 다시 돌아갈 거야.”“그래?”그 애는 미소를 지워내지 않았다.“그래도 좋다. 오늘도 봤잖아.”웃음기 섞인 목소리가 퍽 다정하게 울렸다. 심장이 울렁거리는 건 모두 다 과거 탓이다. 나름대로 순수했을 시절의 주윤별이 끈질기게 고개를 들이미는 탓이고, 또, 그저 같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포지션이었던 남자가 웃었기 때문이다. 주윤별은 얼굴을 일그러트리면서도 입꼬리를 끌어당겼다.퇴행하는 여름걘 왜 그렇게 예뻐서!울컥 올라온 감정에 윤별이 입술을 짓이겼다. 갑작스레 떠오른 얼굴에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더해졌다. 야구 배트를 움켜쥔 손에서 푸른 아지랑이가 일렁인다.주윤별은 제 발밑을 향해 야구 배트를 휘둘렀다.“망할!”쾅――!짧은 타격에 평평했던 땅이 뒤흔들린다. 매끈했던 알루미늄이 우그러진 것을 확인한 윤별은 지금이라도 제 머리를 내리쳐야 할지 고민했다. 공유진에게 내일은 진짜 안 올 거라며 입방정을 떨었던 한 시간 전의 주윤별의 머리를 내리치고 싶었다.너덜너덜해진 야구 배트로 흙먼지가 이는 땅을 훑는다. 온갖 생각을 하면서도 몸은 착실히 펄떡거리는 생명체가 있는지 찾아댄다. 무언가가 닿았다는 직감에 회색 눈동자에 빛이 어렸다.흙먼지 속, 토어는 땅속으로 도망치기 위해 펄떡댔다. 붉고 푸르며 노란색으로 빛나는 비늘이 햇빛 아래에서 반짝인다. 작고 촘촘한 비늘로 둘러싸인 척추동물을 보며 얼굴 위에 혐오감이 떠올랐다. 윤별은 끔찍한 것을 본다는 듯, 발끝으로 토어의 몸뚱어리를 건드렸다. 뻐끔거리는 주둥이가 소름 끼쳤다.갑작스럽게 터진 던전브레이크라길래 들어왔더니 하필 어류종이 있는 던전일 줄이야. 지금이라도 탈출석으로 빠져나갈까 싶다. 탈출석과 던전 클리어 두 개를 두고 고민하는 사이, 토어가 크게 펄떡이며 뛰어올랐다. 흙먼지가 윤별의 머리카락에 내려앉았다.“닿았어…?”지금, 지저분하고 비린내 나는 토어가 뿌린 흙이, 깨끗한 내 몸에?그는 핏기가 사라진 얼굴로 야구 배트를 인벤토리 안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돌아가면 억울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룰 거다. 주윤별은 원소계 이능력을 증폭시키는 스태프, 이능의 궤적을 꺼내 들었다. 매끄러운 금속이 손바닥에 감기자, 주윤별은 입꼬리만 끌어당겨 웃었다.“다 죽어.”뾰족한 스태프의 끝이 땅을 스쳤다.스태프의 맨 윗부분에 달린 크리스탈에 푸른색 불꽃이 고인다. 투명한 크리스탈 속의 불꽃은 춤을 추는 것처럼 흔들리다가, 몸집을 부풀리기 시작했다. 윤별은 꽉 찬 푸른빛을 보며 왼손으로는 제 머리카락을 털었다. 손끝이 꺼끌꺼끌한 것만 같다.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던 입꼬리가 뚝 떨어진다. 주윤별은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스태프의 끝을 바닥에 내려찍었다. 얇고 뾰족한 끝부분이 땅바닥에 꽂히자, 크리스탈에 응축되어있던 이능력은 금속을 타고 흘러내려 갔다.시술자의 의지에 따라 땅속을 파고든 불들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주윤별은 느리게 눈동자를 굴렸다. 토어였던 것이 희게 타올랐다가 검게 부서진다. 그는 곧장 스킬, 태산을 사용했다.그러하다고 태산이 무너지겠느냐.오만한 목소리와 함께 쏟아지는 빛줄기가 주윤별을 감쌌다. 잿가루를 방어하겠다고 스킬을 사용한 윤별이 미간을 좁혔다.끊임없이 올라오는 팝업을 무시한다. 오랜만에 사회 통념에 맞는 이능력을 사용한 윤별이 입술을 벌려 짧은 숨을 뱉었다.“던전 입구에 제발 무슨 종이 나오는지 좀 써주라...”어류종이라니. 어류종이라니.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펄떡거림에 온몸의 살갗이 우둘투둘 일어나는 느낌이었다.시스템이 ‘모든 생명체’를 죽였다고 하긴 했으나, 혹시 모른다는 마음에 스태프를 굳게 움켜쥔다. 유령 토어 같은 게 나오면 어떡해.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다. 그는 흙 한 겹 아래에 있을 아이템을 주울 생각도 못 하고 자동 퇴장만 기다렸다. 던전에서 자동 퇴장이 진행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문구가 떠오르고, 월드 순위가 변동됩니다.그다지 궁금하지 않던 문구도 떠올랐다. 윤별은 점멸하는 시야에도 손을 휘저어 팝업을 지웠다.던전, 땅속의 바다의 클리어 보상으로 얻은 것을 손바닥 위에 얹고 바라보았다. 파란 계열의 색상 중, 가장 아름다운 조각만을 모은 색상의 것이 햇빛을 받아 반짝인다. 농도가 다른 색들의 집합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주윤별이 아이템의 팝업을 열었다.최상급 토인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는 설명 아래에 적힌 방어력과 보호력 등급이 꽤나 높다. 엄지와 검지 끝으로 그것을 집어올린다. 모든 푸름이 응축된 것만 같았던 색이 햇빛을 타고 맑게 퍼져나간다.한낱 아이템 하나에서조차 타인의 색상이 떠오른다. 주윤별은 이것을 집어던질까 말까를 고민하며 손가락 사이의 것을 가볍게 움켜쥐었다.생활계 이능력자들이 세운 탑, 일명 생활의 탑은 조금 특이하게 생겼다. 직선을 겹치고 겹쳐서 만들어낸 곡선이 끊임없이 회전하며 올라가는 형태를 가리키며 ‘회오리 감자’라고 평하는 헌터도 있었다. 이번에는 여름이라고 물색으로 곱게 단장한 탑을 본 헌터가 눈을 끔뻑였다.“와… 뽕따 색인데 모양은 스크류바야…”그는 절로 나온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제 입술을 틀어막았다. 어설프게 움직이는 고개는 탑의 일원이 듣진 않았나 눈치 살피는 모양새였다. 주윤별은 탑 주변에는 CCTV가 설치된 것을 모르는 가련한 중생을 보며 혀를 끌었다. 탑 앞에서 입 털면 주머니 털리는 게 아직 유명하지 않은 시기인가보다. 그는 제 앞을 가로막은 헌터를 피해, 먼저 탑 앞에 섰다.“의뢰 넣으려고 왔는데요.”판타지 소설에 살고 판타지 소설에 죽는 사람들이 만든 탑답게, 탑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문을 개방하라!”외부인이 의뢰 넣을 의도로 방문했을 때만 들리는 녹음까지 울려 퍼진다. 주윤별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탑 중앙에 자리 잡은 문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중세에나 있을 법한 개방 방식을 보며 언제나 봐도 참 쓸데없는 일에 진심인 사람들이 많다며 감탄했다.쓸데없이 구식으로 열린 문 안은 쓸 데 있이 현대식이다. 익숙하게 걸어 들어가는 주윤별 뒤에서 감탄사가 들려왔다.“어떤 종류 의뢰 신가요?”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물었다.“장신구 가공이요.”“네, 원하시는 장인은 있으신가요?”완벽한 서비스직의 미소를 그려낸 직원이 제 옆에 잘 정돈해둔 파일을 뒤적였다. 탑에 소속된 생활직의 프로필이 적힌 파일을 데스크 위에 올려둔다.“따로 없으시면 이쪽, 파일에 예약상황까지 있으니 확인해주세요.”탑의 지분율 1위이자 생산계의 고인물, 채작좋아의 프로필이 가장 위에 놓여있었다. 팔랑거리며 프로필이 넘어간다. 주윤별은 채작좋아를 시작으로 생산은나의길 같이 이상한 닉네임으로 가득한 프로필을 보며 혀를 빼물었다.이러니 이능력자들은 다 네이밍 센스 없다는 소리를 듣지.구 본명인 주윤별, 현 물리라는 닉네임을 가진 주윤별이 할 생각은 아니었다.그는 두꺼운 파일의 끝부분에서 원하는 닉네임을 찾아냈다.“저 이 장인이요.”“네, 잠시만요-. 원하시는 장인 닉네임이 ‘김당근’맞으신가요?”“네.”“김당근 님의 작업실은 C812호입니다. C구역은 왼쪽 엘리베이터를 통해 가시는 게 빨라요.”파일 뒷부분에 위치한 프로필과 C구역의 작업실. 중요하지 않은 하급 장인이라고 못 박는 비언어적 행위에 주윤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공예사 김당근은 누가 뭐라 해도 대기만성형이었으니까.C-812.해당 방의 장인, 김당근이 직접 가공한 문패를 확인한 윤별이 손을 들었다.“의뢰 넣으러 왔는데요.”벌컥 열린 문틈으로 커다란 몸이 보였다. 생산계보단 신체계 이능력자에 가까운 외관의 장인, 김당근이었다.“그럼 들어갑니다.”주인이 문을 열어주었으니, 들어가는 게 인지상정이다. 주윤별은 문과 김당근의 틈으로 쏙 들어갔다. 투박한 작업대 위에는 가공 중인 것들이 늘여져 있었다.“각성한 지는 얼마나 되었어요?”“세 달째요. 그걸 왜…”“좋아요. 세 달이면 충분하지.”주윤별이 인벤토리에서 아이템을 꺼내 들었다. 깨끗하게 빛나는 푸른 보석을 아무렇게나 집어 드는 행위에 김당근이 기겁하며 항상 들고 다니는 공단을 펼쳐 들었다.“아니 그걸 그렇게 다루면…!”질색하는 목소리에 얌전히 공단 위에 아이템을 내려두었다.“이걸 피어싱으로 가공하려고요. 의뢰 요청서는 어디에 있어요?” 아이템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김당근이 뻣뻣한 혀를 움직였다.“그, 작업대 왼쪽에요.”그는 작업대 왼쪽, 작업대의 높이보다 살짝 더 높은 소형 책장 위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의뢰 요청서를 집어 들었다.요청자 닉네임은 물리. 원하는 장신구 종류는 피어싱. 의뢰요청서의 빈칸을 채워나간다. 그는 특이 요청사항에 제작자의 로고를 꼭 새겨달라는 말까지 기재했다.“김당근 씨, 다 썼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던 김당근이 고개를 돌렸다.“벌써요?”“네. 예약은 많이 밀렸나요?”안내데스크에서 본 프로필에는 예약은커녕 의뢰 작업 중도 없었지만, 주윤별은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물었다.“아뇨, 아뇨. 계약 진행하면 바로 작업 가능해요!”그는 주윤별에게 건네받은 의뢰요청서를 읽기 시작했다.“피어싱으로 가공만 하는 건 금방 해요.”“커팅도 해주셔야 해요.”“굳이 이걸 커팅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김당근은 다시 생각해보라며, 공단 위의 아이템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이미 이렇게 완벽한데 커팅이라니. 손 한번 삐끗하면 일어날 일들이 뇌에서 재생되기 시작했다. 손을 삐끗하는 순간 아이템의 옵션이 날아갈 테고, 그러면 의뢰비는커녕 탑에서 방을 빼야 할지 모른다. 얼굴의 핏기가 모두 사라진다.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객님.주윤별은 눈으로 말해요를 시전하는 김당근의 두툼한 손을 보며 코끝을 찡긋거렸다.“커팅해야 더 반짝거리잖아요. 그게 최대한 예뻐야 되거든요.”예쁜 애 귀에 달아줄 거라면 최대한 예뻐야 하는 게 당연하다. 예뻐지려면 장인의 손에서 곱게 가공되어야 하고.절대 타협하지 않으려는 의뢰인에 어깨를 늘어트린 김당근이 주윤별에게 의뢰요청서를 넘겼다.“먼저 서명해주세요.”탑에서 만든 의뢰요청서는 장인의 서명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의뢰내용을 수정할 수 없게 되어있었다. 김당근은 특이 요청사항에 적힌 로고 각인이라도 지워주길 바랐지만, 주윤별은 그 아래에 아이템 커팅 필수를 적어넣었다. 바로 앞에서 지켜보고 있던 김당근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의뢰요청서에 더 포함될 내용이 있는지 재확인한 윤별이 서명하자, 빳빳한 재질의 종이에서 황금빛 가루가 떨어졌다.“그런데,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당신 닉네임이 김당근이면 전 맞게 찾아왔는데요? 그러니까 빨리 서명해주세요.”펜을 쥐고도 서명하지 않는 장인에게 서명을 재촉했다.퇴행하는 여름시간을 되돌리고 알게 된 것은, 세상은 퍽 흉흉하다는 사실이다.수험에 신경 쓰느라 다른 것에 신경 쓸 기력이 없어 몰랐던 일들이 하나둘씩 보인다. 오늘도 주윤별은 뉴스를 훑다가 혀를 끌기도 했고, 욕지거리를 내뱉기도 했다. 세상은 지나치게 흉흉했다.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릴 때마다 손톱과 원목이 부딪히며 딱딱거리는 소리를 낸다. 띄엄띄엄 들리던 소리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이어진다.애플리케이션을 닫는다. 역겨운 소식으로 가득 찬 활자를 읽을 때마다 연약한 신경 줄이 닳는 기분이다. 주윤별은 의자에 드러눕듯 기대어 한숨을 푹푹 내뱉었다.“미친 새끼들.”혀끝으로 마지막에 본 문장의 감상을 읊는다. 청소년 성범죄가 일어났는데, 가해자가 B급 헌터라는 게 뭐가 중요 하단 말인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얌전히 뒤져야지. 판사들도 웃긴다. 이렇게까지 편파적으로 판결을 내리고도 양심이 안 아픈가? 주윤별은 그 망할 B급 헌터의 모가지와 2차 가해자들의 멱을 따는 상상을 하며 손을 뻗었다.눈앞에 마켓이 열린다. 이전에 사두고 수거하지 않은 포션 뭉치가 구석에서 반짝이고 있다. 그는 포션 뭉치를 한 번 바라본 뒤, 검색창을 클릭했다. 깜빡이는 커서는 주윤별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뒤로 밀려났다. 아이템의 정확한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이랬던 것 같은데’의 조합으로 적은 단어를 검색한다.모양은 딱 크리스탈인데, 아쉽게도 이름에 크리스탈이 들어가진 않나 보다.떠오른 문장을 누른다.최상급 스킬 보관석상급 스킬 보관석중급 스킬 보관석중하급 스킬 보관석하급 스킬 보관석...가격이 비싼 것부터 나열된다. 주윤별이 보관함에 넣을 스킬, ‘태산’은 SS급 스킬답게 최상급 스킬 보관석에만 담을 수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열심히 모아온 포인트를 탈탈 털어, 최상급 스킬 보관석 두 개와 탈출석 세 개, 고정형 순간 이동 스크롤 다섯 장을 구매했다.스킬 보관석에 손을 얹은 윤별이 심호흡했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는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한 다음, 입술을 뗐다.“태산이 무너지겠느냐.”내리꽂듯 쏟아지는 빛줄기에 손의 가장자리가 붉어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왔다. 손을 떼어내자, 스킬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빛무리가 고인 스킬 보관석이 보인다. 맑은 검은색에 황금색 빛무리가 출렁거린다. 스킬 보관석을 쥐고, 담긴 스킬 명을 떠올리면 스킬이 발동한다. 스킬 보유자-물리.다행히 아이템 정보 팝업에는 사용법까지 잘 적혀있었다. 그는 다른 최상급 스킬 보관석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문장을 읊었다. 집에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다.주윤별의 엄마, 정선혜가 들었더라면 “뒤늦은 중2병이 온 거니?” 하며 기겁하거나. “헌터들 중에는 그, 중2병이 많다던데…”하며 주윤별이 헌터가 되겠다 했을 때, 나 죽는다 같은 소리를 내서라도 말렸어야 했다며 한탄했을 것이다.급격하게 지친 낯을 문지르며 고정형 순간 이동 스크롤을 꺼낸다. 특정 장소 또는 인물의 좌표를 따서, 스크롤에 새겨넣는. 아주 간단한 전처리 과정만 거치면 사용할 수 있는 순간 이동 스크롤을 한장 한장 펼쳐서 나열한다.가장 안전한 곳이라 한다면 역시 제 곁 아니겠는가.인벤토리에서 깨끗한 소도를 꺼내 불꽃으로 소독한다. 윤별은 왼손을 쭉 펼쳐 중지 끝부분에 칼날을 가져갔다. 피만 살짝 나올 정도로. 칼끝으로 살갗만 살짝 누르자, 붉은 피가 뭉글게 고인다. 영화에서 나올 법한 양피지로 제작된 순간 이동 스크롤에 피 한 방울을 떨어뜨린다. 피가 떨어진 곳에 은색 나침반이 드러났다가 사라진다.엄지로 피를 냈던 곳을 문지른다. 말끔히 지워진 흔적을 재차 확인하며 스크롤을 잘 말아 묶어 인벤토리에 넣었다.수치심을 내어주고 얻은 두 개의 스킬 보관석이 책상 위에서 반짝인다. 주윤별은 다시는 스킬 고유 시동어를 읊는 일이 없길 바라며 서랍을 뒤척였다.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많았으니 굴러다니는 포장지 두 개쯤은 있겠지. 세 번째 칸에 화구와 함께 있는 포장지 묶음을 집어 든다.양면이 모두 투명인 것과 한쪽 면은 투명색이고, 반대쪽은 불투명한 분홍색인 것, 투명하지만 작은 하트가 총총 박혀있는 것.크기부터 모양까지 다양한 포장지들에 제 기억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작은 선물을 넣기엔 지나치게 커다란 포장용 봉투가 보였다.그는 스킬 보관석만 포장하려던 생각을 철회하고 스크롤까지 다시 꺼내 들었다.‘어차피 같이 줄 거, 한 번에 포장해서 주면 되겠지.’가장 큰 포장용 봉투 두 개의 입구를 벌린다. 그 안에 순간 이동 스크롤을 각각 두 개, 세 개를 나누어 담은 후, 스킬 보관석을 하나씩 담았다. 빵 끈으로 질끈 묶는 것으로 포장을 마친 윤별이 의자에서 궁둥이를 뗐다.그날, 주윤별은 정선혜가 신발을 벗자마자 순간 이동 스크롤을 세 개 넣은 포장 봉투를 내밀었다.“이게 뭐니.”“엄마. 요즘 세상이 흉흉하더라.”뭐냐는 질문에 하라는 대답은 안 하고, 세상이 흉흉하다는 말이나 조잘댄다. 정선혜는 한숨을 내뱉으며 벗은 구두를 신발장 안에 집어넣었다.“그래서 그게 뭔데.”“스킬 보관석하고 순간 이동 스크롤. 무슨 일 생기면 보관 석에 담아둔 스킬 먼저 사용하고, 스크롤 뜯어서 나한테 도망 와야 해. 스킬은 보호 스킬이야. S급까지는 다 막아줄 수 있고…. 아, 기분이 쎄해도 일단 써. 촉은 조상님이 눌러주는 레드라이트라더라.”“엄마도 보호 아티펙트정도는 있어.”“그거 구리잖아…….”직장에서 제공해준 게 좋으면 얼마나 좋다고. 입술을 삐죽인다. 주윤별은 안방으로 향하는 정선혜의 뒤를 졸졸 쫓았다.“이미 스킬 담았단 말이야…. 이미 나한테 오게 좌표 설정도 다 했단 말이야….”불쌍한 척 조금만 하면 홀라당 넘어와 주던 정선혜를 떠올리며 낑낑댔다. 엄마아―. 말꼬리를 길게 늘어트리기까지 하자, 정선혜가 뒤돌아섰다.“일단 엄마 옷 좀 갈아입고 씻자. 응?”여름이라 찝찝해 죽겠다는 얼굴이다. 주윤별이 유순히 고개를 끄덕였다.개봉까지 8년 정도 남은 영화에서 본 레시피로 에그 샌드위치를 만든다. 빵을 굽고 그 위에 세 개의 재료를 차곡차곡 얹는다. 계란, 치즈, 약간의 핫소스. 벌써부터 입 안에 침이 고인다. 윤별은 식탁 위에 샌드위치를 올려둔 다음, 안방 문에 찰싹 달라붙었다.“엄마! 샌드 위치했는데, 샌드위치랑 뭐 마실 거야?”쏟아지는 물줄기 틈으로 커피라는 단어가 들린다.“엄마 카페인 중독이야!”비명 지르 듯 소리친 윤별이 모카포트 안에 분쇄 원두를 넣었다. 오른손으로는 손잡이를 붙잡고 왼손으로는 모카포트의 바닥을 감싼다. 이능력자 생활 7년이면 온도 조절쯤이야 식은 죽 먹기다.모카포트 위에 김이 서리자, 에스프레소가 추출되는 소리가 났다.헤이즐넛 시럽 두 펌프와 모카포트로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잘 젓는다. 헤이즐넛 시럽 특유의 향긋한 단내가 코끝에 달라붙는다. 냉동실에서 꺼낸 얼음까지 잔뜩 집어넣는다. 저녁에 마시기엔 과한 양이었지만, 또 스탠드를 켜고 앉을 게 뻔한 사람의 것이니 괜찮을 듯싶었다.“웬일로 요리야?”식탁 의자에 앉은 정선혜가 제 앞에 놓인 샌드위치를 응시하며 물었다.“언젠 샌드위치는 요리 아니라며.”“그거야 그렇지만. 웬일로 재료 조합했냐고 물을 수는 없잖니. 아무튼 잘 먹을게.”축축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긴다. 윤별은 제 엄마가 샌드위치를 입에 무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제 것을 집어 들었다.윤별은 식사를 끝마치자마자 정선혜가 끼고 다니던 아티팩트를 얻어냈다. 얇은 끈에 매달려있는 펜던트 속에 스킬 보관석을 밀어 넣는다. 엄지손톱보다 작은 펜던트는 저보다 열 배는 커다란 스킬 보관석을 삼키자마자 색을 뒤바꿨다. 금색과 검은색이 뒤섞여 오묘한 색상이 된 펜던트를 보며 정선혜가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다.“색은 이게 더 마음에 든다, 얘.”“그거참 다행이네.”윤별이 펜던트의 색을 확인하며 긍정했다.[작품후기](\*•̀ᴗ•́\*)و ̑̑ 선추코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오늘도 선생님들이 남겨주신 코멘트 읽고 좋아서 책상에 이마 박았답니다.TMI.김당근 씨는 게임에서도 채작만 하는 진성 생활러입니다. 게임에서 쓰는 닉네임은 당근당근이나 사과당근이에요.당근당근을 선점당하면 사과당근을 사용합니다. 김당근 씨는 당근을 사랑하는. 반달가슴곰같이 생긴 성인 남성입니다.+) 위에 나온 에그 샌드위치는 할리 퀸의 퍼펙트 에그 샌드위치입니다!^^^퇴행하는 여름검은색 케이스를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한다. 김당근이 심혈을 기울여 가공한 피어싱이 얌전히 반짝이고 있다. 김당근 이 아저씨는 센스가 좋아도 너무 좋다. 어쩜 이렇게 반지 케이스 담아주는지. 주는 사람 부담스럽게 왜 이러는 걸까. 주윤별은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케이스를 열었다. <찬연한 속삭임>이 내비치는 푸른색은 공유진의 눈동자와 비슷한 구석이 있다. 그러니 그 예쁘장한 귀에 매달려도 손색없이 어울릴 게 뻔하다. 결국 케이스 채로 인벤토리 안에 넣은 주윤별이 기지개를 켰다.주윤별은 살갗에 닿는 습한 공기에 미간을 좁히며 능력을 사용했다. 살갗 바로 위를 범위 지정하여 이능력을 발현한다. 급격히 높아진 온도가 불유쾌한 습기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는 건조한 공기가 채워진다. 불계열 이능력자에게도 견디기 어려운 습도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날씨를 어떻게 견디는 걸까. 그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며 발을 옮겼다.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시작으로 헌터 커뮤니티까지 훑어내린다.- <BEST> 1위는 실존하는 인물인가※스압주의※- 서울 신던 같이 가실 헌터 있음?(B급 팟)- 회오리 감자 색 뭐냐- 고정팟 탱커 구함온갖 구인과 정보글, 헛소리로 점철되어 있다. 그는 생활의 탑을 회오리 감자라고 표현한 헌터의 닉네임을 보며 손을 들어 하관을 가렸다.오, 주여.주윤별은 비공개도 아닌, 닉네임을 그대로 노출한 헌터의 패기에 삼가 조의를 표했다.헌터로 일하는 이능력자라면 꼭 한 번은 생활의 탑을 이용하게 될 텐데, ‘회오리 감자’라는 단어 한 번 쓰고 바가지만 옴팡쓰게 될 게 뻔하다. 안타까움에 혀를 차며 저 패기 넘치는 헌터와는 사적으로 얽히지 말아야지. 같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다.발은 저절로 익숙한 길을 걸었다. 고개를 한 번씩 들어 올릴 때마다, 점점 그 애에게 가까워지고 있다. 주윤별은 불그스름한 노을이 내려앉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며 스마트폰을 굳게 쥐었다. 신발과 복도 바닥이 마찰하며 가벼운 소리를 낸다. 그는 제 발소리가 쓸데없이 가볍다고 느꼈다.그 쓸데없이 작고 가벼운 소리에도,“안녕, 윤별아.”책상에 걸터앉아 책을 읽던 공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남자의 울대뼈가 울리는 소리가 나른하다. 그저 단순한 인사일 뿐인데도 간질간질해지려는 소리였다. 가만히 바라보자, 공유진은 왼쪽 다리부터 뻗었다. 교복바지는 붉은 노을빛에 물든 복사뼈를 가렸다. 그가 두 발로 교실에 바르게 서는 것을 구경하듯 바라본 주윤별이 턱을 치켰다. 노을이 내려앉은 교실 바닥을 걷는다.“유진아.”“응?”가볍게 부르는 목소리에도 공유진은 슬쩍 허리를 굽혔다. 눈높이를 맞추는 이를 향해 주윤별이 입꼬리를 시원스럽게 끌어올렸다. 주윤별은 입술을 여는 대신, 인벤토리에서 액세서리 케이스를 꺼냈다. 달칵거리는 소리와 함께 케이스가 열린다. 그는 검붉은 공단 위에서 반짝이는 피어싱을 슬쩍 건드렸다. 금속 특유의 서늘함이 손끝을 감는다.케이스 그대로 선물하는 게 정석이라는 건 아는데.공유진의 눈동자가 미동도 없이 계속 제 눈에 고정되어있어서. 주윤별은 피어싱을 뽑아 들고 왼손으로는 공유진의 뺨을 감쌌다.갑작스러운 접촉에 턱이 움찔거리는 게 느껴졌다. 얌전히 음성을 기다리던 이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린다.“그대로, 가만히 있어 봐.”주윤별은 그대로 공유진의 귓불에 피어싱을 가져다 댔다. 뚝. 살이 꿰뚫리는 소리가 숨이 섞인 곳에 닿았다. 생산계 이능력자가 가공한 피어싱은 매끈한 귓불을 뚫고 안착했다.예고없이 찾아온 통증에 파르르 떨리는 속눈썹 속 눈동자. 붉어진 귓불을 장식한 <찬연한 속삭임>. 생각보다 더 완벽하게 어울렸다. 주윤별은 남자의 푸른 눈을 바라보며 입술을 뗐다.“예쁘다.”지나칠 정도로. 흔들리는 눈동자조차도.바짝 붙어있던 몸을 뒤로 물린다. 뺨을 감싼 손을 떼어내자, 그 애가 보였다.정처 없이 흔들리던 눈동자가 윤별을 향하고 나서야 굳건해진다. 공유진의 모양 좋은 손이 주윤별의 흔적 위를 덮는다.“응.”“좋아해.”덤덤히 고개를 끄덕이려는 공유진을 향해 주윤별의 혀끝이 제멋대로 움직인다.초여름의 공유진이 제발 자신을 피해달라 말했던 것을 잊은 것처럼. 계절이 뒤바뀌지도 않았는데도 노력은 벌써 여름의 열기에 녹아있어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에 공유진이 눈부실 정도로 환하게 웃었다. 발갛게 달아오른 눈시울과 젖은 속눈썹으로. 그저 그렇게 울듯 웃는 얼굴에 심장에 돌덩이가 내려앉는다.귓불을 만지작거리는 공유진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은 주윤별이 입술을 짓이겼다.“너에게 연애하자고 말한 건 아니야.”얼마 남지 않은. 최소한의 양심을 꺼내어 말을 잇는다.“내 감정은 오로지 내 감정이니, 너는 신경 쓸 필요 없어.”몸뚱어리는 열아홉일지라도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물여섯이었다. 감정을 무 자르듯 잘라낸다거나 먼지 털어내듯 툭툭 털어내진 못하더라도, 제 감정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을 수 있는 나이였다.푸른색 눈에 고인 물기가 다른 데에 번질 것만 같다. 주윤별은 공유진의 젖은 속눈썹에 엄지를 가져다 댔다. 눈두덩이나 눈동자에 닿지 않도록 살살 문질러 물기를 제거한다. 지문에 고인 타인의 눈물이 불쾌하지 않다는 게 신기했다.“잘 어울리네.”텅 빈 액세서리 케이스를 닫는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공유진이 입술을 움찔대는 게 보였다.“너에게 대답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럼 유진아. 개학하고 보자.”제 할 말만 하고 뒤돌아선다. 재빠르게 학교에서 빠져나온 주윤별이 뒤를 힐끔였다.하늘색이 변하며 건물도 새로운 색의 옷을 입고 있다. 뒤쫓아오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기껏 포장해둔 스킬 보관석과 순간 이동 스크롤은 생각도 못 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주윤별은 손바닥에 제 얼굴을 묻었다.‘아니 근데. 사람이 그렇게까지 예뻐도 되는 건가?’공유진이 그렇게까지 안 예뻤더라면 준비했던 보호장치를 마저 줄 수 있었을 거고, ‘혹시’와 ‘설마’로 감춰두었던 감정이 불쑥 고개를 치키지도 않았을 거다. 홧김에 꺼내진 짧은 문장 하나가 머릿속을 떠다닌다.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하면 그것만 생각난다는 말에 주윤별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떠올렸다. ……일하는 엄마의 뒷모습, 프랜차이즈 카페의 티라미수, 옆 동네 베이커리의 크로크무슈, 민트색 자전거, 제비꽃 향 샴푸, 집 가는 길에 먹는 치어팩 아이스크림, 그 애의 웃음, 그 애가 내는 음성. 사소한 사랑하는 것들 위에 공유진이 자리 잡는다. 과거로부터 온 첫사랑이 현재가 되어 머릿속을 가볍게 휘젓는다.“망할.”몇 번이나 망할을 읊는지 모르겠다. 손바닥에 억눌린 소리가 좁은 틈을 비집고 빠져나왔다.[작품후기]( ⁎ ᵕᴗᵕ ⁎ )선추코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현생에 치여서 못 온 사이에 세상에, 저는 선작과 코멘이 이렇게 쌓여 있을 줄은 몰랐어요....심지어 플레이하는 게임에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전자 멍멍이가 펫으로 나왔다기에 눈 돌아간 요 며칠... 정말 민망합니다8ㅅ8오늘 업데이트하는 분량이 너무 짠데, 여기서 딱 끊어야 깔끔하겠더라고요!다음 편은 오늘보다 더 많이 써서 들고 오겠습니다o(〃＾▽＾〃)oTMI.주윤별의 학창 시절 별명은 주윤발입니다.친한 남학생들이 놀리듯 윤별 따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주윤별 - “못생긴 동생은 둔 적 없다.”).+) 제 이마는 아주 튼튼하답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uu^^^어린양의 이름서울에서 터진 던전브레이크에 커뮤니티가 떠들썩하다. 같이 행동할 소규모 파티를 구하는 사람들, 던전브레이크 전문 길드라며 길드를 홍보하는 사람, 블랙리스트 정보를 뿌리는 사람, 그리고 소모품을 파는 생산계 이능력자들까지.주윤별은 글쓰기 버튼을 누른 뒤, 양 엄지를 움직였다.==================================================[ @@@@볼룬드철괴 삽니다@@@@ ]작성자: 물리볼룬드가 제련한 철괴 삽니다.있으신 분 제발 쪽지나 덧글 좀 남겨주세요. 제발…제발….서울 던브 앞에서 직거래도 가능합니다.목록 | 댓글(+99)국밥한그릇뚝딱: 형이 왜 여기서 나와?김밥바라밥: ??????? 형 저랑 파티하싈?ㄴ강강수워얼래: 나도껴줘ㄴ아이마스크: 나도껴줘2222333333333333강강수워얼래: 형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왜 우리 앞에 안나타나줘?카쓰: 볼룬드 철괴 얼마에 사세요?ㄴ소낙비: 볼룬드 철괴 있긴 함?ㅋㅋㅋㅋㅋㄴ카쓰: ㅋㅋ없음~~~~백화유: 형 이런건 거게에 올려야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ㄴ유채꿀꿀: 여기 거게야ㅠㄴ백화유: 그냥 말걸어보려는거잖아ㅡㅡ 눈치챙겨~ㄴ유채꿀꿀: ㅇㅋ형 이런건 자게에 올려야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순식간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왜 자꾸 형 찾고 난리냐고 입술을 비죽였다.물리: 누가 형인데제 글 아래에 댓글을 달자, 그 아래에 달갑지 않은 웃음들이 하나둘씩 떠오른다.멋있게 망한 거래글을 내버려 둔 채 목록으로 되돌아간다. 삽니다와 팝니다로 뒤섞인 글을 훑으며 필요한 아이템이 있는지 확인을 끝마쳤다.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광화문 광장에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든 사랑하는 위인 두 명의 동상이 있다. 그중 충무공 이순신 장군 앞에 던전브레이크가 터졌다. 거대한 검은색 원과 그것을 감싸는 황금빛 일렁임이 충무공 동상의 반을 가리고 있다.주윤별은 종각역에서 내리자마자 길을 따라 쭉 걸었다.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들은 간이 매대를 깔고 광화문 광장에 모인 헌터들에게 약간의 물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주고 있었다.길게 늘어진 줄을 보며 순간 질린 낯이 된 윤별이 주머니 속에서 레몬 맛 사탕을 꺼내물었다. 적당히 달고 적당히 시며 적당히 상큼한. 혀로 둥근 사탕을 데굴데굴 굴리며 녹여 먹다 보니 어느새 매대가 코 앞이다.디바이스 속 숫자 여섯 자리를 비치된 흰 종이 위에 숫자를 적어 내린다.1, 8, 2, 1, 0, 1. 또박또박 적은 다음, 앞 사람을 따라 한 발짝 걷는다.“안녕하세요.”눈 아래가 거뭇한 공무원이 허리를 굽혔다.“네, 안, 녕하세요.”다리 옆에 둔 박스 속에서 쇼핑백 하나를 꺼내며 눌린 음성으로 맞인사한 남자가 간이매대를 붙잡으며 허리를 편다. 윤별은 곧장 쇼핑백을 건네주는 공무원을 향해 고개를 가볍게 숙였다.“감사합니다.”“공략 힘내세요.”던전브레이크 공략이 실패해서 또다시 이곳에 나올까 걱정되는 마음이 담긴 인사였다. 윤별은 작게 웃고는 고개를 끄덕였다.매대 앞에 늘어진 줄은 아직도 길었다. 그는 쇼핑백 속의 에너지바를 입에 물고 디바이스를 만졌다.<개인정보 일부 공개 되었습니다(범위: 닉네임).><같은 던전 내, 헌터 디바이스 유저들에게 당신의 닉네임 ‘물리’가 공개됩니다.>설정을 바꾸자마자 ‘익명(UNKNWON)’으로 재변경하고 싶었다. 딱 한 번만 누르면 다시 익명이 될 수 있을 텐데. 에너지바를 씹어 삼키며 왼손을 내렸다.아무것도 없는 광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리듬 게임을 하던 윤별이 일시 정지버튼을 눌렀다.“……티 없으시면 저희랑 같이 다니실래요?”개수작 부리는 음성에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세 명의 남녀 무리가 혼자 서있는 남자에게 자신들의 계열을 읊어대며 동행할 것을 제안하는 게 보였다. 남자는 고개까지 끄덕이며 그들의 말을 열심히 경청 중이었다.“저기요.”윤별이 불쌍한 뉴비 한 명을 구제해주자는 마음으로 목소리를 냈다.“아, 그쪽도 혼자예요? 우리랑 같이 다닐래요?”서글서글한 인상의 여자가 어서 오라며 손을 파닥인다.“그쪽이 말 건 사람은 제 일행이라. 아무튼 제안은 감사한데 저희는 둘이서만 파티 할거라서요.”재빠르게 걸어가, 얼굴도 못 본 남자를 제 뒤에 세운 윤별이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을 쑤셔 넣었다.“모쪼록 던전에서 좋은 아이템 얻으시길 바랄게요. 뭐해요, 갑시다.”친근한 척 손등으로 남자의 팔뚝을 건드리고 먼저 걷는다. 일정한 간격으로 따라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념비 쪽으로 향했다.“그쪽은 각성한 지 얼마 안 돼서 던브 공략신청하신 것 같은데, 던브 앞에서 파티 구하는 사람 중에 유독 질 나쁜 사람들 많아요. 뒤통수 맞고 울며 커뮤니티에 글 쓰는 사람들 많은 거 못 봤어요?”작게 속삭이던 윤별이 걸어온 거리를 가늠하고 나서야 걸음을 멈췄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뒤를 졸졸 쫓아온 뉴비를 향해 ‘신입 헌터를 위한 안전한 던전생활 A to Z’를 읊어주기로 마음먹었다.뒤돌아선 주윤별이 고개를 들어 저보다 키가 큰 뉴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검은 머리카락과 창백하리만치 흰 얼굴. 가늘고 긴 눈매 속의 눈동자는 황금색이었다. 지나치게 익숙한 얼굴에 윤별이 제 계획을 깔끔히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마법 소녀, 안녕?”“너 새끼가 왜 여기 있냐.”멀쩡한 평상복차림의 파사가 느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내가 뉴비를 구한 게 아니라 망할 구렁이 새끼에게서 어린양 셋을 구했네. 이미 사라진 시간의 흑역사가 생각나서 착한 짓 좀 하려 했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맞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튀어나오려 한다.금방이라도 알루미늄 배트를 꺼내 들려는 윤별을 향해 파사가 손을 내저었다.“잠깐만. 나 오늘 재밌는 짓 하러 온 거 아닌데?”“그럼 여기 왜 왔는데?”지성인 헌터는 자고로 빌런의 말도 한 번쯤은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주윤별이 미간을 좁힌 채 파사를 응시했다.“템 구하러 왔지. 마법 소녀는 바보야?”“뒤질래, 진짜?”“저번에도 안 뒤졌는데. 나 이번엔 템만 구하고 갈 거니까 신경 꺼, 마법 소녀야.”“너라면 너 같은 새끼를 방생할 수 있겠냐.”저거를 방생하면 무수히 많은 피해자가 나타날 테고, 그 피해자들이 던전을 돌지 않으면 풀리는 아이템도 적어질 것이다. 윤별은 사익과 공익을 위해 제 위 건강을 포기하기로 했다.“넌 나랑 다닌다.”“내가 왜?”“아니면 여기서 뒤지시든가.”“너 정말 극단적이고 재밌는 애구나?”“시끄러워.”빠르게 일갈했다. 파사는 입술을 벌려 짧은 웃음을 터트린 다음, 윤별에게 바짝 붙어섰다.“뭐. 마법 소녀는 재밌으니까 괜찮겠네. 좋아. 같이 다니자.”“떨어져.”“같이 다니자며―?”“같이 다니는거랑 붙어 다니는거랑 다르거든.”온갖 욕들이 혀에 달라붙는다. 주윤별은 움찔대는 혀를 깨물었다.✤ ✤ ✤둘은 검은 원 앞에 섰다. 주윤별은 제가 붙잡은 남자의 손목을 고쳐 쥐었다. 선빵치는 순간 너는 죽은 목숨이다. 입장을 기다리며 그는 머릿속으로 온갖 일들을 시뮬레이션 돌렸다. 흉흉한 생각을 하는 윤별과는 달리, 파사는 그저 재밌겠다며 눈꼬리를 휘어트렸다.[던전 입장 시, 기습에 주의하십시오.]던전 입장 메시지가 떠오른다.[매드사이언티스트의 연구소(등급:A)에 입장하였습니다.]윤별은 느릿하게 주변을 둘러보는 파사를 잡아끌었다. 입구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음 파티가 입장했다.“그런데 마법 소녀는 왜 여기 있어? 학생이잖아?”인천사는 학생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일찍도 물어본다.”“그치?”“나도 구할 아이템 있으니까 왔지.”새하얀 연구소 단지를 외벽을 확인하는 무리를 지나친다. 윤별은 가장 커다란 건물의 문을 열어젖혔다. 외벽과 달리 검은 내부에는 음울한 기운이 넘실대고 있다. 천장 모서리마다 달린 오렌지색 조명만이 벽을 밝히고 있었다.오.짧은 감탄을 흘린 파사가 제 그림자 속에서 검고 푸른 뱀을 소환해냈다.“마법 소녀야, 다른 사람 집에 갈 때는 노크를 해야지.”스르륵―. 뱀이 움직이는 방향에서 푸른 불꽃이 피어올랐다. 한때 생명체였을 것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터졌다.“여기 있으니까 다 튀어나오라는 의도로?”“당연하지. 그게 재밌잖아?”파사의 뱀이 푸른 꼬리로 연구소 벽을 두드렸다. 쾅, 쾅, 쾅. 묵직한 노크에 잠들어있던 것들이 깨어났다. 주윤별은 서서히 다가오는 기척에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쟤랑 던전 들어갈 뻔했던 셋은 나한테 절해야 한다, 진짜. 확실히 어그로 끄는 파사의 뒤통수를 내려치고 싶었다. 윤별은 인벤토리에서 알루미늄 배트를 꺼내 들었다.기괴하게 이어붙인 것들이 제가 한때 가졌던 것을 갈구하기 시작했다. 호흡기관을 통해 멀쩡히 호흡하고 있는 생명체를 향한 열망은 지독한 독이 되어 흘렀다.[‘창조된 괴물’이 폐 속에 담긴 안개를 내뱉습니다.]잿빛 안개를 내뱉는 괴물의 머리통을 향해 알루미늄 배트를 휘두른다.깡―!!괴물의 머리통이 돌아간다. 살아있는 생명체였더라면 돌아가지 않았을 각도까지 돌아간 머리통에서는 끊임없이 안개가 쏟아져나왔다.“마법 소녀, 나이스 샷!”정확히 손뼉을 여섯 번 친 파사가 즐거워서 못 견디겠다는 얼굴로 웃었다.“네가 불러왔으면 책임을 져야지!”“책―임―? 정말 재밌는 단어네.”울컥 화를 내는 주윤별의 목소리에 황금빛 눈동자가 반짝인다. 그는 팔짱을 끼고 짧은 비음을 흘렸다.“흠…. 책임지는 것보단 널 구경하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뱀이 주둥이를 쩍 하니 벌리더니, 슬금슬금 다가오던 괴물을 삼킨다. 푸른 몸통으로 또 다른 괴물을 칭칭 감는 것을 보며 윤별이 야트막한 한숨을 내뱉었다.‘나는 파티플이 아니라 솔플을 하러 온 거다. 난 솔플을 하러 온 거고, 저 새끼는 방해꾼이자 구경꾼 1 정도다.’체온에 미적지근해진 알루미늄 배트를 굳게 쥔 윤별이 이를 악물었다. 시전자의 의지에 따라 마력은 산소를 먹어 치우고 그 자리에서 불꽃을 피워냈다. 검은 벽지가 얼룩덜룩해질 정도로 많은 불꽃이 술렁이는 것을 보며 피곤한 눈가를 비빈다.“너 진짜 거지 같아.”<액티브 스킬, ‘추격(A)’을 사용합니다.>불꽃이 회전한다. 구슬처럼 동그랗게 변한 불덩이가 유려하게 움직인다. 손끝과 시선 끝에 걸리는 모든 것들을 향한다.그워어어어!팔 대신 날개를 달고 있던 괴물의 성대에서 낮은 비명이 터진다. 꿰뚫린 날개에서는 불길이 일었다. 파사의 주변을 맴돌던 뱀이 추락하는 괴물을 향해 아가리를 벌렸다.“그거참 아쉽네. 난 마법 소녀가 화내는 것도 재밌어서 좋은데.”떨어지는 것을 응시하며 불꽃을 거둬들인다. 남자의 아쉬움 하나 담기지 않은 목소리가 멎자, 뱀이 주둥이를 닫았다.[작품후기]ଘ(੭ˊ꒳ˋ)੭✧오늘도 선추코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코멘과 쪽지로 물어봐주신 몇몇 분이 계신데...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기성작가가 아닙니다(머쓱자급자족을 위해서 가벼운 글 조금 쓰는게 취미랍니다:^)TMI.현재 파사는 가발 아이템(외압으로 떼어내기 어려움. 생산계 장인의 작품)을 착용하고 있습니다.가발 아이템은 흑발 시스루 애즈펌 스타일입니다.^^^짧은 공지글안녕하세요, 선생님들!8월의 시작을 깁스와 함께하게 되어 강제로 잠수탔던 한재이입니다( ´•̥-•̥` )어제 깁스를 풀고 다음 편을 쓰고 있지만, 아무래도 3주나 지나버린 상태이기에 이렇게 짧은 공지글 남깁니다!다음 편은 이르면 일요일 밤, 늦어도 수요일 전에 업데이트 됩니다Ｔ▽Ｔ 꼭... 수요일 전에 뵙겠습니다!+) 코멘트 앞에 '@'을 달아주시면 다음 편 후기에 리코멘트하겠습니다uu궁금한 내용이거나 전달해주실 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을 달아주세요!다만, 본문에서 공개될 경우 등은 답변하기 어려운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8ㅅ8^^^어린양의 이름어그로만 끌고 손 떼버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파사는 퍽 많은 괴물을 쓰러트렸다. 거대한 뱀이 움직일 때마다 연구소 안은 괴물이 흘린 체액과 알 수 없는 액체로 흥건해졌다.파사가 엄지로 제 턱 끝을 매만지더니 짧은 비음을 흘렸다.“이상하네….”“뭐가?”“A급이라기엔 너무 쉽지 않나?”눈을 가느스름히 뜨고 주변을 살핀 윤별이 연녹색 액체로 흥건해진 연구소 한구석을 응시한다. 오렌지색 조명이 얇은 선들을 설핏 드러냈다 감추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는 곧장 야구 배트에 묻은 액체들을 털어낸 후, 불꽃을 띄웠다. 오렌지색과 푸른색이 엉기며 사위가 밝아진다.‘내 영혼에는 사랑으로 가득했다. 악마의 모습과 절망과 증오가 뒤엉킨 모습이 눈앞에서 오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 채.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했다.’연구소장의 사랑으로 가득했던 것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모르겠다.“망했다.”어쩐지 A급인데도 출현 몬스터들이 지나치게 허약하다더라니…. 일반 던전이 아니라 스토리형 던전이었나보다. 5분 정도만 살폈어도 알 수 있었을 거라는 사실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그가 팔을 쭉 뻗고, 제가 읽은 문장들을 가리킨다.파사의 눈동자가 윤별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느리게 움직인다. 살갗에 뱀 한 마리가 느리게 기어가는 느낌이 들자, 한쪽 눈썹이 절로 추켜 올라갔다. 이윽고 황금색 눈동자가 회색 눈동자와 같은 곳에 닿는다. 사랑으로 가득했다. 마지막 온점까지 읽은 파사가 그대로 손바닥으로 제 하관을 가렸다.“너무….”갑자기 웬 너무? 뜬금없는 부사에 윤별이 파사의 옆얼굴을 바라보았다.“너무 맘에 드네…….”그는 즐거워서 미치겠다는 얼굴로 문장을 곱씹었다.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해서 만든 게 ‘창조된 괴물’이라니. 짧은 노크에도 쏟아져나오는 괴물들의 숫자를 떠올린 남자의 뺨에 붉은기가 올라왔다.한껏 상기된 얼굴의 파사가 연구소 곳곳을 둘러보는 것을 응시하며 한숨을 삼켰다.‘저 또라이.’빤히 바라보는 시선에도 꿋꿋하다. 윤별은 고개를 가볍게 내저었다. 죄질이 나쁜 빌런 몇몇의 뇌를 한번 까보고 싶다. 머리통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하나같이 저런 헛소리만 지껄이는 걸까. 남자가 허튼짓하지 않도록 감시하며 그 역시 연구소 안을 살폈다.검은 벽 주변에 작은 불 여럿을 띄운다. 일렁이는 불꽃은 조명이 되어 벽에 음영을 만들어냈다.벽면 구석에 특이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는 게 눈에 띈다. 과학자가 그려냈다고 말하기엔 지나치게 비과학적이고 이상한. 흡사 마법진에 그려질 법한 문양에 윤별이 미간을 좁혔다. 어설프게 팔짱을 끼고 왼손으로 오른 팔뚝을 가볍게 두드린다. 소지부터 검지까지. 일정한 템포를 가지고 움직이던 손끝이 멎는다.“야.”“마법 소녀야.”두 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얽혔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친 후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윤별이 여러 개의 불을 압축한다. 압축된 불은 곧장 알루미늄 배트와 액티브 스킬, ‘추격(A)’에 휘둘려 문양을 향해 날아갔다. 벽과 불이 부딪치며 내는 굉음을 들으며 파사는 거대한 뱀을 제 그림자 속에 집어넣는 대신, 작은 뱀 여럿을 소환했다. 작은 뱀들이 꾸물대며 바닥을 긴다. 창조된 생명체들을 피해 작은 문양을 찾아 이를 박아넣는다. 연구소 내의 모든 문양이 훼손된다.중앙계단에 문장이 쓰이기 시작한다.‘누가 감히 사랑을 사랑이라 말하지 않는가.’이리저리 흔들리며 적힌 글씨 주변에 다시 한번 문양이 그려진다. 오른손이 쥐고 있던 알루미늄 배트로 바닥을 내려찍는다. 질펀한 바닥에 푸른 불길이 인다. 몸뚱어리를 넓혀가며 모든 액체를 증발시키고 이물질과 잔여물을 태운다.파사는 제 신발 밑창에 달라붙은 액체를 털어내다가, 미간을 좁히며 인벤토리에서 물병을 꺼내 들었다. 생수를 바닥에 뿌린다. 불의 온도에 생수가 기화되기 전에 그곳에 제 신발을 문질러댄다. 깨끗했던 생수가 오염되고, 그 위에 불길이 지나간다. 말끔해진 연구소에 콧노래를 흥얼대며 발바닥을 뗀다. 그림자가 꿈틀대고 더욱 어두워진다.[연구소 A-302가 침입자에 의해 자동폐쇄됩니다.]....? A-302가 어딘데?주윤별이 파사에게 턱짓했다.“나도 몰라.”경쾌한 목소리에 윤별이 입술 틈으로 얄팍한 한숨을 뱉었다.[연구소 A-104가 침입자에 의해 자동폐쇄됩니다.][연구소 A-404가 침입자에 의해 자동폐쇄됩니다.]...[A구역 연구소가 막대한 피해를 얻었습니다. 연구소장, 글록시니아가 이 사실을 눈치챕니다.]파사가 느리게 눈을 끔벅이더니 코끝을 찡긋거렸다.“마법 소녀야.”“어.”“이거 망한 거지?”“네놈이 노크할 때부터 망했었어. 나가자.”시큰둥한 얼굴의 윤별이 연구소를 둘러본 뒤, 등을 돌렸다.구름 한 점 없는 여름날의 하늘 대신, 어두운 보랏빛이 내려앉아 있다. 새하얀 연구소단지를 보라색으로 물들인 빛이 점점 짙어진다. 그 음울에 연구소 바깥으로 나온 헌터들이 한곳에 모이기 시작했다.이게 무슨 일이냐며 웅성거리는 무리와 떨어져 선 윤별이 던전에 입장했을 때와 달라진 게 있는지 살피기 시작했다.[A구역 연구소가 폐쇄됩니다. 연구소 내부에 약물이 살포됩니다. 돌발 사고에 주의하십시오.][연구소장, 글록시니아가 모든 구역의 연구소를 폐쇄합니다.][던전, ‘매드사이언티스트의 연구소(등급:A)’ 클리어에 실패하셨습니다!][던전에서 쫓겨납니다.]여러 개의 팝업이 순차적으로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마지막으로 퇴장 진행 장소가 아닌, 쫓겨난다는 문구가 출력되었다. 스토리형 던전 클리어 실패하면 쫓겨난다는. 알고 싶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윤별이 짧은 감탄사로 욕을 내뱉었다. 광화문 광장에 방출된 헌터들 역시 그와 비슷한 소리를 냈다.“너, 또 신청 할 거야?”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인벤토리 안에 넣으며 물었다. 파사는 헌터 전용 디바이스의 설정을 만지며 입꼬리를 끌어당겨 웃었다.“아-니.”필요한 아이템을 구하러 왔다던게 떠올랐다. 윤별이 의심어린 눈으로 파사의 입꼬리를 노려보자, 그는 어깨를 으쓱였다.“왜.”“필요한 걸 구했으니까 그렇지?”의뭉스럽게 웃던 남자가 말을 이었다.“우리 애의 귀중한 식량 말이야.”‘창조된 괴물’들을 열심히 삼키던 거대한 뱀과 ‘우리 애’라는 대명사와 명사 두 개의 둥근 발음. 주윤별이 부조화와 조화에 질색했다.“그럼 얼른 꺼져.”광화문 광장이라는 귀한 장소에 볼 일 다 본 누추한 빌런이 있다는 사실에 절로 본심이 튀어나왔다.“뭐?”“세종대왕님과 이순신 장군님께서 못 볼 꼴 더 보시기 전에 꺼지라고.”보통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저 멀리 보이는 세종대왕님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께서 좋은 것만 보시기를 바라지 않나. 그러니 빌런이라면 이 구역에서 사라져야만 한다. 응당 해야 할 말을 했다는 얼굴이다. 파사는 황금빛 눈동자를 가느스름히 뜨고 제게 조잘대는 윤별을 바라보았다.“마법 소녀야.”“부르지 말고 빨리 꺼져라.”“내 이름은 단해준이야.”뜬금없는 자기소개였다.“네 이름 물어본 적 없는데.”“나도 한국인이거든?”다른 빌런들과 팀업해서 은행도 털고, 제가 다녔던 대학교도 부숴보고, 차도에서 그의 우리 애에 앉아 레이싱-물론 차도에 있던 차주들의 의견은 듣지 않았다-도 벌였지만. 적어도 어린아이와 위인들을 건드는 몰상식한 인간은 아니었다.“어쩌라고.”물론 빌런과 몬스터들에게 차가운 헌터, 마법 소녀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는 국적 어필이었다.파사, 단해준은 검지 끝으로 제 입술을 가볍게 쓸어내린 후 짝다리를 짚었다.“마법 소녀는 또 가?”“아니.”딱 잘라 말했다. 지나치게 빠른 대답이 의심스럽다. 단해준이 쏟아지는 주황색 햇빛에 미간을 잠시 좁혔다. 던전에서 별것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오후다. 해가 이미 지면을 향했으니 곧 검게 변할 게 뻔하다.“거-짓-말-. 착한 청소년은 빨리빨리 집에 들어가야지.”늘어지는 목소리로, 정상적인 성인의 걱정을 읊조린다. 단해준은 얼굴로 말해요를 시행하는 청소년 헌터를 향해 나긋한 소리를 한 번 더 냈다.“난 돌아가서 놀건대, 마법 소녀도 같이 놀래?”제 구역으로 돌아가자마자 사고 치겠다는 예고장에 주윤별은 똥 씹은 표정을 지었다.쟤는 왜 나랑 같은 지역에서 사는 걸까.치밀어오르는 짜증에 심호흡하며 팔을 쭉 뻗었다. 그러고는 곧장 검지로 종각역 방향을 가리켰다.“가자, 가.”와작 구겨진 얼굴의 주윤별을 보며 단해준이 눈꼬리를 휘어 트리며 웃었다.오롯이 주윤별만 불편한 동행이 이어졌다. 클리어하고 나오면 가려 했던 베이커리도 지나친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다. 고소한 빵 냄새가 역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지나쳐온 베이커리가 다시 한번 떠올라서 한숨을 내뱉자, 옆에서 시선이 느껴진다.“뭘 봐.”“마법 소녀는 왜 또 갑자기 한숨일까?”개찰구에 손목을 댄다. 삑―! 커다란 소리가 났다.곧바로 미적지근한 회전식 철봉을 밀며, 남자 앞에서 뜬금없이 한숨을 뱉은 적 있나 떠올리는 척했다. 그걸 하나하나 다 떠올리기엔 오늘 하루 한숨 쉴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 한숨 쉬지 않을 일이 손에 꼽힐 정도였는데 왜 저런 질문을 하는 걸까. 빠른 속도로 계단을 내려가며, 윤별이 단해준을 힐끔 바라보았다.입을 닫고 손발을 꽁꽁 묶어두면 좋을 것 같다. 헛짓거리하기엔 저 껍데기가 너무 아깝지 않나.플랫폼에 나란히 선다. 생물학적 요소였지만, 단해준 보다 작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주윤별은 지금이라도 키 크는 보약 같은걸 지어먹을까 고민하며 뒤늦은 대답을 꺼냈다.“조용히 하고 가면 알려줄게.”스크린도어 속 남자가 매끄러운 미소를 걸친다. 그는 ‘조용히’를 반복해서 읊더니 고개를 끄덕였다.“좋아. 그럼 인천에서 만나자.”“뭐?”윤별이 획 소리 나게 고개를 돌렸다.단해준은 제 그림자 속의 뱀에게 끌어안긴 채, 손을 팔랑였다.[작품후기](/^▽^)/걱정해주시고 또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여러분이 지어주신 파사의 별명... 파사삭... 계속 생각나서 쓸 때마다 웃음 참느라 혼났어요ㅎㅎ건강관리 잘해서 좀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٩(•̤̀ᵕ•̤́๑)૭✧ 빨리 써서 완결 내고 다른 글도 쓰고 싶어요!TMI. 이전에 나온 스토리형 던전은 6~8화의 '뒷동산 복숭아와 개살구'입니다.스토리형 던전은 이번 편처럼 완벽하게 말아먹으면 모두 방출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며, 3회 이상 실패 시 돌발형 던전게이트로 진화합니다.^^^어린양의 이름뒷머리가 엉기기 시작했다.윤별의 손이 머리카락 사이를 파고들었다. 까슬까슬하면서도 부드러운. 꽤나 재미있는 촉감 대신, 매끄럽게 떨어져 내리는 감촉이 선명하다. 신경 쓰지 않을 때는 몰랐던 머리카락의 무게가 갑자기 고개를 치켜든다. 미세한 무게 변화에 어깨까지 결리는 기분이었다. 뒷머리에서 목덜미까지 반복해서 쓸어내리던 윤별이 시간을 확인했다.마감까지 한 시간 정도 남아있긴 했지만, 지금 출발한다면 머리를 가볍게 다듬을 수 있지 않을까.이 시간대면 펌이나 염색하는 사람도 없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몸을 돌렸다.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다. 뉴스란은 불행한 일로 점칠 되어 있다. 옆 나라의 도발, 침체되어가는 경기,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사망, 살해당한 이능력자 등. 누군가의 불행과 사회의 불행으로 가득한 뉴스란에서 유일한 빛은 딱 하나였다. 폐지 주워 생활하는 노인이 떨어뜨린 돈 봉투를 주워서 돌려준 시민들. 댓글까지 따사롭기 짝이 없다.뉴스란을 빠져나온 윤별이 요일을 확인했다. 아무리 바빠도 매주 목요일만 되면 으레 그러했듯, 웹툰 아이콘을 눌렀다.엄지로 액정을 느리게 쓸어올린다. 이미 아는 내용을 또 보면 더 재밌지. 그는 그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선배를 보며 부러움에 몸서리쳤다. 왼쪽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젠장.”짧고 굵은 비속어가 절로 내뱉어졌다. 예민한 기감이 잡아낸 오싹한 기운을 피할 새도 없이 던전이 열렸다.[던전 입장 시, 기습에 주의하십시오.]원하지 않는 입장 메시지가 출력된다. 윤별은 다시금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손에 쥔 스마트폰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굳게 움켜쥐었다.[거인들의 나라, 요툰헤임에 입장하였습니다.]던전이름 옆에 적혀있어야 할 등급이 보이지 않는다. 시야가 확보되자마자 인벤토리 안에 소지품을 모두 집어넣고, 야구 배트를 꺼낸다. 던전을 둘러볼 새도 없이 요란하게 울리는 발소리에 스킬을 발동했다.<액티브 스킬, ‘태산(SS)’을 사용합니다.>―그러하다고 태산이 무너지겠느냐.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리고, 주윤별을 향해 찬연한 빛줄기가 쏟아진다. 단단한 보호막을 두르고 나서야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인다. 던전 내부는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빛이 닿는 부분마다 반짝이는 얼음덩어리가 보인다. 굵은 고드름이 얼음덩어리를 감당하고 있는 던전 안에 절로 미간이 좁혀졌다.‘거인들의 왕, 우트가르드로키’가 걸음을 멈추었다. 우트가르드로키는 제 발목뼈에 닿을락 말락 한 인간을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너무 작은 인간을 밟을까 저어된다는 듯 한발자국 물러섰다. 다행히도 발동해둔 스킬, 태산이 진동을 없애준 덕분에 몸이 들썩거리는 일은 없었다.“너희 인간들은 재주가 대단하다지.”우트가르드로키는 얼음벽까지 진동할 것처럼 커다란 목소리로 말했다.“어디 그 재주로 얻은 명성을 나에게 보여주게.”[퀘스트 ‘거인들의 왕, 우트가르드로키의 다섯 가지 대결’을 제안합니다.]수락 | 거절퀘스트 실패 시, 거인들의 나라에서 재입장이 불가합니다.친절한 문장 한 줄을 보며 윤별이 고개를 젖혔다. 목덜미와 어깨가 결리도록 고개를 들어도 우트가르드로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그건 미드가르드의 인간들이지요.”에다의 신들을 믿고 에다 이야기를 기록하고 영향을 받은 이들은 북유럽인들이니 그쪽에 가서 퀘스트를 내리시오, 거인 양반. 혀끝에 달라붙는 말을 목구멍 안으로 꿀꺽 삼킨다.“너 역시 미드가르드의 인간이 아닌가.”“전혀요.”악 그 자체가 힘인 우트가르드로키와 더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에다에서 얻을 수 있는 볼룬드가 제련한 철괴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으니 어서 던전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그것참 아쉬운 일이야…….”토르도, 로키도, 하다못해 티알피도 없이 다섯 가지 대결에 응할 헌터가 어디 있다고.우트가르드로키가 거대한 손을 움직이자 거센 바람이 불었다. 거인들의 왕이 제 턱수염을 긁적이다가 문을 밀었다. 문살 사이로도 빠져나갈 수 있는 인간을 배웅하기 위함이었다.[퀘스트 ‘거인들의 왕, 우트가르드로키의 다섯 가지 대결’을 거절합니다.][거인들의 나라, 요툰헤임의 문이 굳게 닫힙니다.]또 ‘던전에서 쫓겨납니다.’ 따위가 출력될까 봐 삐딱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던 윤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예의라는 걸 아는 시스템 팝업이었다. 눈이 시리도록 투명하고 반짝이는 것들과 멀어진다. 던전에서 퇴장하기 직전에야 우트가르드로키의 억세고 긴 턱수염이 보였다.✤ ✤ ✤짧디짧은 여름방학이 끝났다. 아직도 습하고 더운, 쨍하게 내리쬐는 햇빛에 부채질하는 사람이 넘쳐나는데도 말이다.교문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이 몰린다. 방학 전보다 오래 달라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시선에 윤별이 코끝을 찡긋였다. 교실에 가기 전에 매점이나 들릴까 싶어 발길을 틀자, 뒤에서 훅하고 인기척이 났다. 갑자기 다가온 누군가의 그림자에 햇빛이 가려졌다. 윤별이 턱 끝을 세운 뒤 비스듬히 기울였다.“안녕, 윤별아.”그 애였다.역광에도 유난스럽게 빛나는 푸른색 눈동자에 시선을 두며 고개를 끄덕였다.“안녕.”“오랜만이다, 그치.”그 애, 공유진이 주윤별 옆에 섰다. 그림자가 사라지자 정수리가 다시 달궈지는 것만 같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뜨거울 리 없었다.“그러게.”윤별이 순순히 긍정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개학하고 보자 말했던 것을 지켰으니 오랜만이기는 했다. 그는 제 보폭에 맞춰 걷는 공유진을 힐끔 보았다. 반사된 햇빛이 닿을 때마다 반짝이는 피어싱이 귀에 달려있다.“네가 올 줄 알았어.”윤별이 멈춰서자, 남자가 덤덤한 목소리로 말을 잇기 시작했다.“매일매일 기다렸거든. 네 무기가 부서지길 바라며 부서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었어.”저도 모르게 돌아본 얼굴이 유난스러운 것도 없었다.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봐서 다행이다. 그 애는 아무렇지 않게 마지막 문장을 내뱉었다. 그러고는 팔을 쭉 뻗는다.갑작스레 다가온 타인의 신체에 윤별의 호흡이 짧게 멎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눈을 깜빡이며 상대의 다음 행동을 예상했다. 가장 가능성 높은 건 역시 손이라던가 어깨를 붙잡는 게 아닐까. 이왕 하는 스킨십이라면 손을 붙잡는 게 좋을 듯하다. 손가락끼리 얽혀서 단단히 고정되는. 둘 중 한 명이 손을 놓더라도 타인이 놓지 않으면 빠지지 않을 단단함 쪽이 더 마음에 들었다.하지만 공유진의 손은 윤별의 눈썹 위쪽에서 비스듬히 기울여져 멈췄다. 그는 손으로 차양을 만들어, 아침부터 내리쬐는 햇빛을 가렸다.“매점 갈 거지?”예상 밖의 행동에 윤별의 미간이 와락 좁혀졌다. 대답을 바란 건 아니지만 이건 좀 너무하지 않니. 혀가 움직일 뻔했다. 그는 언어를 만들고 싶어 안달 난 혀를 날카로운 송곳니로 꾹꾹 눌렀다. 알싸히 올라오는 통증을 느끼고 나서야 고개를 휘저었다.“안 가.”“그래. 그럼 교실로 가자.”빛을 가려주던 손바닥이 떨어져 나간다. 그는 그 푸른 눈으로 회색 눈동자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짧은 웃음을 그려냈다.가자고 말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남자의 팔뚝을 가볍게 건드린 윤별이 먼저 발바닥을 떼어냈다. 공유진은 딱 한 발자국으로 걸음을 맞추었다. 키가 비슷했더라면 어깨와 손이 계속 부딪칠만한 거리에서 비슷한 보폭으로 걸었다.“방학은 잘 보냈어?”“그냥, 비슷하지. 나 던전에서 쫓겨나 보기도 했어.”손등이 공유진의 팔을 스쳤다. 저도 모르게 움찔거린 손끝에 주먹을 쥐었다가 편다. 고백한 다음에는 어떻게 굴어야 하는 걸까. 그것도 상대가 친근하게 굴 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걸까. 방년 스물여섯의 주윤별 인생에서 연애는 거리가 먼 종목이었기에 더더욱 알 수 없었다. 그러니 선생님, 제발 정답을 알려줘. 속으로 웅얼대며 온갖 생각을 다 하며 계단을 오른다. 학교를 찾지 않았던 요근래에 새로 칠한 건지, 벽면에서는 페인트 냄새가 났다.“던전에서?”“응.”“네가 던전에서 쫓겨날 일이 있나?”“나도 몰랐는데, 있더라고.”신발장에서 슬리퍼를 떨어트리고 운동화를 벗는다. 슬리퍼를 신고 고개를 들자, 어느새 신발을 갈아신고 다가온 공유진이 보였다.“어쩌다가?”신발장 속에 신고 왔던 운동화를 넣고 다이얼을 돌리기까지 끝낸 윤별이 짧은 비음을 흘렸다.“음… 말하자면 긴데….”“그래도 해줘. 궁금해.”교실에 들어섬과 동시에 한 번 더 몰리는 시선을 무시하고 자리에 앉는다. 그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입술을 뗐다.“광화문에 열린 던전에 지원했는데 거기에 파사가 있더라고. 다른 선량한 헌터들이 죽어 나가는 꼴을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걔를 데리고 들어갔지.”“파사?”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얼굴이 된 남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응. 아무튼, 걔랑 입장해서 몹몰이하고 싹 쓸어버렸는데… 스토리형 던전이더라고…. 이미 싹 다 죽였는데.”“아…….”안타까움이 담긴 목소리였다. 파사, 단해준과 저만 사고 친 게 아니라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었다.“다들 열심히 죽이고 열심히 파손시켰나 보더라. 자료 찾는데 자동폐쇄된다는 팝업이 계속 떴거든.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빠밤― 클리어에 실패합니다. 던전에서 쫓겨납니다. 이거 본거지 뭐.”축약하고 축약해 중요한 부분만 말한 윤별이 인벤토리 속에서 콜드컵을 꺼냈다. 투명한 플라스틱 빨대를 입에 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이마신다. 빨대를 통해 끊임없이 나오는 카페인으로 해갈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한민국 수험생들의 체력은 남다른 듯하다. 새벽에 던전도는 것보다 아침에 등교하는 게 더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람. 그가 벤티 사이즈의 삼 분의 이를 마시고 나서야 입술을 떼어냈다.[작품후기]( ⁎ ᵕᴗᵕ ⁎ )선추코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태풍 영향으로 비가 쉼없이 쏟아지네요:(다들 무사히 출퇴근하시길 바라며, 저도 이만 출근하러 가겠습니다! 몸 건강히 다음 편에서 뵙길 바라요mm)^^^어린양의 이름개학 첫날부터 온갖 잔소리들을 쏟아내는 과목 선생님들에 귀가 따가울 지경이다. 올해 망해도 내년이 있는데, 꼭 올해만 있다는 듯 말한다. 수능 한 번 더 본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하나. 지난 삶이 떠오른 주윤별이 책상에 팔꿈치를 댔다. 자연스럽게 턱을 괴고 하품을 내뱉는다.그는 원래 수능 당일. 그것도 이른 새벽에 각성했다.불현듯 잠에서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자, 검푸른 하늘이 보였다. 총총 떠 있는 별을 보며 기묘한 쾌감에 휩싸였던 시간이 떠오른다. 단발성에 그칠 것만 같았던 쾌감은 점점 섬세해지고 날카로워졌다. 이능력 각성 센터 또는 ‘확인의 던전’에 가야 알 수 있는 등급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듯했다. 쾌감이 직감이 되는 순간,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발바닥이 지면에 닿자마자 온몸에 열기가 돈다. 방금 잠에서 꺠어났다는 게, 수능 한파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날씨라는 게 거짓말이라도 되는 것만 같다. 한껏 달아오른 몸뚱어리는 보일러를 때워 따뜻하게 데워진 공기보다도 뜨거웠다. 공기조차도 차갑다고 느껴진 순간, 타닥거리는 소리가 고막을 두드렸다.밤에 잠긴 방 안에 불꽃이 피어난다. 환히 비추는 푸른색 불꽃은 물결처럼 흔들린다. 주윤별은 제가 보고 있는 광경이 꿈인지 현실인지를 가늠하며 눈을 끔벅였다. 일렁이는 불그림자가 시선을 잡아끌었다. 춤을 추는 이의 옷자락처럼 살랑거리는 불꽃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손끝을 타고 올라오는 불꽃에 입술이 벌어진다. 그대로 굳어 숨 쉬는 것조차 잃은 채 몸속, 어디론가 흡수되어 사라지는 푸른 불을 느꼈다.사람의 감각이라 말하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오감이 느낄 수 있는 범위 외의 감각이 움튼다. 각성자들이 말하던 ‘알 수 없는 형태’의 감각이었다.태양이 검푸른 밤을 밀어내며 올라오기 무섭게 그는 정선혜의 방문을 두드렸다.‘엄마, 엄마.’대한민국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날인 만큼, 정선혜는 그 작은 노크 소리와 목소리에 방문을 열었다. 딸아이의 창백한 낯에 정선혜의 얼굴 역시 희게 질리기 시작했었다.쾅쾅.주먹으로 교탁을 내려치는 소리에 기억이 조각난다. 어느새 교단에는 수학 교사가 서 있다. 아까까지만 해도 화학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왜 수학이 서 있나 싶어, 스마트폰의 버튼을 누른다.“남은 시간을 잘해야 너희가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져. 알겠어?”조금은 신경질적인 목소리에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졌던 주윤별이 고개를 끄덕였다.수험장에 들어가서는 전날까지 뇌 속에 억지로 욱여넣고 손으로 외우던 것을 제 손으로 날려버렸던 그 날. 그는 한국에서 가장 멋진 OMR카드 아트-언어영역은 기린 가족이었다-를 만들었다. 대한민국 최초 초기 등급 S급이라는 멋진 타이틀에 심취했는데 수능이 무슨 말이냐. 나는 대학 안 가고 일을 하겠다는 패기에 벌인 일이었다. 그리고 그 OMR로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입학했다. 웃기지도 않는다.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팔꿈치를 미끄러트린다. 비좁은 책상의 중간까지 내려간 팔꿈치 덕분에 옆자리에 앉은 공유진을 보기 편해졌다.그는 다이어리 위에 기록한 무언가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흰 뺨에 얹어진 햇살이 무색할 정도로 삭막하게 굳은 표정에 굳이 손끝으로 옆 책상을 건드린다. 톡톡. 비스듬히 세워진 손톱과 책상의 상판이 만나며 가벼운 소리를 냈다.“뭐해?”공유진은 곧장 다이어리에서 눈을 떼어내고 고개를 돌렸다. 햇빛을 받아 푸른 링이 생긴 검은 머리카락 아래, 음영이 두드러진 푸른 눈동자가 주윤별을 응시했다.“아무것도 아니야.”지나치게 꼼꼼하게 작성한 무언가와 심각했던 표정이었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웃겼다.“아무것도 아니면 봐도 돼?”윤별이 짧은 웃음을 흘렸다. 순간 확장된 동공을 감추듯, 눈을 빠르게 깜빡인 유진이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인다. 8월 1일, 5일, 6일, 9일, 13일. 단정한 글씨로 적어 내린 숫자와 그 아래에 적힌 또 다른 숫자.“이런 걸 왜 적은 거야?”기억을 아무리 더듬어도 정확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그냥,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러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속삭이듯 말한 남자가 입꼬리를 끌어당겨 웃으며 다이어리를 거둬들인다. 곧바로 정리해 넣는 게 여간 수상해 보여서 왼쪽 눈썹이 들썩여진다.“흐음― 그래, 뭐.”낮은 비음과 함께 부정적 어감의 긍정을 내뱉는다. 공유진은 칠판 앞에서 열심히 떠들어대는 교사를 힐끔인 다음, 슬그머니 몸을 세우며 비스듬히 앉았다. 그가 손을 뻗었다. 다이어리를 집어넣으며 챙긴 게 분명한 레몬 사탕 다섯 개가 윤별의 책상 위에 놓였다.껍질의 양 끝을 잡고 잡아당긴다. 바스락 거리가 들리고 투명한 비닐 속 연노랑 색 설탕 덩어리가 튀어나온다. 윤별은 재빨리 제 입안에 사탕을 집어넣고 혀를 굴렸다. 상큼하고 달달한 간식거리가 체온과 타액에 사르르 녹기 시작했다.‘1, 5, 6, 9, 13.’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손을 세운다. 검지 끝으로 책상을 느릿하게 두드리던 윤별이 턱을 기울였다.정규 수업이 끝나려면 멀었으니 천천히 생각해보자.공유진에게 심각한 얼굴을 할만한 일이 직접적으로 있었는가? 그가 알기로는 없었다. 만약 무슨 일이 있었더라면, 등굣길에 기다렸다는 말 외에 다른 말을 했겠지. 그렇다면 간접적인 일 혹은 알지 못했던 일이라 생각하기 쉽다. 같은 시간을 반복해서 살고있는 이에게는 무슨 쪽이 더 가까울까.검지의 속도가 한층 높아졌다. 주윤별은 제 기준으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깊은 생각을 하듯, 얼굴에 담겨있던 모든 감정이 휘발된다.그는 제 시간이 되돌려진 후, 생겼던 일들과 공유진이 흘렸던 정보를 하나하나 떠올렸다.가장 큰 줄기는 그가 수능 날이 아닌, 학기 초에 각성했다는 것이다. 각성했다 말하기엔 이미 ‘가진’ 채로 되돌아온 것이지만. 편의상으로 없던 능력이 생겨났으니 각성했다 말하는 게 좋을 듯하다. 3월부터 지금까지 쭉. 헌터로 활발히 활동한 만큼 온갖 일을 다 겪었지만, 그건 이전 시간선에서도 타인에 의해 일어났을 일이 많다.헌터로 활동하며 유일하게 달라진 점은 ‘최초의 삼신할머니’가 등장했다는 것.원래의 시간선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한국신화 속 신의 등장으로 각성자가 우후죽순 탄생했다는 점이 있다.“각성…….”저도 모르게 입술 틈으로 단어가 튀어나왔다.주윤별은 제 옆얼굴에 닿은 푸른 시선을 무시하며 스마트폰을 집어 들었다.‘최초의 삼신할머니’가 등장하며 달라진 점은 각성자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말은, 그의 기억에는 드문드문 있던 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기도 했다.살해.알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 이능력자들.양 엄지가 키패드를 스친다. 살해, 이능력자, 각성자. 세 개의 키워드가 나란히 입력된 흰색 검색창 위를 맴돌던 손가락이 마침내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했다. 옵션을 누르고 기간까지 선택한 윤별이 심호흡했다.설마. 아니겠지.이미 예상하고 있는 불안에 심장이 요란하게 뛴다. 쥐어짜는 듯한 감각까지 느껴진다. 액정을 위로 쓸어올린다.13일. 정보분석계 각성자, 이 모 씨가 퇴근하던 중 살해당함. 이 모 씨의 후두부가 완전히 으깨진 상태이며 몸싸움의 흔적은 없다.9일. 복원술사 김 모 씨가 자택에서 살해당함.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없으나, 오른쪽 눈과 양 손목이 관통당한 흔적이 있어 자살로 보기 어렵다.6일. 마찬가지로 정 모 연구원이 연구소 외부 공원에서 살해당함. 정 모 연구원은 복원술사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 연구 내용은 마력농도에 따른 복원 가능 범위와 방향이다....기한 체크를 풀고 7월의 것까지 훑는다.뉴스 기사에서 살해당한 이능력자들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은 했으나, 이렇게까지 많을 줄은 몰랐다. 그는 눈꺼풀로 건조해진 눈동자를 감추고 그 위에 손바닥을 얹었다. 뜨거운 열기에 건조한 눈알에 물기가 돌기 시작했다.‘네가 나를 구했으니까.’무더위 속의 남자가 알 수 없는 얼굴로 말했었다. 약간은 발그스름한 뺨과 눈동자. 제가 만들어내야 하는 표정을 잃은 채 다시금 떼어내던 입술.‘네가 날 구했어.’곧장 부딪혀오는 푸른 눈동자 속에는 어떤 감정이 담겨있던 걸까. 뒤엉켜서 알 수 없었던 감정들을 떠올리려 노력하던 주윤별의 귓가에 허상의 목소리가 실바람처럼 스쳤다.‘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피해줘. 내가 널 피할 수는 없으니, 네가 나를 피해.’시간을 되돌아온 날부터 가지고 있던 의문이 지금에서야 갈피를 잡는다. 위험한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애원하는 목소리가 끈질기게 웅웅댄다.피해자는 너이고 나였다.[작품후기](۶•̀ᴗ•́)۶ 선추코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남겨주신 코멘들 보고 나름대로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하겠다고 열심히 써왔답니다:D페레리아님 철자 뒤바뀐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뒤바뀐 지도 모르고 타이핑한 거를 그대로…. 열심히 복붙해가며 썼네요XㅁTMI. 주윤별의 멋진 OMR카드 아트: 언어영역-기린 가족, 수리영역-초코콩프렌즈(어설픈 기억력에 의존하여, 그 누구도 초코콩프렌즈인지 모른다), 외국어영역-다양한 사이즈의 하트와 큐피드의 활, 탐구영역- 불꽃^^^어린양의 이름첫째, 살았던 시간선에서는 이 시간대에 이다지도 많은 살인이 벌어지지 않았다. 한 달 동안 열 명 가까이가 죽어 나갔더라면 아무리 수험생인 그였더라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시간을 되돌아오기 직전의 기억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둘째, 살해당한 이능력자의 대다수가 비전투계열. 그중에서도 복원술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리고 공유진은 복원술사이며 제 각인을 가리고 각성자가 아닌 척하고 있다.셋째, 무용실에서 공유진은 ‘주윤별이 공유진을 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어진 말은 ‘주윤별이 공유진을 피해야 한다’였다. 즉, 주윤별이 공유진을 구했으나 구하는 과정 혹은 결과에서 막대한 피해를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얄팍한 추측을 끝냈으니 남아있는 것은 확인 작업이다. 주윤별은 제 옆자리로 향하려는 눈동자를 억지로 붙들었다. 책상 표면을 갉작이던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건드린다. 둥근 버튼 위에 엄지를 올리고 약간의 힘을 가하자, 잠금 상태로 전환되기 전까지 보고 있던 화면이 그대로 켜진다. 스마트폰을 비스듬히 기울이고 페이지를 날려 보낸다. 헌터 커뮤니티가 뉴스 기사 자리를 차지했다.- <BEST>던전별 클리어 보상 공유- 던전 초행 맞으세요?(뉴비 가이드 A to Z)- 세상 흉흉하다- 글록시니아 드디어 클리어ㅠ(후기O)- ㄱㄹㅅㄴㅇ 첫날에 ㅁㄹ 잇엇다며자동으로 새로 고침 된 페이지에는 새로운 베스트 글과 던전, ‘매드사이언티스트의 연구소’가 클리어되었는지 그 위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이한 감각에 재빠르게 두 번째 줄의 뉴비 가이드 글을 연다.눈에 바로 들어오는 첫 번째 줄은 유명 소설의 제목을 차용하고 있었다.<던전을 여행하는 뉴-비-헌터들을 위한 안내서>1. 던전 입장 전, 디바이스 설정 확인, 인벤토리 확인은 필수2. 던전 앞에서 파티하자고 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게 좋다: 딜러도 탱커가 될 수 있는 단 한번의 기회=던전 앞에서 파티 가입. 탱커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절대 의심해.3. 던전에 입장하면 바로 비켜서자: 운 나쁘면 뒤치기 범에게 후려맞고 털리거나, 시간 텀 안 두고 들어온 뒷사람 몸에 깔릴 수 있음.4. 기여도에 연연하지 말자: 어차피 좋은 템은 랭커가 쓸어가니 몸 챙기는 게 우선. 1점 더 올리려다 일주일 더 골골대거나 모가지 날아갈 수 있음.5. 무기 수리는 클리어 후 해당 지역 사후복원팀에게: 던전 클리어했다는 것만 디바이스에 찍혀있으면 소정의 포인트로 무기 복원 가능함(단점은 3일 이내에 해당 시 던전관리국으로 가야 함). 던전관리본부에서 헌터 대상 복지는 우리나라가 제일 좋으니 꼭 이용할 것.....중복되는 내용 하나 없는, 제법 깔끔한 가이드 글 아래에는 온갖 간증 댓글이 달려있다. 제 경험담을 번호 매기며 나열한 사람부터 유명한 던전 초행 후기 좌표까지 끊임없이 이어진다. 윤별 역시 매드사이언티스트의 연구소(이하 글록시니아)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신중히 양 엄지를 움직였다.물리: 던전 앞에서 파티원 잘못 구하면 그게 바로 넴드 빌런.파사라든가 파사라든가 파사 같은.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로도 위가 아플 지경인 빌런과 함께했던 시간에 절로 미간이 좁혀진다.한참 동안 헌터 커뮤니티에서 노닥거리던 윤별이 슬그머니 다가온 손끝에 고개를 돌렸다.“왜?”“노는 것도 좋은데 점심시간이야, 윤별아.”밥은 먹고 놀라는 재촉에 스마트폰을 얌전히 내려둔다. 미리 밝기를 조정해둔 화면이 그가 보고 있던 페이지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공유진의 시선이 짧게 스치는 것을 확인한 윤별이 눈을 빠르게 깜빡였다.“오늘 중식 메뉴 별로던데…….”“그럼 매점이라도 갈까?”매점에서 파는,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햄버거 빵이 떠올라 고개를 내젓는다. 머릿속에 맛없는 급식과 지겨운 매점 빵을 제외한 메뉴를 나열한다.이럴 때는 배달의 종족의 룰렛을 돌려야 하는데. ‘오늘은 XXX 어때요’ 하며 카드 긁기를 기다리던 문구를 그리워했다. 그러던 중 정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의 분식집은 전형적인 학교 앞 떡볶이 맛을 뽐내던 것이 떠올랐다.“우리 분식집 갈래? 떡튀순?”윤별이 은밀한 내용을 말하는 척 속삭이듯 말했다. 턱을 세워 공유진의 대답을 기다린다. 그래. 그 짧은 긍정을 내뱉은 남자의 입술이 설핏 곡선을 그렸다가 일직이 된다.그에 윤별이 책상을 밀어내며 일어섰다. 고무 패킹과 타일이 부딪치며 내는 소리가 퍽 요란했다.누구보다 뛰어난 신체 능력으로 한다는 일이 짝꿍과 함께하는 월담이다. 그들은 하루 중 가장 시끄러운 시간에 가장 조용한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먼저 윤별이 발끝에 힘을 주었다. 토템 <백학이 떨어뜨린 날개깃> 효과로 발목에서 깃털이 떨어지는 홀로그램 효과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부딪힐 일을 피하고자 제 키보다 높은 벽에서 한 발짝 물러선다.공유진은 도움닫기 하는 소리 없이. 무척이나 조용히 담을 넘었다. 복원술사의 절망적인 신체 능력치를 아는 윤별이 그를 향해 장난기가 어린 박수를 보냈다.“갑자기 웬 박수야?”“나 너처럼 월담 잘하는 복원술사는 처음이라.”가볍게 목덜미를 주무른 유진이 퍽 거만한 표정을 꺼내썼다.“복원술사도 복원술사 나름이지.”일부러 지어낸 표정에 절로 눈꼬리가 휘어진다. 그는 소리 내 웃음을 터트렸다.“뭐야, 그 표정은!”가슴팍이 크게 들썩거릴 정도로 웃은 윤별이 검지의 옆면으로 제 눈가를 쓸었다. 눈물이 고일 정도로 웃었던 터라 속눈썹이 축축했다. 속눈썹을 문질러 물기를 닦아낸다.학교에서 분식집까지. 그 짧은 거리를 걷는 시간 동안 얼굴 근육이 쉴 새 없이 움직일 정도로 말을 하며 열린 문으로 들어간다.“학생들, 학교에서 나와도 돼? 몰래 나온 거여?”오지랖 넓기와 친절함이 비례하기로 유명한 분식집 사장님이 물었다. 윤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네, 괜찮아요.”하고 답했고, 유진은 그저 그 옆에서 웃음을 걸쳤다.“사장님. 저희 떡볶이 2인분하고 순대 1인분, 튀김은 김말이 6개요. 순대는 허파 빼고 주세요.”자리에 앉기 무섭게 공유진이 주문했다. 윤별이 목덜미를 문지르며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았다. 사소한 것에서 제가 모르는 시간을 함께한 게 티가 났다. 목덜미에 가 있던 손가락이 목 언저리를 더듬거린다.“유진아.”유진의 푸른 눈동자가 윤별의 회색 눈동자를 응시했다.“너는 살던 시간이 바뀌면 뭐가 제일 불편해?”“글쎄… 불편한 건 딱히 없는 것 같은데….”남자의 등 너머, 초록색 레트로 접시에 반으로 잘린 김말이가 올라가는 게 보였다.“왜?”“익숙하니까 괜찮아.”“난 배달의 종족이나 저기요에 마라탕 없는 것도 불편하던데.”한창 주문해 먹던 마라탕 맛집이 떠올랐다.“그래봤자 넌 항상 테이크아웃 해갔잖아.”그 애는 동종업계 지인들도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주윤별은 회색 눈동자를 가느스름히 뜨고 공유진의 입술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 남자는 스마트폰을 들어 무언가를 입력했다.“거기 아직 안 생겼나 봐.”지역 이름과 가게 상호를 함께 검색한 화면을 보며 말했다.“내가 너랑도 거기에 갔나?”허리를 비스듬히 굽혀 왼팔의 팔꿈치를 낮은 테이블에 댄다. 그 상태로 손바닥 위에 제 뺨을 가져다 댄 윤별이 스마트폰에서 시선을 떼어낸 유진을 향해 물었다.“일주일에 두 번은 갔을걸.”일주일에 두 번…? 아무리 좋아한다지만 일주일에 두 번이나 먹는 건 오바 아닌가. 중국 향신료 특유의 알싸하고 혀끝이 마비될 것만 같은 얼얼함을 떠올리자 절로 얼굴이 찡그려진다.“내 위장은 구멍 안 났대?”“너는 괜찮았어.”공유진이 흐릿한 미소를 지었다.너는 괜찮았다면, 본인은 괜찮지 않았다는 소리였다. 그가 알지 못하는. 이미 지나온 시간의 주윤별이 저지른 만행에 입술 틈으로 앓는 소리가 삐져나온다. 윤별이 턱을 괴고 있던 손으로 제 눈가를 가렸다.“그…, 미안…. 생각은 안 나는데 진짜 미안해.”“그걸 왜 네가 사과해, 윤별아.”“내 마지막 양심이야…….”손바닥으로 눈가를 문지르다가 떼어낸다.분식집에서 배부르게 먹고, 그 옆의 편의점에서 치어팩 아이스크림 하나씩을 물고 나왔다. 손끝으로 딱딱한 아이스크림을 주무르자 금새 말랑해진다.“유진아.”“응?”“지금 선도부가 있을까?”지금의 저는 수시와 정시 모두 포기했으니 괜찮지만, 공유진은 전국구 모범생이다. 모든 교사의 사랑을 받는 전교 1등이자 학교의 자랑. 바깥에서 배부르게 먹고 돌아오는 길이 돼서야 공유진의 학생부에 뭐라도 한 줄 적힐까 걱정되었다.“있겠지. 걔네는 학년에 상관없이 일찍 밥 먹잖아.”물고 있던 치어팩을 떼어내고 말한다. 그에 윤별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공유진의 손목을 붙잡고 나무 그늘 아래로 향했다. 차가워진 손바닥에 감기는 체온이 적당히 따뜻하다.“왜?”푸른 눈동자에 담긴 의문을 보며 주윤별은 입술을 앙다물었다. 아무래도 제 머리를 내려찍어야겠는 생각뿐이었다.모범적인 학생을 타락시킨 것만 같은 죄책감이 물밀듯 밀려오는데, 왜냐니. 도대체 과거의 주윤별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았기에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인가.오늘따라 사라진 미래이자 과거의 잔재에 사과할 거리가 많다는 게 보여, 무릎이라도 꿇어야 할 것만 같았다.윤별은 퍽 침착하게 디바이스에 손을 댔다. 곧바로 마켓에 접속하여 <일회용 은신 스크롤(5분)>을 두 장 구매했다.<아이템 정보 : 일회용 스크롤-은신(5분)>5분 동안 은신할 수 있는 스크롤. 5분 이내에 생명체와 접촉하거나, 스킬을 발동하면 은신이 중단된다.그중 한 장을 공유진에게 건넨다.“넌 대학 갈 거잖아.”몇 번이고 회귀하면서, 몇 번이고 대학 생활을 했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믿음이었다. 단호한 목소리에 그가 건네받은 스크롤을 내려보았다.[작품후기]ଘ(੭ˊ꒳ˋ)੭✧자주 못 왔는데도 선추코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요즘 글 쓸 시간 만들어보겠다고 스케줄 조정하고 있어서 더 늦었네요8ㅅ8열심히 조정해서 조금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즐거운 한글의 날 되시길 바라요:DTMI지만, 저는 중학생 때부터 마이웨이 바지 교복 입었어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속옷 위에 속바지, 치마까지 입으면 너무 불편해서 입어야 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Xㅁ^^^어린양의 이름\* \* \*주윤별은 한밤중에 바나나향 우유 하나 마시고 싶어서 편의점에 가려던 길이었다. 보안용 스크린도어에서 벗어나자마자 낯익은 소음과 함께 팝업이 떠오르지만 않았어도 그는 행복하고 질펀한 야식 타임을 가질 수 있었을 거다.[죄와 속죄가 거꾸로 선 관계(등급:B)에 입장하였습니다.]“왜 지금 터진 건데.”편의점 갔다 올 10분이라는 시간을 주는 것도 아깝냐. 입술이 절로 비죽거려진다.윤별은 시야를 가리는 던전 입장 메세지를 향해 가운뎃손가락을 세운 다음, 팝업을 지웠다. 행복한 시간을 방해하는 극악무도한 돌발형 던전게이트의 속죄는 좋은 아이템을 내뱉는 것뿐이다.쿵-, 쿵-, 쿵-.무언가가 바닥을 내려찍는 소리가 일정하게 울린다. 그에 윤별은 제가 밟고 있는 바닥을 확인했다. 발끝으로 흙바닥을 문지른다. 비가 내린 지 오래된 것처럼 딱딱히 굳은 흙바닥에서 소리가 타고 올라오고 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예민한 감각을 일깨운다.고막을 타고 흐르는 소리, 플리플랍의 굽 아래에서 요동치는 무게의 이동 같은 정보가 하나둘씩 모인다. 많은 인원이 뭉뚝한 것으로 흙을 내려찍는 소리의 위치는 제법 멀게 느껴진다.예기치 못한 전투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았다. 주윤별은 그제야 팔짱을 풀고 인벤토리에서 여분의 옷과 야구 배트를 꺼냈다. 곧바로 인디고색 얇은 가디건을 팔에 꿴다. 짧은 트레이닝 복의 일부가 가려졌다. 그가 아무리 낯짝이 두껍고 양심이 없다지만, 몬스터의 체액으로 샤워한 상태로 편의점에 가는 비매너는 아니니 당연한 선택이었다.울림의 방향은 여전했고, 끈질기게 이어진다. 그는 깜찍이 대용품을 어깨에 걸쳐 들고 울림을 향해 걸었다.“―죽음의 여주인이여. 은총을 베푸시어, 이 지상의 감옥을 열어주소서.”“은총을 베푸시어, 뱃머리를 자유롭게 해주소서.”멀리서부터 간절한 음성이 울려 퍼진다. 인벤토리에서 예비용으로 사둔 <일회용 은신 스크롤(5분)>을 꺼내, 야구 배트와 함께 쥐고 보폭을 넓힌다.여러 명의 사내가 창대를 붙잡고 서 있다. 그들이 일정하게 두드리는 곳의 중심에는 흰옷을 입은 여성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다. 희고 커다란 돌 위에서, 아무런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몸뚱어리와 달리, 표정만큼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 모르는 것처럼 담담했다.“우리를 우리의 조국에 이르게 하소서!”“우리의 조국에 이르게 하소서!”황금색 칼이 여성을 향한다. 여성은 가만히 눈을 감고 얕게 흐르는 숨소리마저 죽였다. 제게 닥칠 미래를 기다리는 행동에 윤별은 스크롤을 찢음과 동시에 지면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허공에 피어나는 푸른 불꽃은 화려하다 못해 성스럽게까지 보였다. 발 뒤꿈치와 앞머리가 닿았다가 떨어진 곳의 불꽃은 희게 빛내며 사그라진다.사내들의 시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불꽃 길을 쫓은 것에 반해, 여성의 고개는 그저 땅에 처박혀있다. 희고 긴 목덜미가 병장기로 중무장한 이들보다 깨끗했다. 희생자가 될 이는 제 죽음을 기다리며 이미 지나온 시간을 삼켰다.아름다운 나의 조국 일리온, 다정한 어머니, 고결한 첫 번째 오라버니, 평화를 사랑하는 그의 사람들.짓밟힌 일리온, 울음을 멎지 못하는 어머니, 아킬레우스의 손에 쥐어진 오라버니, 생기 잃은 일리온의 백성.폴리크세나는 다가오는 죽음에 심장이 죽어가는 것을 느꼈다. 아킬레우스가 제 사랑하는 이들을 앗아가더니, 죽어서도 그를 빼앗으려 한다. 감고 있던 눈을 뜬다. 햇빛이 칼의 경로를 간접적으로 비추고 있다. 그를 내려칠 것처럼 다가와서는 머뭇거리며 뒤로 물러서기를 반복한다. 숨 쉬는 것마저 강탈당하기 직전이 되어서야 모든 기억이 되살아난다.야속한 신들의 손에 제가 사랑한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 어째서 그들은 인간에게 황금 사과의 주인을 선택하라 했는가. 어째서 인간의 사랑을 신들 멋대로 움직였단 말인가.제 죽음으로 그리스군이 일리온을 떠나면, 일리온은 다시 옛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며 유령이 속삭인다.폴리크세나의 귓가에 유령이 네 피를 내 무덤에 뿌리라 명하고 있다. 아킬레우스의 망령이 폴리크세나를 향해 손 뻗고 있었다.머뭇거리던 칼끝이 연약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향한다.주윤별은 폴리크세나를 둘러싼 더러운 음욕에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팔꿈치를 들어 올렸다. 야구 배트가 가로로 누우며 칼의 경로를 막는다. 은신이 풀리자,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해 쏟아진다. 저들이 입은 고대 복식과 다른 복장에 몇몇은 손가락질하기도 했다.전장의 학살자라는 위명을 가진 헌터는 제게 향하는 칼과 창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조국에 가는 건 셀프하셔야죠, 아저씨.”“당장 그곳에서 내려와라!”아킬레우스의 무덤을 밟고 선 이방인을 향해 누군가가 소리친다.“아니 여기에 서 있는 건 셋인데 왜 나한테만 그런담.”불퉁한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편의점도 못 가고 끌려온 것도 서러운데 이제 던전 NPC마저 무시해댄다. 야구 배트에 힘을 주어 위로 젖힌다. 얇은 알루미늄이 막고 있던 황금 칼이 떨어져 나갔다. 회색 눈동자가 폴리크세나를 훑는다.“헤카베가 그대를 찾아.”헤카베의 막내딸, 폴리크세나가 고개를 들어 올렸다. 윤별은 미동 없이 무릎 꿇고 있던 여성의 느린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파르르 떨리는 속눈썹과 창백해진 피부, 생명을 잃기 전의 야트막한 숨소리로 점철되어있던 시간이 부서진다.시퍼런 날붙이들이 움직인다. 아킬레우스를 향한 에나기스마\*를 방해하는 침략자는 알 수 없는 무기로 공격을 무효화시키고 있다.“사람이 말을 할 때는 기다려야 하는 것도 못 배운 거야?”짧은 머리카락이 휘날린다.윤별은 왼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발을 굴렀다. 새하얀 무덤에 찬연한 빛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한다.<액티브 스킬, ‘태산(SS)’을 사용합니다.>―그러하다고 태산이 무너지겠느냐.그리스의 영웅, 아킬레우스의 망령를 억누른 당금애기의 맏아들 태산의 음성이 또렷하게 울려 퍼진다. 시준님에게 ‘금강산 부처님’이 되라는 명을 받은 태산의 견고한 방어막이 병장기들을 튕겨낸다.“헤카베가 그대를 찾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계속해서 헤카베를 들먹이자, 팝업 하나가 떠오른다.[퀘스트, ‘헤카베의 부탁(등급:A)’이 연계됩니다!]수락 | 거절어서 선택하라는 듯, 팝업이 깜빡인다. 윤별은 움찔거리는 손가락을 말아쥐고 폴리크세나의 대답을 기다렸다.“…나는.”한참 동안 말하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꺼끌꺼끌한 모래알이 목구멍을 긁어내는 듯한 목소리의 폴리크세나는 느리게 눈을 깜빡였다.그는 그의 죽음으로 일리온과 그리스의 전쟁이 끝날 것임을 안다.일리온의 모든 이들이 안도하며 전쟁의 피해를 복구해나가고, 이윽고 파리스가 황금사과의 주인을 택하기 전의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하지만.하지만.그 모든 이들에 저는 없다. 그 모든 이들에 적어도 제 어미인 헤카베는 없을 것이다.“나는.”“나는, 다시 한번 보고 싶소.”머뭇거리던 목소리가 단단해진다. 폴리크세나는 무릎에 올려두었던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섰다.“이기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알고 있소. 하지만 나는 내 옷깃을 붙잡던 어머니의 손길과 울부짖는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하오.”자유인으로 죽으려했던 일리온의 왕족. 마지막 왕인 프리아모스의 막내딸, 폴리크세나는 왼손으로 제 앞섶을 내리눌렀다.“나를 데리고 가주시오.”차분히 말하는 여성을 향해 손 뻗는다.“좋은 선택이야.”트로이전쟁은 이미 지난 시간이다. 이미 신화에 기록되고, 후대에 전달되며 여러 매체를 통해 이어지고 있는 시간이었다.하지만 이 던전 안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시간이니, 이 시간, 이 던전 속의 폴리크세나는 헤카베를 다시 한번 볼 것이다. 깜빡이는 팝업의 왼편을 누른다.[퀘스트, ‘헤카베의 부탁(등급:A)’이 시작됩니다.]―헤카베의 부탁: 헤카베의 막내딸, 폴리크세나를 데리고 헤카베에게 가십시오.성공: 타이틀 ‘마녀의 구원자’, 스킬 ‘개의 언어’.실패: 던전, 죄와 속죄가 거꾸로 선 관계(등급:B)에 재입장 불가.이기적이고 아름다운 여자를 마녀로 몰고 가는 것은 고대 때부터였나보다. 알고 싶지 않은 정보에 미간을 좁히며 폴리크세나에게 손을 내민다.“갑시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노동하지 않은 손이 얹어진다. 주윤별은 폴리크세나의 손을 단단히 붙잡아 끌었다. 나풀거리는 몸뚱이가 제 옆구리에 붙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알루미늄 배트로 바닥을 내리찍는다.쾅―!아킬레우스의 무덤에서 푸른 불꽃이 뻗어 나간다. 흰 무덤의 끄트머리가 이지러지며 불꽃을 바깥으로 내보낸다. 그리스군이 신성의 증거가 아니느냐며 바라보았던 불꽃은 그들을 삼키려는 화마가 되어 위협적으로 넘실댄다.그들의 영웅, 아킬레우스의 망령이 손가락으로 폴리크세나를 가리킨다. 어서 그의 피를 제 무덤에 뿌리고, 저를 위한 제물을 저에게 보내라는 손짓이 역겨웠다.“여기서만큼은 안되지.”폴리크세나를 제 아비의 무덤에 끌고 온 남자가 붉은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어서 그녀를 내놓으시오.”붉은 머리의 미남자이자 영웅의 아들, 네오프톨레모스가 황금 칼로 폴리크세나의 가슴팍을 노렸다.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폴리크세나의 죽음이 필요했다.“그녀가 아니라 ‘그’라고 말해야지.”너는 그리스인이면서 왜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니.시답잖은 말을 내뱉으며 ‘태산’에 마력의 반절을 쏟아붓는다. 찬란하다 못해 눈이 멀 것만 같은 빛줄기가 폴리크세나를 감싸 안았다. 그에 트로이 전쟁을 끝낸다는 신탁을 받은 영웅은 칼을 단단히 고쳐 쥐었다. 폴리크세나를 향한 매서운 칼끝은 윤별의 스킬에 막혀 캉캉거리는 금속음을 내뱉었다.저를 향한 공격에 놀랄 법도 한데, 폴리크세나는 아무렇지 않은 모양이다.그는 제가 붙잡은 이방인의 손에서 눈을 떼어내지 못했다.“어서.”“공주님께서 비키라잖아.”알루미늄 배트에 불이 붙는다. 푸르고 희게 타오르는 불꽃이 금빛 빛줄기를 통과해, 이미 타오르는 불꽃의 화력을 높인다.일렁이는 불길로 벽을 세운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려 틈이 생길지라도 그 누구도 다가오지 못할 정도로 타오르는. 무엇이든 잡아먹을 수 있다는 듯 구는 벽이 한 명의 헌터와 한 명의 희생양, 한 명의 신탁의 주인공을 제외한 이들을 가로막는다.트로이 전쟁은 신탁의 주인공이 일리온의 막내딸을 살해함으로 끝난다.신화의 장면을 이루려는 네오프톨레모스의 칼날을 밀어낸 윤별이 야구 배트를 인벤토리 안에 집어넣었다.“내가 좀 바빠서, 우린 이만 가봐야 해.”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 직전이거든.사족을 덧붙인 이가 제 옆구리에 붙어있는 공주의 허리를 움켜쥐었다.[작품후기](۶•̀ᴗ•́)۶오늘도 선추코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XXXXX: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에나기스마: 죽은 영웅이나 조상에게 바치는 제물, 죽이는 행위도 의식에 포함됩니다.1. 폴리크세나(Polyxène)는 폴리세나, 폴리세네 등으로 표기됩니다.2. 일리온을 영어로 말하면 트로이가 됩니다.3. 네오프톨레모스의 또다른 이름은 피로스로 뛰어난 무예와 아름다운 외모가 특징적이라고 합니다.^^^어린양의 이름왼팔로 폴리크세나를 감싸 안고 허공에 불꽃을 피워낸다. 무언가를 태우기 위함이 아닌, 하늘에 도주로를 만들기 위한 불꽃은 유독 푸르게 타올랐다.“내가 아직 이동기가 없어서, 조금 불편할 거예요.”다리를 뻗어 압축된 불꽃 위에 오른다. 몸을 단단히 받치는 불꽃에 폴리크세나의 등허리가 잘게 떨렸다.“조금 불편할 뿐이지 안전해요. 걱정 마요.”발끝으로 불꽃을 건드린 윤별이 인벤토리에 알루미늄 배트를 집어넣었다. 자유로워진 손으로 폴리크세나를 이끈다. 지면에서 멀어지려 할수록 아래에서 나는 소리가 거세진다.“당장 그녀를 내놓으시오.”형형한 눈동자의 주인은 윤별을 씹어먹을 듯한 목소리를 냈다. 황금색 칼이 불꽃을 베어내려는 움직임에 윤별은 두 눈을 빠르게 깜빡였다.“내가 미쳤다고 공주님을 돌려보내겠어?”네오프톨레모스를 향해 압축한 불꽃을 쏘아 보낸다. 남자는 재빠르게 움직이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 집요함에 피로가 쌓이기 시작한다.제발 따라오지 마.피로한 낯을 문지른 윤별이 한숨을 뱉었다. 트로이 전쟁을 끝낼 영웅이라더니 집요함도 남다르다. 보통 이만큼 하면 포기하지 않나. 그는 야구공만 한 불꽃을 끊임없이 베면서 차근차근 다가오는 네오프톨레모스에 손을 휘저었다. 이미 지나온 불꽃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벽이 생긴다.폴리크세나의 연약한 몸을 들고 껑충껑충 계단을 오른다. 지면과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방어막의 위치를 바꾼다. 그리스군의 창끝이 스킬에 닿을 때마다 반짝이는 빛이 터져 나왔다가 잠잠해진다. 반딧불처럼 적은 면적의 빛들이 갑옷 위에서 산란한다.주윤별은 시스템이 알려오는 길을 따라 불꽃 길을 만들었다. ‘태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야기의 주인, 네오프톨레모스가 말을 낚아채 오르며, 창을 투척한다. 윤별이 손바닥을 활짝 펼쳐 고온의 불을 만들어냈다. 철은 녹아 지면을 향해 뚝뚝 떨어지고, 창대의 나무는 재가 되어 더 높은 곳으로 흩날린다.“쯧.”네오프톨레모스는 저를 향해 떨어지는 철물에 혀를 끌었다. 말을 자유자재로 이끌어 피하며 그들을 쫓았다.“당신 진짜 끈질기다. 끈질긴 남자는 인기가 없어요.”집착남주가 유행이라지만, 여주를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남주는 인기 없다는 말을 덧붙인다. 시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면서도 발은 재빠르게 놀린다. 편안한 얼굴로 도망치던 윤별이 오른손을 다시 한번 들었다.그 가벼운 움직임에 불덩어리가 쏟아질까, 아니면 불의 장벽이 생길까를 고민하는 네오프톨레모스의 눈매가 예리한 선을 그린다.윤별은 제 엄지와 중지를 힘있게 부딪쳤다. 딱! 난데없는 핑거 스냅에 네오프톨레모스의 눈동자가 확장된다. 그를 가로막는 벽이 보이지 않는다. 그는 곧바로 눈알만 굴려 제 주변에 불덩이가 생겼는지 확인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상에서 벗어난 일에 왼쪽 눈썹이 치켜 올라간다.“거기가 아니라 뒤야.”‘태산’을 거두어들인 윤별이 턱 끝을 세우며 말했다. 멀리서부터 그리스군이 쫓아오는 소리가 일리온을 울린다. 누군가는 말을 타고 달릴 테고, 또 누군가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입안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달려올 것이다. 지면이 들썩일 정도로 커다란 소리가 다가오고 있다.“왜…….”질문은 네오프톨레모스가 아닌 폴리크세나의 입술에서 튀어나왔다.“‘태산’은 가성비가 좋은 스킬이라, 마력을 회수할 수도 있거든요.”공격을 막으며 사용한 마력을 제외한. 잔여 마력을 회수한 윤별이 뺨을 긁적였다. 일리온과 그리스에 적을 두고 있는 신화 속 인물들은 알아듣지 못할 대답을 하며 시스템 속 거리를 확인했다.무던히 많이 달려온 것만 같았는데, 지금 속도라면 20분 정도가 더 걸릴 것 같다.이렇게 대치하며 가다가는 편의점에 갈 힘도 남아있지 않겠다. 던전에서 나오자마자 배고프다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집까지 기어갈지 모른다. 주윤별이 불안한 눈빛의 폴리크세나를 힐끔 내려다보았다.“공주님.”“왜 그러시오.”“토할 것 같아도 조금만 참아요. 눈 감으면 좀 덜 느껴질 거예요.”날것에 가까운 말에 아연실색한다. 폴리크세나의 표정에 터질뻔한 웃음을 삼키며 마력을 건드렸다. 체내 마력 회로가 바삐 움직이기 시작한다. 회색에 푸름이 겹쳐지자 맨몸으로 사막에 던져진 것만 같다. 타오르듯 뜨거워진 살갗 위로 흰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가 금세 사라진다. 뜨거워지다 차갑게 식어가는 회청색 눈동자의 색이 옅어지고 나서야, 물빛 잔상이 시신경을 타고 뇌를 두드린다.주윤별은 저를, 그리고 폴리크세나를 바짝 쫓아오는 네오프톨레모스를 향해 손을 팔랑였다.“우리가 진짜 진짜 바빠서. 먼저 갈게요. 안녕.”뇌는 제 주인이 바라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마력 분배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심장을 강화한다. 물빛 마력은 뇌의 통솔을 따라 빠르게 움직였다. 아킬레우스의 망령과 그의 아들이 존재하는 곳이다. 끝으로 발뒤꿈치와 연결된 힘줄에 마력이 한 겹 더 얹어진다.발바닥을 받치고 있던 불꽃이 크게 타올랐다가 사라진다.“잠시…. 잠깐만…!”심장께에서부터 퍼지는 불안에 급히 입술을 열었지만, 이방인은 시큰둥한 얼굴로 앞만 바라보고 있다.“괜찮아요, 괜찮아. 안 다치니까 눈이나 감고 있어요.”발뒤꿈치에서 발가락 끝까지 차례로 떨어진다. 그의 옆구리에 끼어있던 폴리크세나는 이제 제 발밑에 불꽃조차 없다며 경악했다. 허공에서 휘날리는 키톤 자락에 결국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제 허리를 감싸 안은 손이 아무리 단단하다지만, 처음 접하는 행위에서 오는 공포는 어찌할 수 없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헝클어트리고 눈두덩이를 간질인다.시스템의 안내가 끝났다. 윤별은 땅으로 내려와서 몸을 반쯤 틀어 뒤를 바라보았다. 거칠게 말고삐를 잡아 달리던 네오프톨레모스가 보이지 않는다. 20분이라는 시간을 5분으로 단축한 보람이 물밀듯 밀려온다.“짜-잔-!”완벽한 따돌림에 신이 난 윤별이 폴리크세나를 향해 감탄사를 내뱉었다. 그리고는 눈꼬리를 휘어 트리며 제 옆자리를 내려다보았다.매끄러운 상앗빛 피부를 자랑하던 폴리크세나의 얼굴은 그저 창백하게 질려있다. 윤별은 제가 붙잡고 있던 폴리크세나의 허리를 놓아주어야 할지, 아니면 낯빛이 돌아올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지 고민했다.“괜찮아요? 괜찮았어야 하는데 왜 이러지….”나 적당히 달렸는데.전지적 헌터 시점으로 괜찮음의 범위를 지정한 헌터, 주윤별이 뻐끔대며 말했다.안절부절못하는 윤별과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폴리크세나의 앞에 눈물로 얼룩진 얼굴의 헤카베가 나타났다. 그는 노을로 얼룩진 흰색 기둥을 붙잡고 있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게 현실이 맞는지 의심하며 폴리크세나를 뚫어지라 바라보았다.이상하고 망측한 복장의 여성 옆의 핏기 하나 없는 이가 제 딸이 맞는지.네오프톨레모스의 손에 붙잡혀 포로가 된 막내딸이 그리워 만들어낸 환상이 아닌지.“아가…, 내 딸…!”자식을 잃은 헤카베는 두 눈을 부릅뜨고 걸음을 옮겼다. 비틀거리는 몸뚱어리가 거추장스럽게만 느껴졌다.“어머니…….”창백한 얼굴의 폴리크세나가 흘려낸 울음이 헤카베에게 닿는다. 그 여린 음성에 헤카베는 꿈이면 사라질까 걱정하며 감지 못했던 눈을 깜빡였다. 환상이라면 제 눈앞의 모든 이들이 사라지고 우울한 천장이 있을 것이다.주윤별은 제가 붙들고 있던 폴리크세나의 허리를 놓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가 환상이 아닌지 걱정하며 움직이는 몸짓에 눈치 없는 배꼽시계가 울린다. 주린 배를 문지르며 모녀의 재회를 바라본다. 눈물이 고인 눈동자를 담은 애달픈 얼굴이 환희로 뒤바뀌길 바라며 서 있었다. 느린 걸음에 속도가 붙고, 그들은 서로의 신체를 끌어안는다.서로가 실존함을 인지하자, 일리온의 하늘에 빛 조각이 퍼져나간다. 붉은 노을이 넘실거리는 하늘에 별빛 같은 작은 빛들이 총총 박혔다.[퀘스트, ‘헤카베의 부탁(등급:A)’을 클리어하였습니다!][던전, ‘죄와 속죄가 거꾸로 선 관계(등급:B)’를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클리어하였습니다!][클리어 보상은 기여도순으로 자동 지급됩니다.][던전에서 자동 퇴장이 진행됩니다.]기다리고 기다리던 클리어 문구와 함께 시야가 점멸한다.노을 진 하늘이 어두운 밤하늘로 뒤바뀐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파트 단지는 조용하다. 클리어와 동시에 사라진 던전 입구에 집값이 떨어질 일은 없겠다 안도했다.[클리어 보상으로 <마녀의 구원자(타이틀)>, 전용 스킬-개의 언어, 7000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클리어 보상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디바이스 설정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게 떠올랐다. ‘익명(UNKNOWN)’이 아닌 ‘물리’로 클리어했으니, 헌터협회는 또 끈질기게 연락해댈 게 분명했다.예고된 미래에 한숨을 내뱉은 윤별이 기지개를 켰다. 뻐근한 등허리가 어느 정도 풀리는 듯했다. 가디건을 벗어 인벤토리 안에 던지고 스마트폰을 꺼낸다. 엄지로 헌터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누르며 걸음을 옮겼다.새벽인데도 인천시 소속 정보분석계 이능력자가 왔다 갔는지, 던전명이 깔끔히 적혀있다. 불쌍한 공무원…. 말뿐이지만 눈물이 다 날 것만 같다. 그는 편의점으로 향하며 방금까지 들어가 있던 던전의 간략한 정보를 작성했다.제목: 죄와 속죄가 거꾸로 선 관계(B)작성자: 물리던전명: 죄와 속죄가 거꾸로 선 관계등급: B발생일: 2012. MM. DD특징: 그리스로마신화 속 던전/트로이전쟁 후반 배경/네오프톨레모스, 폴리크세나, 아킬레우스의 망령, 그리스군 등장.원래의 ‘죄와 속죄가 거꾸로 선 관계’라면 등장하지 않았을 인물인 헤카베를 의도적으로 숨긴다. 완료 버튼을 누르며 왼손으로 유리문을 열었다. 외출의 목적지에 드디어 도착한 윤별이 고개를 숙여 제 몸을 한 번 확인했다. 집에서 막 나온 것 같은 후줄근함이 보인다.“어서 오세요.”무력한 인사말에 그 역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한다. 야간 아르바이트생을 지나쳐 냉장 매대로 향하는데 시선이 따라와 박힌다. 이동하는 내내 방어전을 펼친 것밖에 없는데, 혹시라도 보지 못한 곳에 핏자국 같은 게 묻어있나 싶어 걸음을 조금 더 옮긴다. 매장 구석 윗부분에 설치된 볼록한 방범용 거울을 통해 뒷모습을 보아도 별다른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혹시 냄새나나.’손목에 코를 박고 킁킁거려도 전혀 모르겠다. 혹시 제가 불계열 이능력자이다 보니 맡지 못하는 게 아닐까. 아무리 킁킁대도 폴리크세나를 안고 있었을 때 맡았던 향유의 향기만 난다.결국 주윤별은 일반인의 가녀린 멘탈과 섬세한 후각을 걱정하며 바나나향 우유와 삼각김밥 같은. 편의점 PB 상품으로 바구니를 가득 채웠다.[작품후기]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D!갑자기 선작이 올라서 깜짝 놀랐는데, 투데이 베스트 41~60쪽에 있더라고요.어제 업데이트했던 터라 정말 놀라서 새벽에 부랴부랴 더 썼네요mm)이르면 일요일, 늦어도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요!^^^어린양의 이름플라스틱 바구니에 쌓은 간식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하나라도 떨어뜨렸다간 산산이 조각난 과자를 먹게 될 지 모른다. 편의점 두 바퀴를 도는 내내 검은 눈동자는 떨어질 줄 모르고 달라붙는다. 사각지대에 몸이 가려졌을 때조차, 그가 있는 곳을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다.시간을 거스르기 전의 기자보다 끈질겼다. 일반인이 다른 일반인-물론 그는 헌터지만-을 이렇게 보는 일이 있을까 고민하며 사과맛 마이쮸를 집어 들었다.결국 야간 아르바이트생은 계산을 끝마칠 때까지 그를 바라보았다. 집요한 시선에 윤별이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기울였다.“저기요. 저 아세요?”안녕하세요. 없어요. 봉투에 담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에 이은 말은 명백한 시비조였다.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들킬 줄 몰랐다는 듯한 얼굴에 헛웃음이 터진다.“아뇨.”“계속 쳐다보길래. 절 아는 사람인 줄 알았네.”말허리를 뚝 잘라먹는다. 인벤토리 안에 편의점 봉투를 집어넣고, 카운터 너머의 그가 받았던 집요한 시선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카운터에 올려둔 손가락이 얇은 합판을 두드린다. 청록색 조끼에 달린 명찰을 내려다본다. 스토어 매니저 김형철. 주윤별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이름이었다.“앞으로 사람 쳐다볼 때, 조심히 봐요. 위험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시려 그래.”헌터와 빌런과 히어로가 난무하는 세상이다.연약한 일반인이 성격 나쁜 헌터와 안티히어로, 빌런에게 걸려 인생 종치는 꼴을 여럿 보았던 윤별이 삐딱한 목소리로 말했다.“김형철 씨는 좀…, 시선 처리를 조심해야 할 것 같네.”시선 한 번 잘못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이때, 헌터는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헌터관리국의 눈치를 보는 헌터는 적당히 고소로 끝낸다. 이때 일반인이 가지게 되는 죄목은 보통 이능력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집요한 시선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니 당장 법의 심판을 받으라는 쪽은 그나마 낫다.눈치 보지 않는 헌터들은 으슥한 뒷골목으로 끌고 가니 말이다. 이후에 신체 어딘가에 괴리감을 느끼는 채로 살아간다거나. 엄청난 돈을 바리바리 싸 들고 힐러를 찾아가는 것보다야 명예와 통장이 아픈 게 최선 아닌가.안티히어로는 수상하다며 온갖 불법 행위(도청, 미행, 추적 등)의 대상자로 만들 것이다. 한 달 넘게 지켜보며 수상한 점이 있나 끈질기게 바라보는데 그걸 또 일반인은 모른다. 대상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다가 비합법적인 일 하나 하는 순간, 그대로 그는 이승과 안녕이다. 머리에 예쁜 총 자국 하나 생긴 채 동해 앞바다를 둥둥 떠다닌다거나 경찰서에 홀랑 벗겨진 채 배송된다.최악의 경우는 역시 빌런이다. 일반인은 필연적으로 이승 탈출 넘버원을 찍는다. 빌런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면, 관종인 빌런을 바라보았을 때 조금 더 오래 살고, 아주 극적인 살해를 당한다는 것이다.인터넷에 떠도는 ‘대 헌터 시대에 일반인으로 살아남는 법.txt’도 읽어보지 않은 듯한 김형철의 눈동자를 빤히 바라본다. 아무리 같은 일반인이라도…. 다 큰 성인 남성이 초면의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적합하지 않다.“짜증 나게…….”감정 조각이 툭 튀어나온다.만약 그가 일반인이었더라면 저 시선에 급히 집으로 돌아갔을지 모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편의점에서 뛰쳐나온 남자가 해코지하진 않을까 걱정에 덜덜 떨다가. 도어락을 여는 순간 안도하며 현관에 주저앉았을지 모른다.그리고 그 만약은 주윤별에게만 가능했다. 주윤별은 초기 각성 등급부터 남다른 원소계 이능력자였으니까. 일순 치밀어오르는 불쾌감에 합판 위에 얹어진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손가락이 닿은 곳이 움푹 팼다.✤ ✤ ✤표면으로는 신입 헌터인 윤별의 디바이스는 끊임없이 울려댔다. 수험생활을 했던 지난 시간에서는 알 수 없었던 사건·사고를 알리는 울림이었다.또다시 손목에서 진동이 울리며 홀로그램이 떠오른다.<지원 요청><던전명: ‘밤의 장막(A)’><위치: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도당공원 내 부천백만송이 장미원>메시지를 내려다본다. 입구컷 당하는 던전까지 메시지로 보내는 건 무슨 경우람. 못 먹는 떡을 본 것만 같아 미간이 좁혀진다.‘밤의 장막(A)’은 밤에만 열리는 던전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던전에도 셧다운 제도를 차용하고 있다. 그 말인즉, 일당백의 S급 헌터일지라도 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이라면 입구에서부터 돌려보내 진다는 소리다.뭣도 모르는 미성년자 헌터가 지원하더라도 멍청한 디바이스는 모래시계 픽토그램만 송출해댈 게 뻔하다. 던전 앞에 가서 출입 허가 요청을 하면, 그제야 공무원이나 던전 지원팀에서 피곤한 낯으로 ‘미성년자는 집에 돌아갈 시간’이라는 말만 해댈 것이다. 커뮤니티에 처음부터 끝까지 욕설로 도배되었던 게시글을 떠올리며 검지로 아니오를 꾹 누른다.그대로 책상 위에 엎드린다. 오른쪽 팔을 길게 뻗고 그 위에 뺨을 얹는다. 파란색 볼펜을 쥐고 느리게 움직이던 손이 멈춘다. 팔꿈치를 틀어 옆쪽에 볼펜을 내려두고 베이지색 형광펜을 잡아 드는 손가락이 유독 희다.손끝에서 마디뼈로. 마디뼈에서 손목으로. 눈동자를 데굴데굴 굴려 도착한 곳은 다붓이 내리깐 눈이다. 고요한 푸른 눈동자를 가렸다가 드러내길 반복하는 속눈썹이나, 창문을 타고 들어온 빛에 희고 붉게 물드는 눈두덩이가 시선을 붙잡는다.공유진의 눈동자가 제게 얽혀들 때까지 가만히 바라본다. 공유진은 참 신기해서, 그가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있는 걸 귀신같이 알아채고는 했다. 이번에도 그렇다. 손을 바라볼 때는 모르더니, 눈을 보고 있자 곧장 시선을 마주쳐온다.심 심 해 ?붉은색이 고여있는 입술로 무음의 소리를 만든다. 얇은 피막 안의 붉음과 혀의 붉음의 농도를 비교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팔에 딱 달라붙어 있는 옆얼굴이 움직인다. 뺨 위에 흐트러져있던 짧은 머리카락이 귀 너머로 도망친다. 공유진은 눈매를 잔뜩 늘어트리고, 입매를 허물어트리며 웃었다.나 도윤별을 향해 고개를 기울이고 벙긋벙긋 입술을 벌린다.주윤별은 그 어이없는 대답에 허리를 곧추세웠다. 팔뚝에는 귀와 머리카락이 잔뜩 누르고 있던 자국이 남았다.“거짓말.”소곤거린다. 노트 위에서 움직이는 손을 한참 보았는데. 그 손의 주인은 전혀 심심해 보이지 않았다.“진짠데.”드디어 소리를 낸다. 이미 네 번이나 들은 한국 고등학교 수업이 뭐 그리 재미있다고 거짓말 하겠는가. 의심 어린 눈초리에 쥐고 있던 펜을 내려둔다.교탁에서는 톤 높인 목소리가 계속해서 수업을 쏟아내고 있다. 교실 안을 가득 메우는 음성을 흘려들으며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고쳐앉는다. 제 손 아래에 있던 노트를 가볍게 두드린다.“볼래?”“응.”공유진은 고민조차 하지 않은 즉답에 웃음을 잔뜩 참은 얼굴이 되었다. 그는 입술을 앙다문 채로 윤별에게 노트를 밀어주었다. 검은색과 파란색의 글씨, 베이지색 밑줄은 수업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교탁에서 열심히 강의 중인 내용이 단 하나도 없다. 전국구 모범생만 믿고 있을 선생님들이 보았더라면 눈물 흘릴 정도로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뿐이다.검은색 글씨는 오늘의 할 일 목록이고, 파란색 글씨는 단어들의 나열이다. 연결되지 않는 단어들이 연결되어 적혀있다.뉴욕, 아녜스, 수복, 구현화, 시간, 호드미미르, 정보, 멸망…….끝말잇기도 아닌 것이 이어지고 있다. 분명 주윤별이 ‘정확하게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흔쾌히 보여주었을 게 분명한 단어들을 뚫어지라 바라본다.다섯 번의 주윤별을 만나왔다니 알겠지만, 그의 학창 시절은 공부와 추리소설. 그리고 범죄 수사물 드라마로 가득했다. 수험생 생활따위 더럽고 힘들어서 못 해 먹겠다고 징징거리며 봐왔던 창작물을 떠올린다.“유진아.”“응?”“나 추리물 정말 좋아해.”“알아. 학생 때는 호라시오 반장님하고 결혼하고 싶었다고 말했었잖아.”윤별이 양손으로 제 얼굴을 가렸다.모르는 시간의 제가 원망스러웠다. 난 무슨 헛소리를 지껄이고 다녔던 거야. 이전에 못 깼던 머리를 지금이라도 깨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더 늦기 전에 스스로의 의지로 행하는 게 미래에 도움 되지 않을까. 윤별이 마른세수를 하다가 그대로 책상에 머리를 박으려 했다.이마를 감싸는 손길만 없었더라도 하려 했던 행동을 이을 수 있었을 거다. 낮은 체온의 손바닥이 잔뜩 열 오른 이마와 책상의 충돌을 가로막는다.“그러다 다쳐.”단호한 목소리는 염려를 담고 있어서 더 수치스러웠다. 연약한 책상-그것도 합판과 안이 뻥 뚫린 철로 만들어진-과 남다르게 튼튼한 이능력자가 부딪히면 당연히 연약한 책상이 다친다.“다치겠지… 나 말고 책상이….”웅얼대자 옆자리에서 짧은 웃음이 흘러나온다.“그만 웃어…….”팔이 흐늘거린다. 손을 대충 내젓는 행위에 공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윤별이 2학기가 시작되고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모르는 시간의 주윤별 원망하기’가 되었다. 어떻게 인간이 되어 이럴 수 있어. 혼자만의 괴로움에 허덕이는 동안 교단에 선 선생님의 얼굴이 바뀌어 있었다.결국 윤별이 택한 것은 뇌 속에서 가장 흥미로운 정보 꺼내기였다.미국의 경제적 수도 아래에 모여든 단어 여럿의 공통분모는 공유진만 알고 있겠지만, 그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는 누가 뭐라 해도 공유진이 다이어리에 적었던 숫자를 보고 살해당한 이능력자들임을 알아냈으니까.보통 사람이라면, 아무렇게나 굴리는 노트보단 다이어리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적는다. 그러니 우선되는 것은 피해자일 것이다.인생은 드라마가 아니다. 알고는 있지만, ‘물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지만, 내가 봐온 게 얼마인데!’와 ‘내가 그래도 추리물 애니메이션 보자마자 아 저게 범인이다. 하고 말하면 걔가 범인이었다.’가 번갈아 가며 뇌를 헤집는다.윤별이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스마트폰을 쥐었다. 공유진이 작성했던 단어를 순서대로 검색하기 시작한다.둥근 홈버튼과 측면의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눌러 캡처한다. 피해자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 부분을 잘라내어 메모에 사진 추가했다. 노란색 커서가 맨 아래에서 깜빡거린다. 엄지로 액정을 쓸어올리며 훑자, 유독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아녜스였다.뉴욕 바로 다음에 적힌 글자. 그리스어이자 성경에서 끊임없이 언급되는 양을 뜻하는 단어.사람의 이름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바치던 제사 제물을 뜻하는 말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두 개를 모두 뜻하거나 더 많은 것을 함축한 중의적 의미인가.한참 동안 스마트폰을 바라보던 윤별이 눈을 끔벅인다. 건조한 안구에 물기가 돌기를 바라며 느리게 눈꺼풀을 움직였다.아직은 뻑뻑한 눈동자를 굴려, 물 백묵으로 써 내려가는 글씨를 그대로 따라 적는 옆얼굴을 바라본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은 얼굴이 퍽 차가워 보인다. 생각해보면 그렇다. 지나치게 검어서 햇빛을 받은 곳이 푸르게 반사되는 머리카락과 흰 피부, 푸른 눈동자는 누가 보아도 차가운 색감의 것들이었다.보기만 해도 폭신폭신하고 말랑거리는 사랑스러운 단어와 동떨어진 이미지의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어린양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다.[작품후기](و ˃̵ᴗ˂̵)و 오늘도 읽어주시고 선추코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적어주신 코멘트 읽고, 현생을 견뎌내고 글 쓸 수 있었어요!주인공들 예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ಢ‸ಢ 너무 행복해요(큰절)쪽지로도 거주지역에 대해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트위터에 먼저 작성했는데요.저는 송도 거주민이 아닙니다! 송도는 송현아와 트리플스트릿에서 자주 쇼핑하고, 본업 일로 방문하는 일이 잦아요.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D^^^어린양의 이름“수험생이라는 놈들이 아침부터 왜 엎어져 있어? 다들 일어나!”벽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아침보단 정오에 가까웠다. 종이 치기 전, 교실에 들어온 남자가 주번에게 당장 에어컨을 끄라고 말했다.“공기가 탁하니 이 모양이지. 창문 열어라.”그는 몹시 못마땅하다는 기색으로 몇 분 없는 쉬는 시간을 빼앗는 말을 이었다.스마트폰에 고개를 처박고 있던 윤별이 고개를 들었다. 끊임없이 무어라 말하는 남자와 불편한 얼굴로 움직이는 학생들이 보였다.“아… 더워서 문 열기 싫은데….”긴 머리카락을 높게 묶은 차지현이 입술을 비죽거렸다. 여름에 창가 자리인 것도 싫은데 이젠 창문까지 열어야 하냐는 질문을 내뱉고 싶어 혀가 근질댔다. 그는 생활기록부를 떠올리며 혀를 둥글게 말았다. 지금까지 잘 만들어온 생기부에 잡스러운 문장 하나 넣을 수는 없다. 움직이기 싫어하는 몸을 독촉하여 자리에서 일어선다. 미적대며 창문 걸쇠를 푼다. 쨍한 햇빛과 습한 공기에 콧잔등을 찡긋거리는 동급생을 보며 윤별이 슬그머니 발을 굴렀다.<액티브 스킬, ‘태산(SS)’을 사용합니다.>―그러하다고 태산이 무너지겠느냐.바깥의 열기를 차단하고 에어컨 바람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짧은 눈부심에 남자의 눈이 주윤별을 향했다.“너…….”시치미 떼고 앉은 학생에게 무어라 말하고 싶다는 얼굴이었다.이능력자 살인사건. ‘최초의 삼신할머니’가 등장한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범죄는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손안의 작은 기계는 여과 없이 정보를 토해낸다. 인터넷 서버에 얼마나 많은 정보계 이능력자들을 갈아 넣었는지 언어는 자동으로 번역되어 나열된다. 번역된 문장 하나하나가 깔끔했다. 다른 건 몰라도 번역만큼은 7년 후와 비슷하다는 점이 퍽 감탄을 자아냈다.최신순으로 정렬한다. 굵직한 문장 아래에는 상대적으로 얇은 폰트가 자리 잡고 있었다. 윤별은 오른쪽 상단 끄트머리에 엄지를 가져다 댔다. 타이틀만 보기에 체크하자 얇은 서체들이 사라진다.가장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이는 신체계 이능력자 칼로스 라더였다.⌜5월에 던전에서 실종된 신체계 이능력자 칼로스 라더 사망 “타살 추정”⌟칼로스 라더와 관련된 정보를 넘긴다. 그다음은 카토 다이키에 대한 글이 이어졌다. 이능력자 연인의 손에 절명한 남자와 연인을 죽인 남자의 이름이 같은 문장에 있었다. 차가워진 손끝으로 액정을 끌어올린다. 많은 이들이 죽어 나갔음을 알리는 굵은 글씨가 건조하다. 정보를 찾기 위해 했던 검색이 정보만을 담고 있어서 표정이 이지러진다.일반인보다는 각성자가. 전투계열보다는 비전투계열이. B급 이상보다는 C급 이하가. 그렇다고 일반인에 가까운 F급은 아닌. 아주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이들의 죽음은 하나의 가십거리가 되어 쓰인다. 이다지도 많은 죽음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말은 없다. 주윤별은 자료를 훑어보며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눌렀다. 타인의 죽음이 가속하고 있다.검색창에 적어둔 살해를 지우고 돋보기 버튼을 누른다. 누군가의 죽음은 누군가의 각성보다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기사들이 줄을 잇는다.⌜NFL 댈러스 카우보이스 선수, 신체계 이능력자로 각성.⌟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슈퍼스타가 이능력자로 각성하여, 꼼짝없이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다. 그는 사실상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졌다. 시즌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각성하였기에 올 시즌은 댈러스의 부진이 예상된다…….댓글에는 이번 시즌은 말아먹었다며 분노하는 글과 슈퍼볼의 실종에 정신을 놓은 문장, 리빌딩에 대한 걱정, 드래프트 때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은 신입을 데려와야 한다며 한참 남은 드래프트를 기다리겠다는 선언, 그리고 왜 하필 신체계 C급으로 각성해서 경기도 못 하냐는 욕설 따위가 이어진다.죽음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각성 아래에는 무수히 많은 감정이 뒤엉켜있다.입안에 고인 침을 삼키듯 역겨움을 삼킨다. 이전 페이지로 되돌아간다. 엄지는 끊임없이 액정을 쓸어올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화살표를 누르기를 반복한다. 수많은 각성을 알리는 문구 사이에 죽음은 단문이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들 사이에서 홀로 한 문장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공유진이 기억하는 시간에서. 아마도 죽었을, 죽었을 게 분명한 주윤별의 기사도 딱 한 문장으로 끝이 났을까. 아니면 그의 각성처럼 떠들썩했을까.그는 제 옆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남자의 손목을 붙들고 싶었다. 지금 당장 그에게 대답하라고, 대답하라고. 제가 원하는 정보를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다. 하지만 고요한 눈동자를 보면 독촉할 수가 없다. 푸른 눈동자는 초여름의 약속이 되고 단어가 되어서.디바이스가 알람을 토해낸다. 전투계열 각성자를 애타게 찾는 메시지가 떠올랐다.“갈 거야?”수업 진도에 맞춰 문제집을 바라보던 눈동자가 주윤별을 향한다.“아니.”적어도 지금은 가지 않을 생각이었다.종소리만큼은 늘 경쾌하다.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릴 때면, 대한민국 고등학교는 미국 하이스쿨의 탈을 쓴다. 단점은 딱 종이 울릴 때만 탈을 쓴다는 것이다.“다음 시간에는 오늘 숙제로 내준 거 한 명씩 풀이할 거니까, 꼭 풀어와라.”알 수 없는 숙제에 윤별이 눈알을 데룩데룩 굴렸다.교실에 있었으나, 정신은 다른 데로 출장 보낸 지 오래인 윤별이 눈알을 데룩데룩 굴렸다. 회색 눈동자는 교탁 위와 제 바로 옆 책상, 그리고 약간의 거리를 둔 동급생들의 책상을 차례로 훑었다. 스터디 플래너, 다이어리, EBS 교재 위에 붙은 포스트잇. 다양한 곳에 숙제 범위가 적혀있다.“그럼 남은 수업도 잘 듣고. 다음 시간에 보자.”짐을 챙겨 든 선생님이 앞문을 통해 교실에서 빠져나간다. 윤별은 제가 본 것을 못 본 척하며 책상에 엎어졌다. 뜨끈뜨끈한 이마가 상대적으로 차가운 책상에 닿는다. 어차피 다음 시간이 되어도 그의 이름이 호명될 가능성은 0에 수렴했다.“아, 죽겠다.”피곤에 절은 목소리에 공유진이 고개를 기울였다.“왜?”“뇌를 너무 많이 썼나 봐.”“…….”걱정을 담았던 목소리가 침묵했다. 그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혀끝으로 입천장을 긁어대던 남자가 결국 손을 들어 올렸다. 손바닥으로 둥근 뒷머리를 가볍게 쓸어내린다. 느리고 조심히 움직인다. 손가락 사이에 베이지색 머리카락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공유진의 손이 멎자, 잘 정돈되고 있던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흐트러진다. 주윤별은 엎드린 채로 고개를 돌렸다. 책상과 맞닿아있던 부분이 발갛게 변해있다.“네 손 되게 시원하다.”“그래?”“응. 그러니까 더 해줘, 유진아.”주변에 있던 동급생들이 흐트러진 베이지색 머리카락을 힐끔였다. 그들은 청춘 드라마를 감상한다는 얼굴로 그다음 행동을 예측했다. 얼굴만큼이나 차가운 분위기의 공유진이 주윤별에게만큼은 온풍이 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둘이 사귀지도 않는데 다시 머리를 쓰다듬진 않을 거라고. 로맨스 소설 읽기가 취미인 김하나는 속으로 공유진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다. 정도의 문장을 떠올렸다.공유진은 아무렇지 않게. 그것도 무척이나 익숙하다는 듯 손을 올렸다. 김하나가 바라는 붉게 달아오른 귀 끝은 없었다. 그는 여상스러운 피부색으로 조금 더 섬세하게 손을 움직였다. 차가운 손끝이 윤별의 머리카락을 훑고 지나간다.“아.”노곤노곤해져서 눈이 감기기 시작한 윤별이 입술 틈으로 짧은소리를 냈다. 그는 고개는 가만히 놔두고 책상에 올리고 있던 팔을 움직였다. 움직일수록 몸이 뒤틀린다. 그는 불편한 자세에도 옆 이마를 떼어낼 생각을 하지 않고 손을 움직였다.교복 바지 대용으로 입는 네이비색 슬렉스에서 사과맛 마이쮸를 꺼낸다.“이거 먹어.”반쯤 감긴 눈으로 공유진에게 마이쮸를 건네준 윤별이 그대로 눈 감았다. 뒷머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손길이 드러난 목덜미에 닿은 것도 같았다.✤ ✤ ✤오늘따라 고요하다 싶다더라니,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진다.윤별은 하품을 내뱉으며 엉덩이를 움직였다. 엉덩이가 아래로 갈수록 의자 등받이가 방바닥에 가까워진다. 그는 방만한 자세로 눈을 끔벅였다. 강제로 맞이한 휴일이다 보니 뭐라도 하나 해야 할 것만 같다. 적당히 생산적인 일을 생각하던 윤별이 디바이스를 만지작댔다. 생각나는 게 딱히 없어 디바이스 화면 속 온갖 글자를 누르던 손이 마켓 위에 얹어진다.그는 시스템 마켓에 올라온 아이템, <잘 마른 부상\* 조각> 20개를 발견했다.“이걸 왜 올리고 난리지…?”이 좋은 걸 쿨거래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건 정말 감사합니다만.가격도 보지 않고 구매 버튼을 누른다. 김당근의 노동력을 꾀어낼 <잘 마른 부상 조각>을 바로 수령한다. 인벤토리를 열어 맨 아래에서 자리 잡은 장작을 보자 뱃속이 따뜻하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기분이다. 밀려오는 고양감에 윤별이 자세를 고쳐앉았다. 좋은 아이템이 더 있을지 모른다. 그 가정 하나만으로도 심장이 콩콩 뛴다.마켓을 뒤적이는 데 쓰던 디바이스에서 손을 떨어트린다. 그다음은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윤별이 스마트폰을 집어 들었다. 오랜만에 폰게임이나 한 판 하려고 해제한 잠금인데, 열린 화면은 헌터 커뮤니티 내 거래 게시판이다.“오…….”생산계 헌터들이 만든 포션을 시작으로 소모성 아이템들이 가득하다.누군가가 대량 구매하겠다고 주문을 넣었다가 취소하여 올린 것처럼, 많은 양의 아이템이 게시판을 차지하고 있다. 주유별은 던전에서 벌어들인 포인트를 확인했다. <잘 마른 부상 조각>을 사고도 백만 포인트가량이 남아있다.‘집-학교/던전-집’이라는 간결한 루틴으로 살아온 스스로를 향해 박수쳤다. 이 정도면 열두 살에 부자가 된 키라 부럽지 않다. 인벤토리를 가득 채울 것들을 익명으로 구매하기 시작했다.쇼핑에 한 번 맛을 들리니 모든 아이템이 다 필요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윤별은 같은 양의 마력을 채워준다고 하더라도 다양하게 사야 한다며 열을 올렸다. 왜냐하면, 색과 맛이 다르니까.B 헌터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마력 포션은 검보랏빛인데 M헌터가 판매하는 것은 아주 연한 민트색이다. 헌터의 마력에 영향을 받아 색이 제각각인 포션은 맛도 제각각이다.이온 음료같이 무난한 맛부터 씁쓸한 한약 맛이 나는 포션까지. 다양한 맛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니, 하나하나 마셔보며 제 입맛에 맞는 포션을 찾는 재미가 쏠쏠하다.무엇보다, 한곳에 모아두면 일단 예쁘다. 카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텀블러를 모으듯, 윤별 역시 다양한 색의 포션을 모았다. 그저 예쁘니까. 입맛에 맞지 않는 포션이라도 색이 예쁘다면 그의 인벤토리에 한 병씩은 있어야만 한다.인벤토리 하단의 숫자가 빠르게 줄어든다. 아득바득 모아온 포인트를 열심히 털어내고 나서야 스마트폰에서 손 뗄 수 있었다.건물 외벽을 두드리는 빗방울이 제가 담은 소리를 전달해온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식는 소리, 모기가 웽웽거리며 날아다니는 소리, 짝을 찾기 위해 하루종일 울어대는 곤충의 울음소리, 플리플랍이 바닥을 때리며 내는 경쾌한 걸음 소리는 빗방울에 먹혀들었는지 고요해진다.파릇했던 잎사귀가 말라가는 소리, 고양이의 솜방망이에 햇빛이 부서지는 소리, 낮게 울리는 웃음 같은 것들이 방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주유별은 창가에 양손을 얹고 발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드디어 고막까지 맛이 가버린 게 틀림없다.그게 아니라면 공유진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리 없지 않는가.[작품후기](۶•̀ᴗ•́)۶오늘도 읽어주시고 선추코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선작 2,000이 되었습니다;ㅅ; 처음 글 쓸 때는 200정도로 끝나는거 아닌가 했었는데... 정말 매일매일이 신기해요.뭐라고 더 쓰고 싶은데 이제 진짜 출근해야 해서 눈물의 후기쑈는 먼 미래로 미루겠습니다!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총총.\*부상: 중국 전설에서, 해가 뜨는 동쪽 바닷속에 있다고 하는 상상의 나무.+)1화 9페이지의 햇수는 해의 수를 표현하고 있음으로, 고치지 않았습니다:)^^^어린양의 이름<지원 요청>달랑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홀로그램 메시지를 시큰둥한 얼굴로 누른다.<던전명: ‘두 개의 해, 두 개의 달, 두 개의 화살(S)’><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계양산-계양산성>두 개의 해, 두 개의 달, 두 개의 화살.회색 눈동자가 던전명에 고정된다.두 개의 해, 두 개의 달, 두 개의 화살.그는 반복해서 던전명을 읽었다. 태초의 인간들이 겪은 고난과 투쟁이 담긴 한국신화였다. 그리고 그 신화는 깜찍이의 가장 중요한 메인 재료, <대별왕의 붉은 파편>이 드랍되는 던전이기도 했다.<던전 공략팀에 지원하시겠습니까?>주윤별의 손가락이 재빠르게 ‘예’를 향해 움직였다. 심장이 쿵쿵 요란하게 뛴다.모래시계 픽토그램이 느긋하게 뒤집힌다. 11:59:52. 모래시계 아래에는 하루도 남지 않은 시간이 깜빡거리고 있다. 깜찍이와 곧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다. 그가 모으지 못한 재료는 딱 두 개였다. <대별왕의 붉은 파편>과 <서천서역 약수>. 그 중 얻기 쉬운 재료를 말하라면, 주윤별은 단호하게 <서천서역 약수>를 고를 수 있었다.보통 신화는 그 신화를 구전하고 기록하는 곳에서 꽃피운다. 신화 던전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만 태동할 수 있다.그런 의미에서 <서천서역 약수>는 한국신화 내에서만큼은 나름대로 흔한 재료이다. 중학 과정에서 나오는 바리데기, 바리공주를 알지 못하는 한국인이 몇이나 되겠는가. 천지왕본풀이를 아는 이보다 바리공주는 모르는 이가 더 적을지 모른다.오른손으로 심장께를 누른 윤별이 호흡을 가다듬었다.‘천지왕본풀이도 열렸으니 바리공주도 곧 열리겠지? 진짜 곧 깜찍이 만나겠네. 어쩜 좋아, 너무 설렌다.’잔뜩 들뜬 마음이 쉽게 가라앉을 리 없다. 뼈를 뚫고 나와도 이상할 것 없이 뛰는 심장에 침대보를 걷어찼다.“주윤별!”각성하고 가장 불편한 점은 걷어차는 소리가 남다르게 크다는 거다. 거실에 있던 정선혜가 그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를 들으며 힘 조절을 되새김질했다.“미안!”커다랗게 미안하다 외친 윤별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열어젖혔다.“엄마. 나 내일 계산동 가요.”“거긴 또 왜 가.”마뜩잖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무리 수능을 포기했어도, 제 딸은 학생이었다. 대학에서 일하는 정선혜는 아주 가끔 ‘다른 건 몰라도 학교는 잘 나가’라는 말을 했는데, 그 가끔이 바로 오늘이 되었다.“천지왕본풀이 신화 던전이 열린다고, 지원 요청이 왔어.”그는 팔을 쭉 내밀어 디바이스 속 픽토그램을 보였다.“너무 위험한 거 아니니?”정선혜의 눈동자는 S에 고정된다. 그가 들어본 S급 던전은 딱 하나였다. 뒷동산 복숭아와 개살구(S). 최초의 삼신할머니가 등장할 수 있게 만든 던전이자, 최단 시간 클리어된 S급 던전. S급 던전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사상자가 없이 클리어되어 국격을 드높인 던전. 정선혜는 또다시 그런 행운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배제했다.“아냐, 괜찮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턱을 치켜세운 원소계 이능력자, 주윤별이 단언했다. 이전 시간선에서 두 개의 해, 두 개의 달, 두 개의 화살. 통칭 222 던전이 열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방문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클리어했던 사람이 바로 주윤별이었다.그는 날계란을 쥔 것처럼 손가락을 굽혔다. 가볍게 주먹 쥔 다음, 가슴팍을 두 번 두드린다. 볼록 튀어나온 엄지의 뼈마디가 둔탁한 소리를 냈다.정선혜는 내일 오전에, 그 역시 그쪽에 갈 일이 있으니 계양산 초입까지 데려다주겠다 말했다. 뻔히 보이는 거짓말에 윤별이 샐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그럼 나야 좋지. 엄마랑 데이트하는 느낌도 나고.”긴장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말이 이어진다.던전은 계양산성에 생성되었다.그 말은 즉, 죽음과도 같은 등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리였다. 그리고 윤별은 여느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등산의 디귿만 들어도 몸서리치는 사람 중 하나다. 땅을 밟지 않고도 정상에 오를 수 있지만, 단어가 가져오는 생리적 거부감은 여전하다.벌써부터 피곤하고 출출한 것만 같다. 세시간 전에 먹은 아침이 부실했던 것도 아닌데 그렇다. 배를 좌우로 문지른 윤별이 스마트폰을 들었다.초록창에 이미 알고 있는 상호 대신, ‘계양산 두부 전골’을 검색했다.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던 3G 속도가 오늘따라 유독 더 느린 것만 같았다. 흰 화면에 로딩 중이라는 표시를 계속해서 바라본다. 몇 년 후면 볼 일이 없는 점의 회전이 드디어 멈춘다.손가락으로 액정을 끌어올린다. XX순두부. 가끔 팀업하던 사권(본명: 권사혜)의 부모님이 하는 가게를 눌렀다. 권사혜는 원래 주윤별보다 조금 빠른, 2012년 여름에 A급으로 각성했으니 오늘 던전 공략에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다.“엄마.”“응?”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정선혜가 조수석에 앉은 주윤별에게 짧은 시선을 던졌다.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는지, 액정에 빛이 들어와 있다. 차에서 핸드폰 보면 눈 나빠진다는 소리가 나올 뻔했지만, 혀 아래에서 겨우 삼켜졌다.“우리 두부 전골 먹을까?”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던 게 이른 점심 메뉴였나보다. 정면을 보고 있던 정선혜가 제가 듣고 있는 게 사실인지 고민하는 사이, 주윤별은 퍽 신이 난 얼굴로 말을 이었다.“진짜 진짜 맛있대. 두부 전골이야말로 등산하러 가는 이유래, 엄마.”계양산 아래. 두부 전골을 파는 집은 열 개도 넘지만, 유독 맛있는 집이 있다는 글을 보았다고. 그곳이 바로 XX순두부집이라며 조잘거린다.던전 정보를 찾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두부 전골이다. 긴장감이라고는 하나 보이지 않는 모습에 정선혜는 깊은 한숨을 뱉었다.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던 긴장이 한숨과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갔다.그가 한숨 쉬던 말던 신경 쓰지 않는 주윤별이 XX순두부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맛에 대한 서술을 읊기 시작했다. 그 열성적인 설명에 이젠 딸이 먹으러 가는지, 아니면 던전 공략하러 가는지 알 수 없어졌다. 점점 복잡해지는 속내에 윤별의 말을 끊는다.“그래. 이제 핸드폰은 그만 봐.”“네에네에.”“대답은 짧게 해야지.”“넵!”한숨이 내려앉은 곳에 결국 짧은 웃음이 얹어진다. 정선혜는 주윤별이 말하는 곳으로 핸들을 꺾었다.낡은 간판과 협소한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테이블과 의자,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손님들까지. 통상 말하는 ‘맛집’의 모양새에 정선혜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벽지에는 ‘20110321. 예지랑 준환이 다녀감’처럼 그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는 방명록이나 하트 같은 것들로 가득했다. 옆 의자에 가방을 내려두며 앉는다. 아무리 봐도 제 딸의 취향과는 거리 먼 가게였다.“괜찮겠어?”걱정을 담은 물음에 윤별은 두 눈을 느리게 끔벅이며 고개를 기울였다.“응? 뭐가?”제 엄마의 걱정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 되묻더니, 곧장 손뼉 친다.“던전 말이지? 나 진-짜 괜찮아. 나 방어 스킬도 빵빵해서 다칠 일 없는 거 알고 있잖아.”금강산 부처님의 방어가 깨질 일이 몇이나 되겠어.어지간한 일로는 실금 하나 가지 않는 SS급 스킬, 태산을 향한 굳은 믿음을 드러낸 윤별이 손을 번쩍 들었다.“사장님, 저희 두부 전골 대자 하나 주세요!”“네-!”가게 안쪽에서 대답이 들려왔다.“먹고 가도 안 늦니?”숟가락을 테이블 위에 세팅하던 움직임이 멎는다. 그는 제 디바이스가 가리키는 시간을 재차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응. 밥 먹고 편의점도 들렀다가 가도 될 것 같아.”“계양산성이라며.”등산해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하냐는 얼굴이다.“괜찮아, 괜찮아. 땅은 안 밟고 갈 거야.”“이동기 없어서 불편하다 하지 않았어?”“맞아. 엄청 불편해. 그래도 불 밟고 다니면 되긴 하니까, 진짜 괜찮아.”어제부터 ‘괜찮아’만 엄청 말한다며. 이러다 오늘 누가 툭 치면 ‘괜찮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냐며 너스레 떤다. 그는 곧장 불꽃을 피워내 세밀히 다듬었다. 얇은 판 여러 개와 작은 구체 하나를 만들고 손가락을 까닥댄다. 동그란 불덩이가 계단처럼 늘어진 얇은 판을 오른다. 지나온 판이 사라지고 저 멀리에 또 다른 판이 만들어진다.손끝이 불덩이만 남긴다. 불덩이는 판 위에서 통통 튀던 것보다 느리지만, 원만한 곡선을 그리며 움직인다. 시간이 넘쳐나지 않는 이상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토템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었다.“토템이 있어서 이렇게도 오를 수도 있어.”이동용 스킬은 없어도 <백학이 떨어뜨린 날개깃>을 잘 사용하면 계양산성 높이까지는 금방이다.테이블에 밑반찬이 세팅되기 무섭게, 곧바로 두부 전골이 나왔다. 윤별은 눈앞에서 둥둥 떠다니는 불꽃을 거둬들였다. 중앙에 놓인 두부 전골에서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났다.“헌터님도 계양산 던전 가요?”처음처럼 로고가 박힌 앞치마를 멘 중년 여성이 테이블을 확인했다. 그는 덜 나온 음식이 있나 확인한 다음, 윤별에게 질문했다.“네. 학생이라고 부르셔도 돼요.”“어휴, 매번 호칭 때문에 골머리 아파 죽겠다니까. 조심히 다녀와요, 학생. 우리 딸도 오늘 거기 가는 데 아주 걱정이야.”“네에, 그럴게요. 사장님 따님도 헌터예요?”윤별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질문했다. 그에 XX손두부 사장님은 긍정하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 그는 국자를 들어 뽀얀 두부에 국물을 끼얹으며 딸 이야기를 시작했다.이번 여름에. 그러니까 각성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게 얼마나 열심히 싸돌아다니는지를 시작으로 온갖 정보가 쏟아졌다. 그래도 남들하고 같이 다니면 다행인데, 제 딸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는 걱정어린 말이 이어진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정선혜가 주윤별에게 눈짓했다.‘너 같은 애가 또 있나 보다, 얘.’윤별이 어색한 미소를 띠자, 정선혜가 고개를 끄덕였다.“우리 딸도 그래요. 얘가 봄에 갑자기 각성하더니 별 지역 다 다니고 있어요. 이러다 전국 팔도 다 찍고 해외까지 나가게 생겼어요.”망아지 같은 딸을 둔 어머니들의 시선이 마주친다. 다른 곳에서 말하면 자랑하냐는 소리를 들어 말 못 하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속 터지는 날의 연속인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것에 개탄했다.옆자리에 두었던 가방까지 치우며,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하나뿐인 딸이 남들과는 다른 망아지라는 사실에 또 한 번 개탄하며 공통점 찾기에 연연했다.주윤별은 XX손두부 사장님, 이현미 씨와 정선혜 씨의 우정 쌓기를 보며 두부 전골을 먹어 치웠다. 본의 아닌 눈칫밥을 먹고 있는데도 맛있었다. 권사혜가 입이 닳도록 자랑하는 맛집다웠다.“현미 씨!”가게 문을 슬쩍 열고 가슴팍까지만 들어온 여자, 권사혜가 눈꼬리를 휘어트리며 제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댔다.“엄마가 엄마 이름으로 부르지 말랬지!”버럭 튀어나온 노성에도 권사혜는 생글생글 웃었다. 윤별이 숟가락을 내려두고 권사혜를 바라보았다. 윤별보다 조금 긴 머리카락을 억지로 그러모아 묶은 탓에, 잔머리가 삐져나와 있다. 눈꺼풀에 반쯤 숨은 올리브그린색 눈동자가 따뜻해보인다.“우리 멋진 현미 씨가 오늘따라 화가 많으시네! 아휴, 무서워라!”권사혜가 문 뒤에 숨었다가 다시금 고개를 내민다. 속 터져 죽겠다는 얼굴의 이현미에게 손바닥을 보인다. 그대로 죔죔 하며 인사한다.“현미 씨의 멋진 딸은 이제 출근할 거야!”“너 거기 딱 멈춰!”도망치려는 권사혜를 향해 이현미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작품후기]꒰ღ˘‿˘ற꒱오늘도 읽어주시고 선추코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선작에 이어 추천도 2,000이 막 넘었더라고요! 귀찮음을 이겨내시고 추천 꾹꾹 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본문을 다 쓰고 나면 꼭 출근 준비하러 갈 시간이 된다는 게 아쉬워요( ´•̥×•̥`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어린양의 이름(1/2)다음편이 있습니다!이현미 손에 붙잡힌 권사혜가 눈을 데룩데룩 굴렸다. 동그란 올리브그린색 눈동자로 제가 처한 상황을 가늠하는 듯했다. 주윤별은 권사혜의 침묵이 5분도 가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권사혜는 제 손목의 디바이스와 부글부글 끓고 있는 두부 전골, 초면의 손님들에게 차례로 시선을 던졌다. 유일하게 소리를 내는 게 곧 눌어붙기 직전인 두부 전골뿐이었다. 그 어색한 고요에 숨이 턱 막혔다. 떨리는 눈동자가 제 어머니인 이현미에게 고정된다.“현미 씨……?”아무 말 없는 이현미의 옷자락을 붙잡은 권사혜가 슬그머니 소리를 냈다. 저를 붙잡아 앉혀두었으면 무슨 말이라도 해달라는 눈짓을 보냈다.“딸.”“응……?”‘권사혜!’가 아니라 ‘딸’이라 불린 것조차 어색해서 속이 울렁거린다. 몸에 밴 공포감이 고개를 치킨다. 이 테이블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의 레드라이트가 울려 퍼졌다. 살살 눈치 보던 권사혜가 황급히 말을 잇는다.“현, 현미 씨…, 그, 안 급한 거면 나 던전 갔다 와서 말해주면 안 될까…? 이제 진짜 출발해야 하는데….”“니 오늘도 혼자 입장하나?”꽁지머리가 위아래로 움직인다.“잘됐네. 여, 학생도 혼자 간단다. 니랑 같이 가면 되겠네.”태어나서부터 쭉 인천에서 살아온 이현미가 알 수 없는 사투리가 뒤섞인 말투로 말했다. 권사혜의 눈동자는 이현미의 단단한 표정을 지나, 테이블 내의 가장 젊은 사람을 가리키는 손바닥에 닿았다. 올리브그린색 눈동자가 빠르게 끔벅여진다.“현미 씨… 나 스급 던전에서는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데….”민증도 나오지 않은 것처럼 생긴 미자를 데리고 무슨 던전에 가냐며 눈으로 말해요를 시전했다. 주윤별은 어깨를 한 번 으쓱인 후, 정선혜를 바라보았다.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듯 구는 정선혜의 옆얼굴을 보며 입술을 열었다.“엄마. 나 이제 편의점 들렀다가 출발할까 봐.”“벌써?”조금 크게 뜨인 눈동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밥 먹고 가도 되겠냐고 묻던 게 방금인 것 같은데, ‘벌써’가 되어버렸다. 짧은 웃음을 흘린 윤별이 투닥거림을 멈춘 모녀를 응시했다.“그쪽은 안 가세요?”별다른 소개가 없었으니 칭할 호칭이 마땅치 않았다.“가요. 가야죠!”주윤별을 구원자라도 된 것처럼 바라본 권사혜가 벌떡 일어섰다.“현미 씨, 안녕, 안녕! 멋진 딸은 출근합니다!”이현미를 향해 격렬한 손 인사를 하더니, 대답도 듣지 않고 쌩하니 XX순두부집을 빠져나간다. 뒷목을 붙잡은 이현미와 그런 그를 다독이는 정선혜, 난장판이 된 순두붓집에서 조용히 식사하는 손님들까지. 드라마의 한 장면이 완벽하게 재현된다.주전부리로 가장 큰 봉투 두 개를 채우는데 2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디바이스로 결제하고 봉투를 양손에 쥔다. 던전 안에서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실 귀한 몸을 보니, 절로 뿌듯한 얼굴이 된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얌전히 인사하고 나선 윤별이 고개를 들었다. 저 멀리 산이 보인다. 메마른 나뭇잎이 여러 색으로 단장하고 있는 게 선명하다. 그는 달려가 버린 권사혜가 어디쯤 갔나 예상하며 붉은 벽돌에서 발뒤꿈치를 떼어냈다.토템만 사용해 오르려던 마음을 고쳐먹는다. 지금은 없는 시간이지만, 마지막 내기의 스코어는 동점이었다.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는 신체계 이능력자와 와이번의 멱을 딴 수가 같다는 게 생각날 때면, 자존심이 엉엉 울며 그딴 식으로 할 거면 헌터짓 때려치우라 소리 질러 댔다.걸을 때마다 지면과 멀어진다. 징검다리처럼 드문드문 만든 불을 밟고 지나갔다. 폴짝폴짝. 발바닥과 불이 닿을 때마다 푸른불이 희게 빛났다. 아래에서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무어라 떠들다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미는 손짓에 속도를 높인다.계양산 초입에서 제법 떨어진 곳에서 권사혜의 꽁지머리가 보인다. 윤별은 계양산성과 제 거리를 가늠하며 가볍게 손뼉 쳤다. 다른 계열의 이능력자였다면 빨라봤자 초입이었을 텐데, 권사혜는 신체계라고 그 짧은 시간에 많이도 왔다.‘역시 신체계 이능력자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주윤별이 보폭을 넓힌다. 걷기에서 벗어나, 뜀박질에 가까워졌다. 불꽃은 이제 발이 가는 곳에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권사혜의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발을 놀렸다. 목적지인 계양산성 위에서 불꽃을 없앤다. 지면으로 뚝 떨어지는 몸뚱어리가 공기를 가로지른다. 발목에서 불투명한 날개가 생기고, 깃털 홀로그램이 흙바닥 위에 내려앉았다가 사라진다.허리를 굽혀 슬랙스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낸다. 황갈색 먼지가 검은 천 자락에서 손가락으로 이동한다. 손을 털어내자 불꽃이 이물질을 먹어 치운다.“또 보네요.”반듯한 자세로 서자 마자 보이는 얼굴에 윤별이 입꼬리를 슬쩍 끌어당겼다.권사혜.제가 더 늦게 도착한 게 이상하다는 표정과 억울하다는 표정이 뒤섞인 얼굴의 권사혜. 주윤별의 얼굴과 손을 번갈아 가며 바라보는 권사혜.윤별이 볼 안의 여린 살을 깨물었다. 웃음을 참고 있다는 티를 내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권사혜에게 터져 나온 목소리에 흘러나갈 뻔했다.“왜…….?”왜 내가 먼저가 아니지?넋이 나간 얼굴이 퍽 오랜만이라 반가웠다.보통 권사혜가 보이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신이 난 사람처럼 웃어젖히며 가운뎃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입으로는 ‘그릏-게- 꼬우시면 네가 A급으로 각성했어야지.’ 같은 말을 지껄이는. 얼굴과 손, 말로 모두 욕하던, 헌터계의 파이터라 불리던 모습이지, 지금처럼 솜사탕 씻긴 너구리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꾹 다문 입술이 움찔움찔거린다. 분명 뭐야, 억울해, 왜? 따위의 말을 삼키고 있을 게 뻔하다.“일찍 도착하셨네요.”약 올리듯 내뱉은 말에 권사혜가 미간을 좁히며 바짝 다가온다.“저기요.”“네.”“어떻게 나보다 빨리 왔어요? 오는 길에 못 봤는데.”신발을 가리키며 신코로 바닥을 툭툭 친다. 흙바닥 바로 위에 불꽃이 튀고, 불꽃은 천천히 제 영역을 넓힌다. 불꽃으로 만들어진 징검다리를 향하는 눈길을 확인한 윤별이 그대로 뛰어올랐다. 백학이 떨어뜨린 날개깃이 윤별의 몸을 안정적으로 받쳐준다. 그는 그대로 걷는 시늉을 하다가, 불꽃을 밟았다.“원소계 진짜 사기야…….”곧바로 이해한 권사혜가 입술을 삐죽인다.“그건 신체계가 더 심하잖아요.”“별로. 신체계 구려요.”맨몸으로 미사일을 맞아도 멀쩡할 A급 신체계 이능력자의 말에 주윤별이 한쪽 눈썹을 치켜세웠다. 원소계는 등급별 편차가 극심하지만, 신체계는 무난히 강하다. 던전 파티를 짜더라도 원소계 D급보다 신체계 E급이 인기인데 어디서 신체계가 구리다는 헛소리인가. 그는 땅에 발을 붙인 뒤 손을 휘저었다.“사장님께 다 들었어요.”나 말고 엄마가. 주윤별은 과거이자 미래가 될 일화를 떠올렸다. 다른 A급보다 튼튼한 권사혜가 저 혼자 상처 하나 없이 던전에서 나오는 일은 일상이다. 그는 저 맨주먹으로 그리핀의 단단한 대가리를 깨고 황금을 가져온 인간이었다.“에엥. 우리 엄마가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요?”“그쪽이 여름에 각성했다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죠…….”“아…. 아…! 엄마!”비명 같은 단말마가 터졌다. 손을 내저으며 더이상 말하지 않아도 된다며 진절머리 친다. 그는 우리 현미 씨는 내 이야기를 온 동네에 쫙 뿌려서 소문을 다 내더니, 이제는 다른 동네 사람에게까지 말하고 다니는 거냐며 한숨을 푹푹 내뱉었다. 윤별은 권사혜의 괴로움을 보며 인벤토리에 편의점 봉투를 집어넣었다.두 손으로 제 얼굴을 쓸어내린 권사혜가 코를 훌쩍였다.“그쪽이 아니라 권사혜예요. 닉네임은 사권이고, 이름이든 닉네임이든 상관없어요. 편하게 불러줘요.”오른손을 내민 권사혜가 상대방과 눈을 맞췄다.“반가워요, 사권 씨. 전 주윤별이에요. 닉네임은 물리고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사혜 언니라 불렀던 과거가 사라진 게 못내 아쉽다. 아쉬움을 혀 아래로 삼키며 처음 만났을 때 불렀던 호칭을 꺼내 든다. 사혜 언니라 부르기 시작한 이후, 사권 씨라 부를만한 일은 딱 한 가지였다. 서로 장난치며 떠들 때. 괜히 낯설어진 발음에 부스스 웃음을 흘린다.“물리?”고개를 끄덕인다. 또 너구리 같은 얼굴이다. 윤별은 손바닥을 쫙 펼쳐, 권사혜의 얼굴 앞에서 팔랑댔다.“사권 씨.”정신 차리세요.지금의 권사혜는 주윤별이 처음이니, 예의상 뒷말은 잇지 않았다.“형이 왜 여기서 나와……?”“던전이 열렸으니 여기서 나오죠. 사권 씨, 줄 서러 갑시다. 인천 던전 지원팀이 이쪽을 빤히 보고 있는 거 안보여요?”“아니…, 아니…!!”눈빛만 봐도 척척 손발을 맞추던 권사혜의 입에서 나올 말이야 뻔하다. 끽해봤자 지금 중요한 게 던전 지원팀은 아니지 않냐는 질문일 것이다. 윤별은 디바이스가 알리는 던전 입장등록 잔여 시간을 확인시켜준 뒤, 먼저 걸음을 옮겼다.던전 지원팀이 건네는 서류를 받아든다. 여섯 자리의 숫자, 182101을 시작으로 빈칸을 순식간에 채운다. 옆에서 천천히 서류를 작성하는 권사혜의 꽁지머리가 삐죽 솟아있다. 장난치며 서로의 머리카락을 헝클이던 시간이 떠올라 손을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다.“다 했어요?”목덜미에 쏟아진 잔머리와 검은 머리끈이 동여맨 머리카락에서 눈을 떼어낸 윤별이 물었다.“네.”“좋아요. 그럼 저랑 파티할 거죠?”여상스러운 어조로 전혀 상관없는 대화를 잇는다. 아직도 삐거덕거리는 권사혜가 네. 하고 대답했다. 각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더니,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리숙한 모습이 줄줄 새어 나온다.“네?”드디어 제가 한 말을 인지했는지, 올리브그린색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본다.“파티요. 방금 저랑 하기로 했잖아요. 여기 마지막에 서명 안 했어요, 사권 씨.”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린다. 얼떨떨한 눈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걸 보니 즐거워 죽을 것만 같았다. 이래서 권사혜가 스무 살의 저를 그리도 놀렸었나 싶을 정도였다.주윤별은 권사혜의 옆에 딱 달라붙어 걸었다. 상대적 던전뉴비, 사권에게 어떤 던전에 가봤는지에 대해 물으며 계양산성 구석의 던전 브레이크 입구 앞에 섰다. 거대한 타원형 입구에서 쏟아져나온 검은 연기가 지면에서 넘실댄다. 연기는 뜨거운 열기를 내뿜다가도 지면을 흠뻑 적실 정도로 차가운 냉기를 담는다.순식간에 뒤바뀌는 온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유일한 헌터, 주윤별이 주변을 둘러보다 등허리를 곧게 핀다.“언니, 오랜만이에요!”긴 머리카락을 한데 모아 묶은 공무원, 한유선을 향해 눈꼬리를 휘어트려 웃었다.^^^어린양의 이름(2/2)한유선은 여전히 모난 부분 없이 둥그스름한 분위기 속에 있었다. 그는 주윤별의 부름에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깨너머로 흰 활대가 보인다. 고아한 문양이 음각된 활대는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이었다.주윤별은 권사혜를 데리고 한달음에 그에게 다가갔다.“무기 바꾸셨나 봐요!”“뭐야. 둘이 아는 사이예요?”권사혜가 불쑥 질문한다.“네, 무기 바꿨어요. 물리님과는 봄에 한 번 만난 적 있고요.”한유선이 순서대로 대답했다. 아는 사람 옆에 아는 사람. 헌터는 한 다리 건너면 다 안다더니, 신입 각성자에게도 통하는 말인지 처음 알았다며 한유선이 눈꼬리를 휘어트렸다.“언니는 이번 던전도 지원이에요?”“네. 저번에도 신화 던전에서 만난 것 같은데…….”“맞아요. 저번에는 에다였죠?”제 기억력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표정이 밝아진다. 권사혜는 제 옆의 두 사람이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을 구경하다가, 던전 지원팀에게 받은 쇼핑백을 들여다봤다. 생수 세 병과 에너지바 한 박스, 얇은 담요, 붕대를 포함한 간단한 상비약 같은 것으로 가득하다.심각한 얼굴로 쇼핑백 안을 노려보던 권사혜가 고개를 들었다.“유선 씨.”“네?”“인천시 돈 없지 않아요? 우리 빚 진짜 많은데 이게 다 뭐지?”인천시 소속 던전공략팀의 헌터, 일명 공무원 헌터인 한유선은 하반기가 되어 자주 받는 시선에 어색한 미소를 그렸다. 인천시에 사는 헌터들이 지원품을 받고, 확인하고 나면 꼭 던전 지원팀에 물어보는 말이었다. 우리 지역 빚이 많지 않냐고. 너희 이렇게 세금 낭비해도 괜찮은 거냐고. 착잡함과 질타가 섞인 담긴 목소리에 고개를 내젓는다.“인천시에 거주하시는 헌터분들이 노력해주신 결과죠.”“헌터 세금 무시 못 해요, 사권 씨.”윤별은 제가 ‘물리’라는 닉네임을 달고 벌어들인 포인트와 납부한 세금을 상기하며 말했다. 한유선은 그 옆에서 분기별로 따박따박 걷어가는 세금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는 뉴비 헌터를 향해 온화한 미소를 그렸다.사실 비각성자와 단위부터가 다른 금액을 납부하면서도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른다. 1세대 디바이스 유저가 아니었다면, 최소한 곱절이 되는 금액이었을 거다. 폭탄처럼 느껴지는 헌터세에 진절머리 쳤다.“그 정도예요?”아직 납세해보지 않은 권사혜의 질문에 윤별이 애써 입술을 끌어당겼다.“경험해보면 알아요. 사권 씨도 곧이잖아요.”8월에 각성해서 이번 분기부터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될 권사혜가 코끝을 찡긋였다. 아무 생각 없이 시스템 마켓과 거래 게시판에서 이것저것 사댔나 싶어진다.새빨간 확성기를 든 남자가 목을 주무르며 간이단상에 올라섰다. 확성기의 버튼을 유심히 살핀 뒤에 오른쪽 버튼을 눌렀다.삐이익―!그는 미간을 한번 좁히더니 확성기를 입에 바짝 댔다.“아아, 여기 주목해주십시오!”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것 같은 목소리가 온 산을 울린다.“그럼 이따, 던전 안에서 봐요.”속삭이듯 말한 한유선이 슬쩍 손을 들어 올렸다.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친근한 척하는 게 아닌가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가벼운 눈웃음을 그리며 답인사를 한 주윤별과 손을 팔랑댄 권사혜가 한유선과 떨어져 섰다.“이번 던전은 우리 한국 신화인 천지왕본풀이 던전으로 추정됩니다. 던전 안은 극심한 추위와 더위가 기다리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입구 주변에만 가도 극명한 온도 차이가 느껴지니 확인 후 입장 부탁드립니다. ‘두 개의 해, 두 개의 달, 두 개의 화살’이 천지왕본풀이 신화 던전일 경우, 해와 달 각 하나씩을 활로 쏘아 맞히셔야 합니다. 활을 주 무기로 다루시는 신체계열 헌터분들은 거수 부탁드립니다.”한유선을 포함한 세 명의 헌터가 손을 든다. 남자는 확성기를 잠시 내리고 옆에 있는 또 다른 남자에게 짧은 단어를 툭툭 던졌다. 그러고는 또다시 확성기를 제 입가에 바짝 댄다.주윤별은 정보분석계 이능력자가 뽑아낸 던전 정보 브리핑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렸다. 누가 봐도 대충 듣고 있다는 얼굴에 가끔씩 시선이 꽂힌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스템 마켓에 <도마뱀 가죽 로브>를 검색했다. 접두어로 최고급, 고급, 중급, 저가형이 달린 채 팔리고 있다. 어차피 모든 로브에게 공평한 내구도를 선사하는 던전, ‘두 개의 해, 두 개의 달, 두 개’의 화살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그는 망설임 없이 중급 로브 두 벌을 구매해, 곧바로 수령했다.“그럼 우린 저 사람들 중 한 명 옆에 붙어 다니면 될까요? 우린 유선 씨 쪽에 붙을까요?”얌전히 남자의 이야기를 듣던 권사혜가 소리를 낮춰 물었다.“굳이요?”저도 모르게 되물은 윤별이 제 뺨을 긁적였다. 여기에서 권사혜가 가장 뛰어난 신체계일 텐데 굳이 다른 신체계 옆에 붙어 다니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물리님은 활도 쏘실 수 있는 거예요?”골때리는 호칭에 이상한 표정이 툭 튀어나온다.“왜 님 자를 붙여요. 편하게 부르세요, 사권 씨.”“아니 그래도, 물리님은 물리님인데. 커뮤니티에서 부르던 것처럼 형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권사혜가 제 편협하고 고정관념에 찌든 머리통이 주윤별의 성전환까지 시켰었다며 이실직고 말했다. 이전 시간선의 권사혜에게서는 듣지 못했던 말에 윤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까 형이 왜 여기서 나오냐고 물었을 때부터 대충 눈치채고 있던 사실이었다.“괜찮아요. 그리고 저 활 잘 쏴요.”활대부터 화살까지 모조리 불로 만든 활이라면 자신 있다. 물론 이번 던전 안에서 활을 쏠 사람은 권사혜다. 그 누구보다 뛰어난 A급 신체계를 놀리는 건 시간 낭비다. 연약한 육신을 지닌 원소계, 주윤별이 여상스럽게 웃었다. 그에 권사혜는 저보다 반 뼘 정도 큰 주윤별을 보며 눈꼬리를 휘어트렸다.지나치게 새까만 타원형 던전 입구에 줄이 길게 늘어선다. 윤별은 권사혜와 줄의 끄트머리에 섰다. 불안한 얼굴과 흥분에 잠긴 얼굴, 단단하게 굳은 얼굴 등. 모든 이들의 표정이 각양각색이다. 인벤토리에서 <도마뱀 가죽 로브> 두 벌을 꺼낸다. 안개가 품은 기운에 따라 흰색과 검은색으로 뒤바뀌는 로브를 툭툭 턴다.“그게 뭐예요?”뉴비 헌터, 권사혜의 질문에 그의 올리브그린색 눈동자에 제 회색 눈을 맞춘다. 차분한 색으로 그 누구보다 밝게 빛낸다.“사권 씨랑 입을 옷이요.”“에.”표정으로 그 옷 너무 못생겼다고 말한다.“저가형은 더 못생겼어요.”“에엑.”어떻게 저기서 더 못생길 수 있어요.믿지 못하는 권사혜에게 디바이스로 시스템 마켓의 링크를 공유한다. 그는 그럴 리 없다며 링크를 눌렀다. 둥근 눈매 속의 눈동자가 정처 없이 흔들린다. 이내 말까지 잃은 일행의 어깨에 로브를 둘러준다. 끈으로 단단히 묶고 모자까지 야무지게 씌워주는데, 권사혜의 입술이 혼자 움직이는 게 보였다. 사이좋게 붙었다가 뚝 떨어져서 흰 치아를 슬쩍 드러내고 또다시 붙는다. 저도 모르게 뻐끔거리는 듯했다.근 일 년 만에 보는 표정에 윤별이 슬쩍 말을 덧붙인다.“시스템 마켓에서 파는 장비는 대부분 못생겼다는 거 알잖아요.”시스템 마켓에서 파는 가성비 좋은 아이템들의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았다. 모름지기 사회적 동물이라면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니, 제 미적 감각에 맞춘 아이템을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던전에서 번 돈을 싸 짊어지고 생활의 탑에 방문하는 코스를 밟는다. 남들보다 더 예쁘고 뛰어난 아이템을 향한 욕망은 절대 사그라들지 않는다.“그럼 갑시다.”주윤별은 로브를 두르고 권사혜의 손목을 잡아 이끈다. 던전 입구를 통과하는 순간, 온 세상은 어둠에 잠겼다.[던전 입장 시, 기습에 주의하십시오.]어둠 속에서 던전 입장 메시지가 흐린 빛이 되어 떠오른다.[두 개의 해, 두 개의 달, 두 개의 화살(등급:S)에 입장하였습니다.]어둠을 밀어낸 빛이 쏟아진다. 눈 앞머리가 시큰해질 정도로 밝아진 배경에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뜬다. 던전 내부는 지나칠 정도로 환해지다 새까만 어둠에 잠긴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자, 오로지 두 개의 달만이 떠 있다. 달은 빛과 냉기를 함께 뿜어내며 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숨을 쉴 때마다 뿌연 입김이 흩어진다.“으…. 추, 워….”권사혜가 입을 벌리자, 치아가 부딪치며 딱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빈손으로 검게 변한 <도마뱀의 가죽 로브>를 목숨줄이라도 되는 양 꼭 움켜쥔다. 윤별은 주변을 둘러보며 권사혜의 손목을 고쳐 쥐었다.“조심해요.”초입부터 시체가 늘어져 있다. 햇빛에 타죽은 시체와 달빛에 얼어 죽은 시체가 뒤엉킨 지옥도. 미약한 달빛을 따라 걷는다. 아무리 걸어도 생명체가 내뿜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들보다 먼저 들어온 헌터들도 조차도 보이지 않는 던전에 혀를 끌었다.미간을 좁힌 윤별이 손가락을 까닥였다. 창백한 밤에 불덩이가 피어오른다. 어깨를 굽힌 채 윤별에 바짝 붙어있던 권사혜가 반색했다. 불덩이가 쪼개진다. 작은 불꽃이 되어 권사혜 주변을 떠다닌다.“진짜 얼어 죽을 뻔했네.”푸른 불꽃이 내뿜는 열기에도 던전 안의 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지독하게 시린 밤공기에 새하얀 숨 자국이 계속해서 퍼져나간다.“물리님은 괜찮아요?”누가 봐도 멀쩡한 주윤별이 고개를 끄덕였다.“네. 캠프 깔만한 데까지 이동해야 할 것 같으니 추우면 말하세요.”일정한 속도로 걷는다. 권사혜가 힐끔 뒤를 돌아보았다. 무덤조차 갖지 못하고 길바닥에 늘어진 시체들에 심장이 저 아래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덜덜 떨리는 턱에 힘을 준다. 이를 앙다물고 다시 앞을 바라본다. 달빛이 이곳에서 살아온 인간들의 흔적을 비춘다. 투쟁의 흔적이 여과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그들은 세시간 가까이 걸었다. 추위에 정신을 못 차리던 권사혜가 높이 솟은 솟대를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저기, 저기 솟대요!”“잘됐네요. 저기에 캠프 깝시다.”권사혜는 얼어붙기 일보 직전인 발가락을 꿈틀대며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쉴 수 있다. 희망찬 얼굴에 짧은 웃음이 터졌다.천하대장군과 지하대장군의 사이로 걸어 들어간다. 모여 살았던 흔적만이 남은. 텅 빈 마을을 둘러본다. 다행히 외부에 보이는 시체는 없었다. 권사혜는 안도의 한숨을 내뱉으면서도 허술한 집 안을 확인하려 했다.“사권 씨.”“네?”“던전에서는 특히, 죽을 때 사람으로 죽었던 인물이 살던 집에 들어갈 때는 예의를 갖춰야 해요.”일행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던 주윤별이 덤덤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고는 인벤토리에서 <던전용 캠프>를 꺼냈다. 더이상 말을 잇지 않고 캠프를 설치하기 시작했다.“예의요?”고작 던전인데.권사혜는 입술을 오므리더니 문고리에서 손을 뗐다. 주윤별에게 바짝 다가서서 고개를 치켜든다. 더 말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권사혜의 손에 못을 쥐여준다.“놀지 말고 일하세요. 더 추워질 거예요.”턱을 치켜올려 하늘을 바라본다. 달빛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그래, 죽음의 온도가 가까워지고 있었다.[작품후기](۶•̀ᴗ•́)۶오늘도 선추코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글을 쓰다 보니 분량이 애매해서 마저 잇고 두 편으로 나눠왔습니다:)TMI.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로 유명한 짤은 2014년 말에 나왔지만, 그보다 더 설명하기 좋은 말이 없어 그냥 사용하였습니다.ps. 남겨주신 코멘을 읽다 보면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답변하고 싶어서 혼자 드릉드릉하는데 후기에 쓰면 너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물어보긴 했지만 답을 구하는 의도의 질문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침착해지기로 했습니다;ㅅ; 답변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트위터나 쪽지로 연락주세요! 혹시 모른다며 페잉도 만들어두긴 했습니다.^^^어린양의 이름캠프를 설치하자마자 윤별이 먼저 그 안에 들어갔다. 혼자 있었다면 상관없지만, 권사혜가 함께 있으니 중앙에 깡통을 두는 게 좋을 듯했다. 그는 깨끗하고 조그만 깡통과 그보다 큰 깡통 두 개를 꺼냈다. 큰 깡통에는 불덩이를 만들어 넣는다.“와…!”캠프 안에 들어선 권사혜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사를 내뱉었다.“설치한 거랑 똑같아…!”“실망했죠? 소설이나 영화에서 캠프를 깔면, 꼭 외부보다 내부가 넓은데 지금은 안 그러니까.”“허. 맞아요. 물리님도 실망했었어요?”곧바로 고개를 끄덕인다.“네. 그것도 엄청. 전 캠프 설치하고 들어가면 뭐, 안에 저택 사이즈는 아니더라도 집 하나는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아니고.”“그리고 엄청 휑하고! 분명 영화에서는 캠프 안에 이것저것 엄청 많아서 집 같았는데…. 그거 다 과대광고로 방통위에 신고해야 해요.”아랫입술이 툭 튀어나온다. 그는 말을 끝내고 슬그머니 깡통 앞에 쭈그려 앉았다. 천 한 장이 바깥 공기를 막고 있다고 캠프 내부가 온실인 것만 같다. 권사혜는 얼어붙은 뺨을 문지르며 깡통 안에서 일렁이는 불꽃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제가 너무 애처럼 굴었나요?”던전 돌 때마다 베베같은 과자를 사 와서 “주윤벼리, 까까 먹을래?”하고 말하던 사람이 애처럼 굴었다며 걱정해댄다. 옛적에 권사혜와 입버릇이나 행동 같은 게 비슷해진 지 오래인 주윤별이 고개를 기울인다.“아뇨.”가볍게 흔들리는 베이지색 머리카락 사이로 뻔뻔한 회색 눈동자가 반짝인다.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답변에 권사혜가 고개를 들어 환히 웃었다.캠프 바깥에서 귀신이 우는 듯한 소리가 났다. 고막에 닿는 순간 부르르 몸이 떨린다. 권사혜는 바람 소리가 거세질수록 엉덩이를 움직여 깡통 쪽으로 다가갔다. 옆자리의 주윤별은 디바이스를 보느라 여념이 없는 듯했다. 인천시에서 제공한 얇은 담요를 두른 무릎을 끌어안는다.괜히 왔다. 무릎에 뺨을 묻는다. 불에 가까이 붙어있어도 추웠다. 던전 입장 전에 받은 로브가 아니었더라면. 불계열 이능력자인 물리와 함께 입장하지 않았더라면. 길가의 시체는 제가 되었을지 모른다. 당장 이 던전에서 나가고 싶다. 몬스터가 왕창 쏟아지는 던전에 들어가고 싶다.“사권 씨.”갑작스러운 부름에 깡통 옆에 딱 달라붙어 있던 권사혜가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배고프지 않아요?”“아! 바깥에 먹을 거 있는지 찾아보고 올게요!”“아뇨, 아뇨! 배고프시면 밥 먹을까 해서 물어본 거예요!”벌떡 일어나, 캠프 밖으로 나가려는 권사혜를 다급히 붙잡는다. 이 안에서 불을 쬔 시간이 꽤 되는데 아직도 권사혜의 코끝은 벌겋게 얼어붙어 있다. 추위도 더럽게 잘 타는 몸으로 어딜 나가겠다는 건지. 용감하기 짝이 없는 권사혜의 손목을 조심히 끌어당겨 앉힌다.“가만히 있어요.”제발.그는 어정쩡한 자세로 굳은 권사혜를 응시하며 손을 휘저었다. 깡통 안의 불이 몸집을 키운다.“춥거나 더우면 말해줘요. 전 이능력이 불이라 잘 못 느껴요.”주윤별은 인벤토리에서 나무 주걱과 인스턴트 수프 가루, 물병을 꺼냈다. 작은 깡통에 수프 재료를 한 번에 털어 넣는다. 그러고는 쇠 막대에 깡통 손잡이를 끼우고 큰 깡통 위에 걸쳤다. 가루가 둥둥 떠다니는 물은 따뜻해질 기색조차 없다. 불을 얇게, 판처럼 만들어 깡통 주변을 두른 윤별이 나무 주걱으로 내용물을 휘젓기 시작했다. 뭉친 가루를 잘 풀어주며 불의 온도를 높인다.밋밋한 크림 수프가 드디어 끓기 시작했다. 포장지에 적힌 시간을 상기하며 잘 저어준다. 깡통에 눌어붙지 않도록 주의하며 수프를 만든 윤별이 다시 한번 인벤토리를 열었다. 머그컵 두 개와 국자, 어제 사서 넣어둔 바게트까지. 줄줄이 꺼낸다. 그 중 머그컵에는 불을 잠시 담았다가 없앴다.“더 추워지기 전에 식사부터 해요.”“더 추워져요?”머그컵에 수프를 따라넣는다.“아마도요. 여기 빵도 먹어요.”으…. 괴롭다는 듯 미간을 좁힌 권사혜가 머그컵을 받아들었다. 따끈따끈한 온기가 실시간으로 식어가고 있다. 양손에 쥔 컵에 입술을 대고 마신다. 온기가 사라질 때마다 탈출석을 사용하고 싶어진다.윤별은 수프에 얇게 썬 바게트를 찍어 먹다가도 권사혜의 머그컵이 비면 흔쾌히 국자를 들었다. 깡통이 밑바닥을 보이고 비닐봉투에는 빵가루만 남았다.주윤별이 말했던 것처럼 바깥 날씨는 더욱 거세졌다. 권사혜는 제가 있는 곳이 던전 안인지, 귀신의 집인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불 앞에 딱 붙어있었다. 바람이 천 자락을 친다. 귀곡성이 캠프 안을 떠돌아다니다 빠져나간다.추위와 더위를 느끼지 못하는 이능력자, 주윤별이 캠프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사권 씨. 더위는 많이 타요?”“아뇨. 그건 남들보다 덜 타요.”권사혜는 덜덜 떨리는 턱으로 답했다. 내밀었던 고개를 그대로 끄덕인다.“다행이네요. 곧 더워지겠어요.”“이렇게 추운데요?”“원래 가장 추울 때 더위는 찾아오는 법이랍니다. 사권 씨도 여기 와서 볼래요?”“아뇨.”아직 별이 만들어지기 전, 달빛만이 빛나는 밤. 그중에서도 가장 달빛이 환히 빛나는 시간이었다. 부옇게 여명이 밝아오려 하는 밤하늘 속 부서지지 않은 두 개의 푸른 달을 내다본다. 뺨에 내려앉은 공기가 시원하다. 몸 안의 열기를 식혀주려는 것처럼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에서는 창백한 냄새가 난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뱉는다. 찬 공기가 폐부에 고였다가 터져 나온다. 숨 자국이 담은 공기가 희게 부서져 밤하늘을 부유한다. 그는 한참 동안 제 숨이 퍼지는 모양을 살폈다.“너무 더워지기 전에 이동할까요?”오들오들 떨고 있던 권사혜의 낯이 거무죽죽해진다.“지금요?”그는 돌아보지 않는 주윤별을 간절히 바라보며 되물었다. 제발 내 얼굴을 보고 말해달라, 엎드려 빌고 싶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동행인은 돌아보지 않는다. 캠프 바깥으로 팔을 뻗은 주윤별의 여상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온다.“지금이 딱 좋아요.”죽고 싶다는 얼굴의 권사혜에게 로브를 벗어 건넨 윤별이 캠프 내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깡통에 말라붙은 스프를 보며 손을 휘젓는다. 푸른 불꽃이 잔여물을 모조리 먹어 치운다. 스프를 끓이는 데 사용한 식기는 지퍼백에 한 번 포장해 인벤토리 안에 넣는다. 윤별은 아직도 추위에 허덕이는 권사혜 주변에 불을 피웠다.“이제 캠프 걷을 거예요.”예고와 동시에 매듭을 푼다. 설치하는 시간은 한나절인 것만 같았는데, 제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다. 권사혜는 코를 훌쩍이며 세찬 바람을 향해 가운뎃손가락을 추켜세웠다.지면에서부터 두 개의 해가 올라온다. 어둠이 도망치고 빛이 어둠을 추격하는 시간이 되고 나서야,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펴진다. 두 명의 헌터는 길을 따라 걸었다.“이제 좀 살겠네.”로브 두 겹을 껴입은 권사혜가 주머니 속에서 휴지를 꺼냈다. 얼어붙었던 코가 녹을랑 말랑이다. 휴지로 콧방울을 가볍게 마사지하며 주변을 둘러본다. 지나온 길마다 시체가 있다. 기관지를 통해 호흡하는 것들이 죽은 흔적을 따라 걷는다. 나란히 걷고 있는 이는 아무런 표정도 그리지 않은 얼굴이었다.“물리님은 올해 초에 각성하신 거죠?”창백한 얼굴이 제 목소리를 따라 움직인다. 비스듬히 들어온 빛줄기에 회색 눈동자의 일부분이 투명해진다. 그는 제가 읽었던 인터넷 기사를 떠올렸다. 대한민국 이능력자들이 쌓아온 기록을 모두 갈아치우며 등장한 혜성 같은 S급. 고작 올해 2월에 있었던 일이다.한 명이 질문하고 다른 한 명이 답하는 구조의 대화가 이어진다. 주윤별은 성심성의껏 대답하다가도, 투레질 소리나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하던 말을 멈추었다.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살피는 모습은 권사혜의 경각심마저 울렸다.해가 올라오던 지면 위에 열기가 고인다. 권사혜가 입고 있는 로브의 색이 희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로브 안에서 꼼지락댔다. 두 겹 아래에 있던 왼손이 한 겹의 천 자락을 헤쳐나온다. 오른손과 왼손에 닿는 열기를 확인한 권사혜가 흐린 눈으로 왼손을 다시 로브 아래로 숨긴다. 그는 또다시 제 로브 자락을 목숨줄처럼 붙잡았다.불행 중 다행히도, 던전 안은 건조했다. 습한 열기가 올라왔더라면 온갖 욕설을 내뱉으며 탈출석을 사용했을 거다. 권사혜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주윤별을 힐끔였다. 이 던전에서 유일하게 뽀송뽀송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다. 원소계를 향한 부러움에 목이 턱턱 막힌다.같은 A급이라면 신체계보다 원소계가 훨씬 좋은데…….아쉬움을 삼키고 인벤토리에서 물병을 꺼낸다. 시원할 때 넣은 물병이 금세 미적지근해지는 것에 질색하며 목구멍 안에 털어 넣는다. 시원한 거 딱 한 잔만이라도 마시고 싶다.“심심하죠?”갑작스러운 질문에 올리브그린색 눈동자가 데굴데굴 돌아가다가 멈춘다.“조금, 조금이요.”“정 심심하면 수명장자가 있는 쪽으로 살짝 우회해서 갈까요?”“예?”“잘하면 수명장자는 제치고 개나 말 같은 애들은 하나씩 끌고 와서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실제로 권사혜의 취미였다. 권사혜는 ‘두 개의 해, 두 개의 달, 두 개의 화살’에 입장할 때면, 미래를 생각하는 거라는 말과 함께 수명장자 쪽으로 향했었다.“그런 짓을 굳이요?”올리브그린색 눈동자가 ‘너 지금 헛소리한다’를 담아낸다. 억울함에 팔짝 뛰고 싶어진 윤별이 입을 꾹 다물고 머릿속으로’저건 뉴비 사권이다’를 반복해서 되뇌었다.살갗에 땀이 맺힌다. 송골송골 맺히다 다른 땀방울과 합쳐져 떨어져 내린다. 권사혜는 손등으로 땀을 훔치며 또다시 인벤토리 안을 뒤적였다. 물을 더 사 왔어야 했다. 빈 병이 굴러다니는 인벤토리에서 이온 음료를 꺼내 마신다. 해가 달이 떠 있던 곳과 가까워질수록 숨이 턱턱 막힌다.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싶어도, 뜨거운 공기가 한 번에 들어와 폐부에 닿는 느낌을 경험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얕게 호흡하며 감각을 끌어올렸다. 생명체가 호흡하는 소리가 들리는 곳은 오로지 제 옆뿐이다.“진짜 아무도 없네요.”“사권 씨도 안 느껴져요?”“죽, 죽은 건 아니겠죠?”지나온 길의 시체를 떠올린다.“설마요. 아무리 약한 헌터라도 이 던전 안에서 5분은 버틸 거예요. 정 위험하면 탈출석 써서 나갔겠겠죠, 뭐. 던전 공략팀에 지원할 때 필수 준비물이 던전 탈출석이라는 건 사권 씨도 알고 있잖아요.”무덤덤하게 말한 윤별이 제 인벤토리에서 두 개의 물병을 꺼냈다. 플라스틱을 툭 건드리자, 물에 닿았던 열기가 손끝을 통해 빠져나온다. 정신과 기억은 스물여섯인데 몸뚱어리가 열아홉이라고 원하는 만큼 섬세한 능력 사용이 되지 않는다. 깜찍이 재료를 모두 구하면 이능력 각성 센터 내부의 수련실에 박혀있어야겠다.미약하게나마 조금 더 시원해진 물병을 권사혜에게 건넨다.“물이나 마셔요. 목소리 다 갈라지셨네.”천국에서 울려 퍼질법한 내용에 권사혜의 얼굴이 밝아졌다.[작품후기](۶•̀ᴗ•́)۶오늘도 읽어주시고 선추코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오늘은 후기가 조금 기네요!그렇지만 제가 권사혜 사랑하니, 트위터에 올린 TMI를 후기에도 쓸 겁니다.권사혜는 햄찌 닮고 작고 귀엽고 소중한. 일명 무말단키의 외형이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주먹을 가진 멋진 신체계 헌터입니다.TMI로 현미 씨는 불교신자여서 딸의 이름을 사혜라 지었습니다. 생각하고 관찰하여 얻은 지혜라는 뜻의 이름을 지닌 딸이 몬스터 살생하고 다녀서 뒷목을 잡았답니다.그리고 17화에도 코멘으로 따로 달겠지만, 파사와 팀업한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1. 11화에서 파사는 '그림자 안으로 숨었다'라는 말을 통해 이동기가 있으며, 주인공이 파사를 이미 한 번 놓쳤다고 표현했습니다. 던전 앞에서 무기가 또 터질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데다가 파사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2. 다수의 헌터는 제 옆의 누군가를 상해 입히지 않도록(스킬이 빗나가는 순간 완벽한 개판이 됩니다), 일반인이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한 명에 속하는 파사는 뱀을 소환해서 신나게 난장판 벌이다가 이동기를 통해 도망치면 끝입니다.3. 아무리 주인공이라 해도 현시점에서 완벽한 무적은 아니기에, 던전브레이크가 던전게이트로 변할 위험을 감수하며 잡아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던전게이트 예시: 3화 라타토스크의 다리).4. 이동기 있는 헌터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헌터들은 개인주의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개인주의 성향은 강합니다. 제 몸이 재산이다 보니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굳이 빌런을 잡아넣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주인공 역시 파사가 처음 나왔을 때 잡으러 갈지 말지를 고민하다가, 정선혜의 직장 쪽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움직입니다.오늘의 TMI.유진이 성별은 2화에서부터 나옵니다. 처음 교실에서 만났을 때 '이 나이대 남자애들과 다른, 부드럽게 발화되는 음성이었다.'라고 표기했었네요!그리고 공유진은 혼혈입니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가 만나 태어난 공유진(어머니 성을 따르고 있습니다).몇몇 분들께서 물어봐 주셨던, 좋은 일이 생기면 따로 공지하겠습니다:)항상 감사합니다!^^^어린양의 이름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해가 걸리기 직전이다. 권사혜는 신발 바닥이 녹을 것처럼 달궈진 지면에 결국 다시 한번 가운뎃손가락을 세웠다. 윤별은 험악한 얼굴이지만, 입 밖으로는 욕설을 꺼내지 않는 권사혜를 힐끔이다 고개를 내저었다. 입으로만 안 하지 온몸으로 욕을 하고 있다.“저기 사람 있는 것 같지 않아요?”주윤별이 팔을 쭉 뻗어 어딘가를 가리켰다.올리브그린색 눈동자가 팔을 따라 움직인다. 손끝이 가리키는 곳에 집중할수록 동그란 눈매가 얇고 길어진다. 푸른색과 붉은색 의복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보인다.“네. 사람이네요!”드디어 그들 외의. 살아있는 사람이 보인다. 그는 양팔을 쭉 뻗어, 머리 위에서 흔들려다가 훅 밀고 들어오는 열기에 강제로 얌전떨었다. 결국 기온이 아주 돌아버렸다는 말을 내뱉는다.“저기로 가는 거죠?”답도 듣지 않고 앞서 걷는다. 얼어붙었다가 녹아내린 흙바닥에 찍힌 발자국에 제 발을 얹는다. 느긋한 걸음으로 권사혜의 뒤를 쫓아가다 보니, 어느새 남자들에게 가까워져 있다. 등 뒤에 무쇠 활과 화살통을 하나씩 매고 있는 게 두드러졌다. 사람보다 활이 더 크고 두꺼워 보인다. 활과 겹쳐져 비스듬히 자리 잡은 거대한 화살통 안에는 딱 하나씩의 화살이 자리했다.“아우야. 내가 해를 쏘마.”“그럼 내가 달을 쏘겠소.”고려 시대의 푸른 의복을 입은 남자가 천근 같은 무쇠 활로 손을 뻗는다.두 사람의 대화에 권사혜가 휙 돌아서서, 주윤별을 바라보았다.“물리님.”“네?”“저 사람들이 활 쏘면 던전 끝나요? 이대로? 우리가 한 거라고는 생존밖에 없는데?”주윤별이 저 앞에서 활대를 붙잡은 두 명의 남자를 응시한다. 그들은 쇠줄로 만든 활시위에 화살을 걸려 하고 있었다.“원래라면 그렇겠죠.”멀리서부터 개 짖는 소리, 소 우는 소리, 말이 투레질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각 아홉 마리 씩. 총 스물일곱 마리의 짐승의 소리가 다가오고 있다. 그는 보폭을 넓게 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권사혜 옆에 나란히 선 주윤별이 입꼬리를 양옆으로 끌어당겨 곡선을 만들었다.“귀 기울여봐요, 사권 씨. 우리가 만나지 않은 동물 친구들이 오고 있는 소리가 들리잖아요.”아무것도 모르는 채 해와 달을 쏠 준비를 하고 있는 대별왕과 소별왕을 향해 검은 발자국들이 다가오는 소리가.권사혜가 고개를 돌려 소리를 쫓는다. 커다란 짐승들의 뜀박질에 뿌연 흙먼지가 일고 있다. 파도처럼 거대하고 빠르게 밀려오는 흙먼지에 미간이 좁혀진다.“우리가 쟤네 죽여야 하는 거예요?”“아뇨. 그건 대별왕과 소별왕이 알아서 하겠죠.”천지왕의 두 아들 역시 짐승들을 발견했다. 무쇠 활과 화살을 바위 위에 올려주고는 제 허리춤의 칼을 뽑아 든다.“저것들이 수명장자의 수하가 맞느냐?”“형님아. 저것들의 주둥이에 묻은 게 피가 보입니다. 풀만 먹는 것들의 주둥이에 묻은 건 사람의 피가 아니겠습니까?”“포악무도한 짓을 많이 한 것들이니 용서할 수 없다.”흥미진진한 드라마를 보듯 신화 속 인물을 바라보는 권사혜의 이끌고 걷는다.“사권 씨는 양궁 카페나 실내 양궁장 가본 적 있어요?”부러 낮은 목소리로 조곤조곤 묻는다. …아뇨. 권사혜는 조금 느리지만, 착실히 대답했다. 깨끗한 눈동자가 박이왕의 태에서 나온 이들의 움직임을 쫓는다.“센터 지하에 양궁장 있는데 한 번 가보세요. 깔끔하고 표적도 튼튼하고. 돈 바른 티 내고 좋아요.”우리나라 효자종목이 양궁이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활 잡는 헌터도 많고. 그래서 양궁장은 다른 시설보다 돈 들여서 만들어놨어요.대별왕의 활을 잡아 든다. 팔이 후들거릴 정도로 무거운 무쇠 활에 절로 숨을 들이마시게 된다. 깜찍이 재료 파밍이 끝나는 날부터 근력 운동도 해야겠다. 주윤별은 던전 안에서 계획만 잔뜩 세우며 굽어지는 어깨를 꼿꼿이 편다.“이거 받아요, 사권 씨.”“에?”받으라는 말에 화들짝 놀란 권사혜가 얼빠진 소리를 냈다. 칼의 궤적을 살피던 올리브그린색 눈동자가 타인의 활에 닿는다.“사권 씨가 해야 해요.”“네?”“원소계는 연약해서 활 하나 드는 것도 벅차거든요.”후들거리는 팔뚝을 보라며 눈짓한 주윤별이 그대로 활을 떠넘긴다.얼떨결에 무쇠 활을 끌어안게 된 권사혜의 눈동자가 잘게 흔들린다. 지금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새였다. 주윤별은 퍽 친절한 목소리로 권사혜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사권 씨가 활시위에 화살을 걸고, 저 태양을 향해 화살을 쏠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말고 뒤에 있는 태양을 쏴야 해요.”“네?”“걱정 마요. 태양은 크니까 한 번에 맞출 수 있을 거예요.”“아니 그걸 왜 제가….”“할 수 있어요, 사권 씨.”주먹을 옴팡지게 주고 화이팅 포즈를 취한다. 넋이 나간 권사혜에게 어서 하라며 재촉한 윤별이 제 팔을 주물렀다. 야구 배트를 그렇게 휘둘렀는데도 아직 말랑말랑하다. 열심히 만들어놓은 근육을 그리워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지금 안 하면 이따 또 새벽을 겪어야 해요.”추위를 상기시키는 말에 소름이 돋았다. 태양이 내뿜는 열기에 달아오른 살갗에 갑자기 찬물을 부은 것처럼, 서늘하게 식었다. 왼손으로 오른팔을 문지른다. 쭈뼛 솟은 솜털과 오돌토돌 돋아오른 살갗이 느껴졌다.또다시 한겨울의 새벽보다 추운 시간을 겪고 싶지 않다. 또 던전의 새벽을 겪을 바에야 탈출석을 쓰는 게 낫다. 탈출석의 가격과 이미 던전 안에서 소비한 시간 따위를 셈하던 권사혜가 코끝을 찡긋였다.언제 또 열릴지 모르는 S급 던전인데. 아직 한 번도 열린 적 없는 신화의 던전인데.아쉬움이 셈을 뒤쫓는다. 제 옆에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S급 헌터, 물리를 보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대한민국의 자랑이라 불리는 사람도 있으니 어떻게든 될 거라는 마음을 담은 끄덕임이었다.“너무 긴장하지 마요. 대충 쏴도 맞출 수 있을 거예요.”어쩌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활을 든 권사혜가 어설픈 자세로 활대를 붙잡는다. 로브 밖으로 빠져나온 팔에 닿는 햇볕이 뜨겁다. 활보다 작은 키의 권사혜의 옆에서 주윤별이 활고자를 바닥에 고정한다.“사권 씨, 대하드라마 좋아해요?”“아뇨. 저 완전 로판이나 로코만 보는데요.”온갖 드라마를 다 섭렵했기에 대하드라마도 보는 줄 알았는데….과거이자 미래의 정보를 머릿속에서 지운다. 그는 바위 위의 화살까지 집어 들고 제자리로 돌아왔다.“올림픽은 보죠?”“당연하죠. 일본놈들에게 질 수는 없지.”희번뜩한 올리브그린색 눈동자에 주윤별이 가볍게 손뼉 친다.“그래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아니 뭘요?”“올림픽 양궁 경기에서 봤던 거 흉내만 내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주윤별은 묵직한 화살을 그 어설픈 자세에 얹으며, 권사혜의 손 위에 손을 얹는다.가벼운 접촉에 권사혜가 입술을 말아 물었다. 그럴 거면 물리님이 다 하세요. 목구멍에서 넘실거리는 말을 삼키고, 기억을 더듬는다. 운동화가 활고자를 박아넣은 곳 바로 뒤로 이동했다. 다리를 벌리고 밋밋한 쇠 그립을 붙잡는다. 이내 활시위에 거대한 화살이 걸린다. 쇠 그립을 밀어내는 손이 흔들리자, 주윤별이 검지로 권사혜의 살갗을 가볍게 두드렸다.“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흐트러졌던 자세가 반듯해진다. 두 개의 태양이 시야를 어지럽힌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다. 폐부가 팽창한다. 괴로울 정도로 숨을 들이마신 권사혜가 그대로 태양의 잔상을 지워내기 시작했다. 푸르다 못해 희게 빛이 번져있는 하늘이 또렷해진다. 눈을 가느스름히 뜨고 화살과 시위를 쥔 손에 힘을 준다. 괴로운 만큼 팽팽히 늘어나는 활시위에 활대가 휜다. 저를 끌어안듯 선 주윤별의 숨소리조차 멎어있다.칼과 짐승이 내는 소리까지 멀어진다. 모든 감각이 오로지 태양을 향해 집중된다. 눈꺼풀과 언더 속눈썹의 거리가 점점 벌어진다. 두 개의 해가 오로지 권사혜의 올리브그린색 눈동자에 집중된다. 맑은 날의 산사나무에 걸린 나뭇잎이 눈동자 속에 갇힌다. 오른쪽 손가락이 제가 쥐고 있던 것을 놓는다. 그제야 고였던 숨이 터져 나온다.주윤별은 제 손 아래의 움직임에 화살에 불을 담았다. 땅에 박아넣었던 활이 반동에 흙을 패고 나왔지만, 두 헌터의 눈은 화살의 궤적을 쫓는다. 그대로 쏘아지는 화살이 하늘을 가른다. 태양을 부시기 위해 날아가는 화살촉이 푸르게 빛난다. 푸른 궤적이 희게 빛나는 태양에 닿는다. 빛이 무너지고 있다.화살촉이 뒤편의 해에 깊숙이 박힌 순간. 해는 산산이 조각나 동쪽 하늘에 쏟아진다.“봐요. 맞출 수 있잖아요.”해 조각이 별이 되는 곳에서. 해와 별이 동시에 보이는 던전 안에서 주윤별이 웃음을 터트렸다.모든 것을 태울 것처럼 타오르던 해가 하나 사라졌다. 하늘은 물감을 끼얹은 것처럼 푸른색이다. 빛이 번진 곳의 범위가 좁다. 권사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푸르고 맑은 하늘이 모습을 드러내자, 땅 위에서 이글거리며 타던 것들이 숨을 죽였다.“사권 씨가 만든 별이 보여요?”등 뒤에서 속삭인다. 권사혜가 화살을 쥐고 있던 손을 쥐었다 피기를 반복했다. 하나의 화살로 낮이 변했다. 열기가 흩어지는 게 선연히 느껴져서 눈 앞머리가 시리다.“내가 했어요.”벅차오른 감정에 억눌린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불안정한 호흡이 이지러지는 공기 속에 녹았다.“당신이 했어요.”오로지 당신이 했다는 말에 뒤돈다. 마냥 창백하게 보였던 얼굴이 아니었다. 상기된 뺨에는 권사혜와 같은 감정이 묻어있었다. 불안. 행복. 걱정. 그리고 희망. 얕게 휘어진 눈매를 보며 벅차오른 숨이 다시금 터진다.“내가 했어!”권사혜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쥐고 외쳤다.[작품후기]( ⁎ ᵕᴗᵕ ⁎ )오늘도 선추코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우리 사권 씨가 별사탕 만들기 성공했습니다;D이번 던전도 곧 끝나고 남주인 공유진 씨가 얼굴을 들이밀 때가 되어가네요. 유진이 잘 지내지?항상 코멘트와 트위터로 등장인물들 사랑해주시는 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늘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는데, 청량한 초여름 느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기뻐서 혼자 입 가리고 웃었답니다.이전까지 섹슈얼 텐션 높은 글만 썼는데 이제 정말정말 성공한 것 같네요uu이번 주도 즐거운 일로 가득하시길 바라요!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기도 했고, 공유진 만난 게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푸는 TMI.공유진 목소리 모델은 전동석 배우님입니다.^^^